

碩士學位論文

한국농업산출구조의 변화요인 분석 :
1955 ~ 1999년



濟州大學校 大學院

農業經濟學科

高 貞 順

2001年 12月

한국농업산출구조의 변화요인 분석 : 1955~1999년

指導教授 劉永鳳

高貞順

이 論文을 經濟學 碩士學位論文으로 提出함.

2001 年 12月

高貞順의 經濟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_____ 印

委 員 _____ 印

委 員 _____ 印

濟州大學校 大學院

2001 年 12월

An Analysis on the factors of change in Korean Agricultural production structure

Jeoung-Soon Ko
(Supervised by professor Young-Bong Yu)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conomics



This thesis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Hyun Kong-Nam	Prof. of Agricultural economics
Kang Dong-II	Prof. of Agricultural economics
Yu Young-Bong	Prof. of Agricultural economics

December 2001.

Department of Agricultural Economics
GRADUATE SCHOOL
CHEJU NATIONAL UNIVERSITY

目 次

I. 서 론	1
1. 연구배경	1
2. 연구목적	2
3. 연구범위 및 방법	2
4. 논문의 구성	3
II. 농업생산 통계자료의 추계	4
1. 생산량	4
2. 재배면적	13
3. 농림업취업자	17
2. 비료 및 농기계	19
III. 한국농업산출구조의 실태 및 특징	20
1. 농업의 위치	20
2. 한국농업생산의 실태	24
3. 농업투입요소의 변화	30
4. 한국농업산출구조의 특징	34
1) 시기별 변화의 특징	35
2) 품목별 변화의 특징	39
IV. 지역별 농업생산의 실태 및 특징	47
1. 도별 농업생산의 실태	47
2. 도별 농업투입요소의 변화	51
3. 지역별 농업생산의 특징	53
V. 한국농업산출구조의 변화요인 분석	60
1. 한국농업산출구조의 특징	60
2. 한국농업산출구조의 변화요인	61
V. 결 론	74
<참고문헌>	77
<부 표>	78

< 表 目 次 >

<표 II-1> 통계조사방법별 1975~77년 평균재배면적 및 그 수정비율	16
<표 III-1> 경제활동별 국내총생산의 구성비	21
<표 III-2> 산업별 취업자 변화 추이	23
<표 III-3> 농업총생산액 추계 대상품목	25
<표 III-4> 한국농업생산의 부문별 변화 추이	28
<표 III-5> 농업노동력의 변화	31
<표 III-6> 경지면적의 변화 추이	32
<표 III-7> 비료 및 농기계보유액의 변화	33
<표 III-8> 시기별 농업생산의 연평균성장률 비교	37
<표 III-9> 농업생산의 변화 추이(1994~96년 평균가격)	40
<표 III-10> 품목별 연평균 성장률	42
<표 III-11> 시기별 한국농업생산의 부문별 성장기여도	44
<표 III-12> 시기별 품목별 성장기여도	45
<표 III-13> 시기별 농업생산의 성장주도품목	46
<표 IV-1> 도별 농업생산의 품목별 구성비	48
<표 IV-2> 부문별 농업생산의 연평균성장률	50
<표 IV-3> 도별 경지면적 및 토지/노동비율의 변화	51
<표 IV-4> 도별 비료소비량 및 농기계보유액의 변화	52
<표 IV-5> 한국농업생산의 지역별 성장기여도	54
<표 IV-6> 성장기여도에 따른 지역구분	54
<표 IV-7> 농업생산의 지역별 성장기여도에 따른 지역구분	55
<표 IV-8> 성장주도작물의 지역별 생산변화 추이	58
<표 V-1> 지역별 경지면적 구성	63
<표 V-2> 전기(I, II기) 한국농업생산액의 지역별 구성	64
<표 V-3> 지역별 토지생산성 및 노동생산성의 비교	65
<표 V-4> 후기(III,IV기) 성장주도품목별 성장기여도	66
<표 V-5> 시기별 성장주도품목의 1인 1일당 식품소비량	69
<표 V-6> 시기별·부문별 성장기여도	70
<표 V-7> 후기(III, IV기) 지역별 생산성 비교	72

<그림차례>

<그림 II-1> 통계조사방법의 변경에 따른 수정 생산량의 변화	7
<그림 II-2> 잡곡 및 두류의 생산량 수정 변화	8
<그림 II-3> 생산량 수정에 따른 변화 추이	10
<그림 II-3(계속)> 생산량 수정에 따른 변화 추이	11
<그림 II-4> 10a당 생산량의 변화 추이	12
<그림 II-5> 통계조사방법의 변경에 따른 품목별 재배면적 변화 추이	14
<그림 II-6> 잡곡 및 두류의 재배면적 차이	15
<그림 II-7> 농림업취업자의 지역별 변화 추이	18
<그림 III-1> 산업별 생산변화 추이(95년 기준가격, 1955=100)	22
<그림 III-2> 경중부문 생산액 추계품목의 재배면적 추이	26
<그림 III-3> 농업생산의 부문별 변화 추이(1994~96년 평균가격)	27
<그림 III-4> 유형별 농업생산의 구성 변화	29
<그림 III-5> 농업총생산의 변화 추이(1955=100)	36
<그림 III-6> 시기별 농업투입요소의 변화	38
<그림 IV-1> 지역별 농업생산의 구성 비교	56
<그림 V-1> 식품소비 추이(1970=100)	67
<그림 V-2> IV기 시기별·부문별 성장기여도	71

SUMMARY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find characteristics and factors of changes in Korean agricultural production structure by time period and by region from 1955 to 1999.

During the former period of 1955 ~ 1979, when we can say it as an initial stage of economic development in Korea, the growth of Korean agriculture mainly depended on the production of food crops such as rice, wheats, barley, and potatoes. Among them the rice production was played a leading role in the growth of total agricultural production, and contributed to a high growth of Korean agriculture at this time. Therefore, the individual region's contribution to the total national agricultural growth differ from the each region's condition of rice production such as natural resources and factor endowments. That is, the larger the paddy field for rice production was, the higher contribution level to the growth of national agriculture the region showed.

In the latter period of 1980 ~ 1999, Koran economy showed a rapid increase in incomes and thereby rapid changes in demands of agricultural products. Therefore, the agricultural growth in the latter period was affected by changes in food demands more than by natural agricultural environments as in the former period. Jeju province where the dry-field was the main in the agricultural land achieved high growth at the latter period. In fact, this region had a disadvantage in natural conditions to the rice production, to which the low agricultural growth rate in the former period was attributed in Jeju. But in the latter period the production of vegetables and fruits increased rapidly in the region. Likewise, other regions where highly contributed to the growth of national agriculture showed a rapid changes in compositions of the agricultural production from paddy cultivation to other commodities shown rapid increase in consumptions.

In addition, in the leading regions in the agricultural growth during the latter period, they accomplished changes of production technology as well as

agricultural output increases of growth-leading agricultural commodities.

As a result, the growth of Korean agricultural production is influenced by the degree of flexible correspondence to natural conditions, factor endowments and demand changes with an economic growth. In the process of agricultural adjustments to the changes of the factors, the regions who made an adequate composition of productions of rice, dry-field cultivations and livestock could achieved a higher level of contributions to the growth of national agricultural production. In addition, the regions where the change of production technology was made at the same time, might be able to maintain a continuous growth even under the rapidly-changing market conditions for agricultural products.



I. 서 론

1. 연구배경

1960년대 초반 경제개발계획의 실시와 더불어 한국경제는 짧은 기간에 어느 나라에서도 경험하지 못한 급속한 발전을 이루었다. 이 과정에서 한국농업은 산업내 생산비중 감소는 물론 비농업부문의 급속한 성장에 따른 노동수요의 증가 및 부문간 생산성의 격차 등으로 인해 농업부문의 취업자의 비중 또한 크게 감소하였다. 이러한 한국농업의 상대적 비중저하 추이에서도 한국농업생산은 1955년 이후 지속적인 성장을 유지하며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경제발전 초기 절대적으로 부족한 식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시한 식량증산계획아래 농업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하부구조(Infrastructure)의 정비가 활발히 이루어졌고, 미국은 물론 대체식량작물에 대한 품종개량 및 육성 등을 통해 1970년 후반에는 식량자급을 이룰 수 있었다. 이후 국내 경제발전에 따른 국민소득의 향상으로 곡물위주의 소비가 채소류와 과실류, 육류 등으로 그 소비패턴이 변화함에 따라 종전 식량작물 위주에서 점진적으로 수요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생산체계로 변화하게 되었다. 그러나, 최근 농산물 시장을 둘러싼 여건변화와 1997년 후반 외환위기에 따른 IMF관리체제로 국내 전반에 걸친 경기침체가 소비둔화로 이어지면서 그 여파가 농산물의 소비감소를 가져왔다. 이처럼, 한국농업생산은 경제발전 초기 식량부족문제의 해결 등을 위한 내적요인에 의해 변화되었다면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점차 농업을 둘러싼 외적요인들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이로인해, 농업을 둘러싼 외적 여건이 더욱 거센 변화가 자명한 한국농업에 있어 과연 어떻게 대처해야 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모색이 시급하다. 하지만, 한국농업이 어떤 형태를 띄며 변화해 왔는가에 대한 실태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향후 방안을 모색한다는 것은 분명 또다른 시행착오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2. 연구목적

한국농업은 국내 경제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산업내 생산비중의 감소뿐만 아니라 상대적 성장저하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한국농업생산만을 살펴봤을 때 1950년대 이후 지속적인 성장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국민소득의 향상에 따른 소비패턴의 변화에 따라 곡류 위주의 생산에서 채소류와 과실류, 육류 등으로 생산패턴이 변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한국농업산출구조의 변화특성을 검토하고, 그 변화요인을 규명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와 더불어 성장회계분석방법을 이용하여 각 시기별, 품목별, 지역별 성장기여도를 구하여 이들이 한국농업생산의 성장변화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3. 연구범위 및 방법



한국농업생산과 이들의 품목별 생산구성 변화에 대해 많은 논문과 책자에서 언급하거나 인용하여 사용되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생산패턴의 변화가 어느 시기부터 나타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이들 품목별 변화가 한국농업생산의 성장변화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에 대한 연구가 이정환¹⁾(1997년)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 역시 세부 작물 및 지역별 농업생산을 다루지 않고 있다.

한국농업의 산출구조를 살피기 위해서 본 논문에서는 농림통계연보를 기본자료로 삼아 1955년~1999년까지의 농업생산에 관련된 통계자료를 추계하여 이용하였다. 이는 농업생산관련 통계자료를 이용하는데 있어 통계조사방법의 변경과 조사대상의 변경, 자료의 불연속성 등으로 자료의 단층현상이 발생함으로써 이에 대한

1) 이정환, 『농업의 구조전환 그 시작과 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7

추계가 불가피하였다. 그리고, 농림통계연보에서 생산량이 발표되지 않은 화훼류 생산에 대해서는 본 논문에서 제외시켰다.

4. 논문의 구성

본 논문은 6장으로 이루어졌으며, 각 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Ⅱ장에서는 농업생산 관련 통계자료의 추계를 실시하며 원계열과 수정계열간의 차이를 살펴본다.

Ⅲ장에서는 Ⅱ장에서 추계한 자료를 이용하여 한국농업총생산액을 추계하고, 이를 통해 한국농업산출구조의 변화양상을 살핀다. 이때 한국농업생산의 변화를 시기구분을 통해 그 특징을 살펴보고, 성장회계분석방법을 이용하여 품목별 성장기여도를 구하여 품목별 변화의 특징을 살핀다. 또한, 한국농업생산이 변화를 나타내는 과정에서 농업투입요소들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Ⅳ장에서는 Ⅲ장에서 한국농업생산이 시기별·품목별 변화를 나타내며 성장하는 과정에서 각 도별 농업생산은 과연 어떤 형태를 띠고 있으며, 이들의 시기별 성장기여도의 변화에 따라 지역을 구분하고 이들의 농업생산의 특징을 살펴본다.

Ⅴ장에서는 Ⅲ장과 Ⅳ장에서 살펴본 한국농업산출구조의 시기별·품목별·지역별 변화의 특징을 정리하고, 한국농업산출구조의 변화요인이 무엇인지 규명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Ⅵ장에서는 Ⅲ, Ⅳ, Ⅴ장에 살펴본 한국농업산출구조의 특징 및 변화요인을 정리하고 그 변화요인에 대한 의미를 정리하도록 한다.

Ⅱ. 농업생산 통계자료의 추계

한국농업산출구조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현재 발표되고 있는 농림통계연보를 기본자료로 삼아 1955~1999년까지의 농업생산에 관련된 통계를 시계열자료로 정리하였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통계조사방법이 행정조사방법²⁾에서 표본조사방법으로 변경되고 있지만 이들이 한 계열로 동시에 게재되고 있음으로써 자료의 단층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행정조사방법에 의한 통계자료가 식량작물³⁾에 한해서는 표본조사방법에 의한 자료로 수정되어 발표되고 있지만, 그 수정방법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들의 시도별 통계자료가 표본조사방법으로 수정되어 발표되지 않고 있다. 이로인해, 한국농업산출구조를 살피기 위해 표본조사방법에 의한 전국자료와 행정조사방법에 의한 시도별 통계자료를 그대로 이용하는 것은 한국농업생산의 현실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한국산출구조를 실태파악을 위한 1955~1999년까지의 통계자료를 정리한 후 자료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조사방법에 의한 자료를 표본조사방법에 의한 자료의 계열로 추계하였다. 또한, 자료의 일관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 통계자료의 추계과정에서 이상폭등·폭락현상이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임의적인 수정을 가하지 않았다.

1. 생산량

한국농업산출구조를 살피기 위해 기본자료로 이용하고 있는 농림통계연보(이하 연보)를 통해 통계조사방법의 변경이나 그 내용, 수정이 이루어진 대상품목, 그리

2) 행정조사란 읍·면·동에서 청취조사를 실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계통을 통해 보고하는 것을 말한다. (<http://www.naps.go.kr>)

3) 식량작물은 미곡, 맥류, 서류, 두류, 잡곡을 포함한 것임.

고 품목별 수정계열 등의 정보는 1967년판 연보를 제외하고는 찾아 볼 수 없었다. 이와 관련된 자료는 오히려 「작물통계」(농림부)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⁴⁾ 등을 통해 살펴보는 편이 더 나왔다.

한국농업생산에 관련된 통계의 시계열자료를 추계하기 위한 품목별 생산량은 먼저 각 연도별 연보의 발표자료를 기본적으로 입력하였고, 1978년판 연보에서부터 표본조사방법에 의한 수정된 자료가 1975년부터 발표되고 있으며 이후 이 자료의 계열이 1999년까지 유지되고 있었다. 따라서, 1974년 이전 행정조사방법에 의한 통계자료를 1975년 표본조사방법에 의한 자료의 계열을 기준으로 삼아 추계하였다. 그러나, 1979년판 연보⁵⁾에 보면 ‘1975년 이전 지수에 대한 작물통계 현실화에 따른 추계치를 제시한다’라고 기술되어 있다. 따라서, 이 농림업생산지수에 현실화된 추계치가 표기된 품목과 포함되지 않은 품목에 대해 다음과 같은 두가지 방법으로 행정통계자료를 수정하였다.

첫째, 현실화된 생산지수 대상품목은 수정되어 발표된 생산지수를 이용하여 생산량을 산출하였다. 이 때, 농림업생산지수는 1974~76년 3개년 평균에 대한 각 연도별 생산량의 차이를 비율로 나타낸 것으로, 우선 1976년 품목별 생산지수를 이용하여 1974~76년 평균치를 구하였다. 이 평균치를 각 품목별 생산지수에 곱하여 생산량을 산출하였다. 그러나, 이로부터 산출한 1974년 생산량을 이용하여 1974~76년 평균치를 재계산하게 되면 위에서 1976년 생산지수로부터 구한 평균치와 다른 결과를 나타냈다. 그러나, 생산지수를 통한 생산량을 추계하는 것임으로 여기서는 1976년 생산지수로부터 산출된 평균치를 이용하여 1974년 이전 생산량을 산출하였다. 한편, 이 생산지수가 1961년부터 발표되고 있어 1960년 이전에 대한 추계가 불가피하였는데, 여기서는 1960년 이전의 행정통계추세를 원용하여 1955년까지 거슬러 추계하였다.

둘째, 생산지수 발표품목에 포함되지 않거나, 1975년 이전에도 자료가 발표되고 있음에도 생산지수를 산출하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는 행정통계자료와 표본통계자

4)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http://www.naqs.go.kr>)

5) 1979년판 농림통계연보, 「농림업생산지수(1974~1976=100)」, pp 344~347.

료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1975~1977년 3개년 평균을 각각 구하여 이 두 자료의 차이를 비율로 구하고, 이 비율을 1974년 이전 행정통계자료에 곱하였다. 이 방법은 황수철⁶⁾(1996)이 생산량 추계를 위해 사용한 「행정통계와 표본통계의 수치를 모두 얻을 수 있는 1974~77년간에 대한 양자간의 차이를 비율로 파악하여 행정통계계열에 곱하는 방법」과 같은 형태이다. 하지만, 연보에서는 1974년도 표본통계자료를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위에서도 말했다시피 1975~77년 평균치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생산지수와 1975~77년 평균치를 이용하여 생산량을 추계하고 있지만, 이 두가지 방법을 통해 산출한 생산량을 비교해 보면 그리 큰 격차를 나타내지는 않았다. 따라서, 이렇게 수정된 전국자료의 생산량을 행정조사방법에 의한 시도별 생산량 비율로 나누어 시도별 생산량을 추정하였다.

1) 식량작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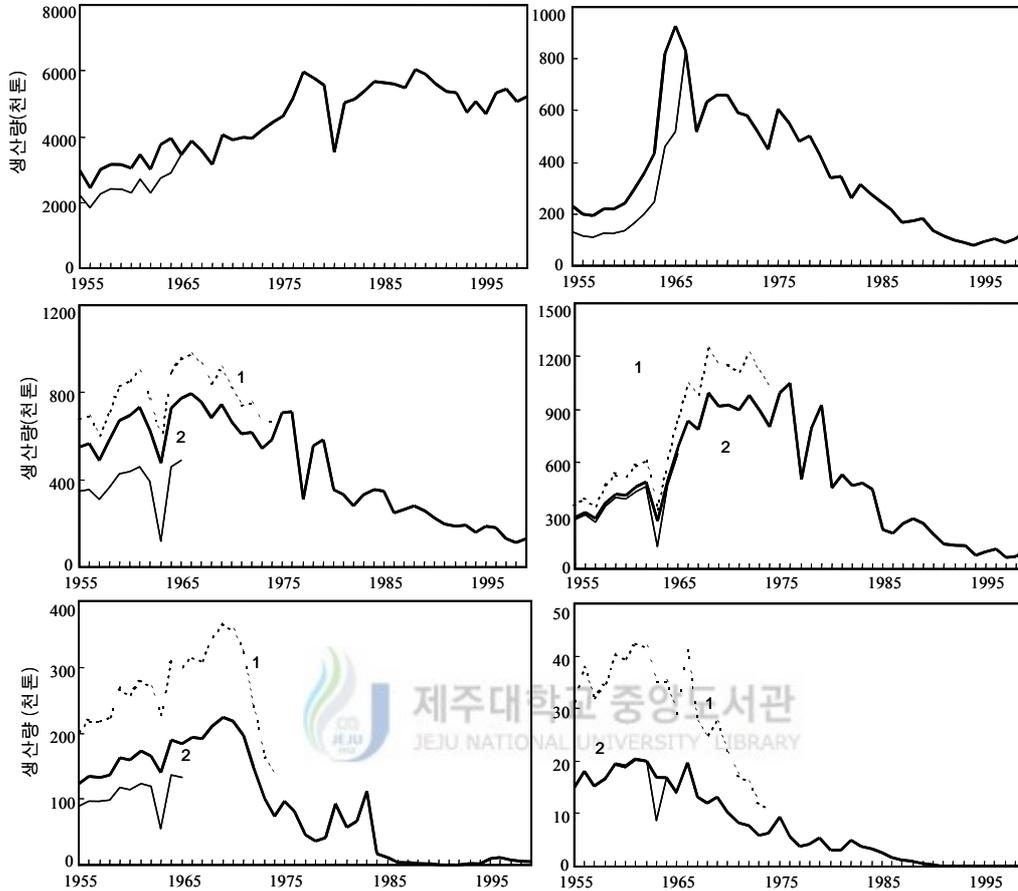
식량작물은 각 품목별 정곡과 조곡의 환산량, 즉 석당 kg의 차이로 생산량 수정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그러나, 연보에는 식량작물에 한해서는 통계조사방법의 변경에 따른 수정작업이 1955년부터 이루어짐으로써 이들에 대한 생산량은 연보에서 발표하고 있는 자료를 그대로 이용하였다.⁷⁾ 이들 품목에 대한 생산량의 변화추이는 <그림 II-1>를 통해 살펴볼 수 있는데, 이 중 쌀과 고구마는 1967년판 연보에서 통계조사방법의 변경에 따른 생산량의 수정이 이루어진 후 1999년까지 그 계열이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논벼생산량이 수정되어 발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벼의 경우 1963년 ‘석’이 ‘톤’으로 생산량의 단위가 조정된 이후 1999년까지 생산량에 수정이 가해지지 않고 있다. 또한, 1955~1962년 생산량은 ‘석’당 144kg으로 환산되고 있다. 겉보리, 쌀보리, 밀, 호밀은 2차에 걸쳐 수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1967년판 연보에서 이들 생산량이 ‘석’에서 ‘톤’으로 단위가 조정된 이후 1975년판 연보까지 그 계열이 유지되며 발표되다가, 1976년판 연보부터 표본조사방법

6) 황수철, 『韓國農業의 産出 投入 및 生産性 推計研究 : 1955~1992年』, 1992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제학과 경제학전공 박사논문, pp23

7) 해당품목은 논벼, 발벼, 고구마, 겉보리, 쌀보리, 밀, 호밀임.

에 의한 통계자료가 1955년부터 수정되어 발표되고 있다.

<그림 II-1> 통계조사방법의 변경에 따른 수정 생산량의 변화



자료 : 농림통계연보, 각년판, 농림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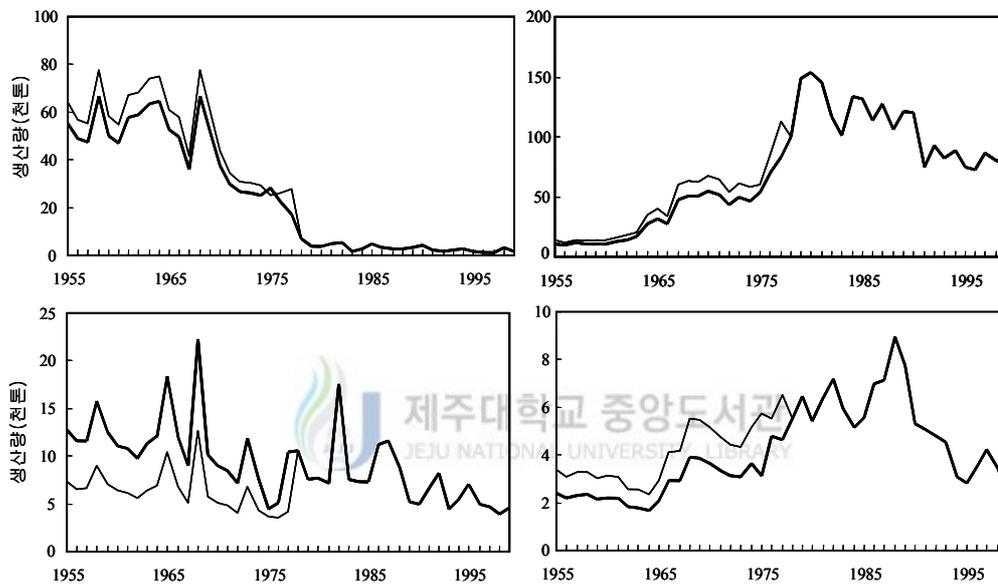
주) 원자료란 생산량을 '석'에서 '톤'으로 단위조정한 것으로 정곡기준임.

- 논벼 : 144kg, 고구마 : 130.2kg, 겉보리·쌀보리 : 141kg, 소맥·호맥 : 100kg
- 소맥과 호맥의 정곡은 소맥분, 호맥분임.
- 기준자료 : 1963년판 농림통계연보

식량작물 중 조, 수수, 옥수수, 메밀, 녹두는 1979년판 연보에서 표본조사방법에 의한 수정자료가 1975년부터 발표되고 있다. 따라서, 이들 품목들은 생산지수 대상 품목으로 이들은 위에서 언급한 첫번째 방법으로 생산량을 추계하였다. 이들의 생

산량 변화추세를 <그림 II-2>를 통해 살필 수 있는데, 수수의 경우는 원자료와 생산량을 추계한 결과가 거의 일치하고 있어 제외시켰다. 조와 메밀의 경우 1958, 1965, 1968, 1982년 생산량이 이상폭등·폭락을 보이고 있지만, 이에 대한 임의적인 수정을 가하지 않았으며 이 시기와 대한 자료를 살펴보면 병충해와 가뭄 등 기상재해로 인한 벼농사는 물론 맥류재배에 피해가 컸기 때문에 이에 따른 대체작물로 생산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II-2> 잡곡 및 두류의 생산량 수정 변화



자료 : 농림통계연보, 각년판, 농림부

감자는 1967년판 연보에서 생산량의 단위변경 및 통계조사방법 변경에 따른 수정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데, 1955~65년 생산량은 수정비율 133.29%로 수정되어 발표되고 있다. 이후 1979년판 연보에서부터 표본조사방법에 의한 자료가 발표되고 있어, 첫번째 방법을 이용하여 생산량을 추계하였으나 수수와 비슷하게 원자료와 추정된 생산량이 거의 큰 격차를 보이지 않았다.

2) 채소류, 과실류 및 특용작물

채소류, 과실류 및 특용작물의 생산량은 1963년판 연보에서 단위조정이 이루어진 후 1979년판 연보에서부터 표본조사방법에 의한 통계자료가 1975년부터 발표되고 있다. 식량작물의 일부 품목의 경우 통계조사방법의 변경에 따라 그 이전 행정조사방법에 의한 자료가 수정되어 발표되고 있는 것에 반해, 이들 품목의 경우에는 1975년을 기준으로 그 이전 행정통계자료와 이후 표본통계자료로 단절되어 발표됨으로써 자료의 단층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품목들의 수정이 불가피하며, 이들 역시 농업생산지수와 1975~77년 평균치를 이용하여 생산량을 수정하였으며 후자의 방법을 이용한 품목은 딸기, 당근, 생강이다.

그러나, 참깨, 유채, 땅콩의 경우 1979년판 연보에서 1차 수정이 이루어진 후 1986년판 연보에서 1982년부터 생산량이 재수정되어 발표되고 있다. 따라서, 이들 품목에 대해서는 생산지수를 우선 구한 후 생산량을 추정하였다. 즉, 1984~86년 생산량의 평균치를 구한 후 각 품목별 생산지수를 산출하고, 1974~76년의 생산지수를 원용하여 1955년까지 이를 거슬러 추계하였다. 이 과정에서 2차 수정된 품목별 생산량은 『1985년산 작물통계』에서 1979년 생산량을 이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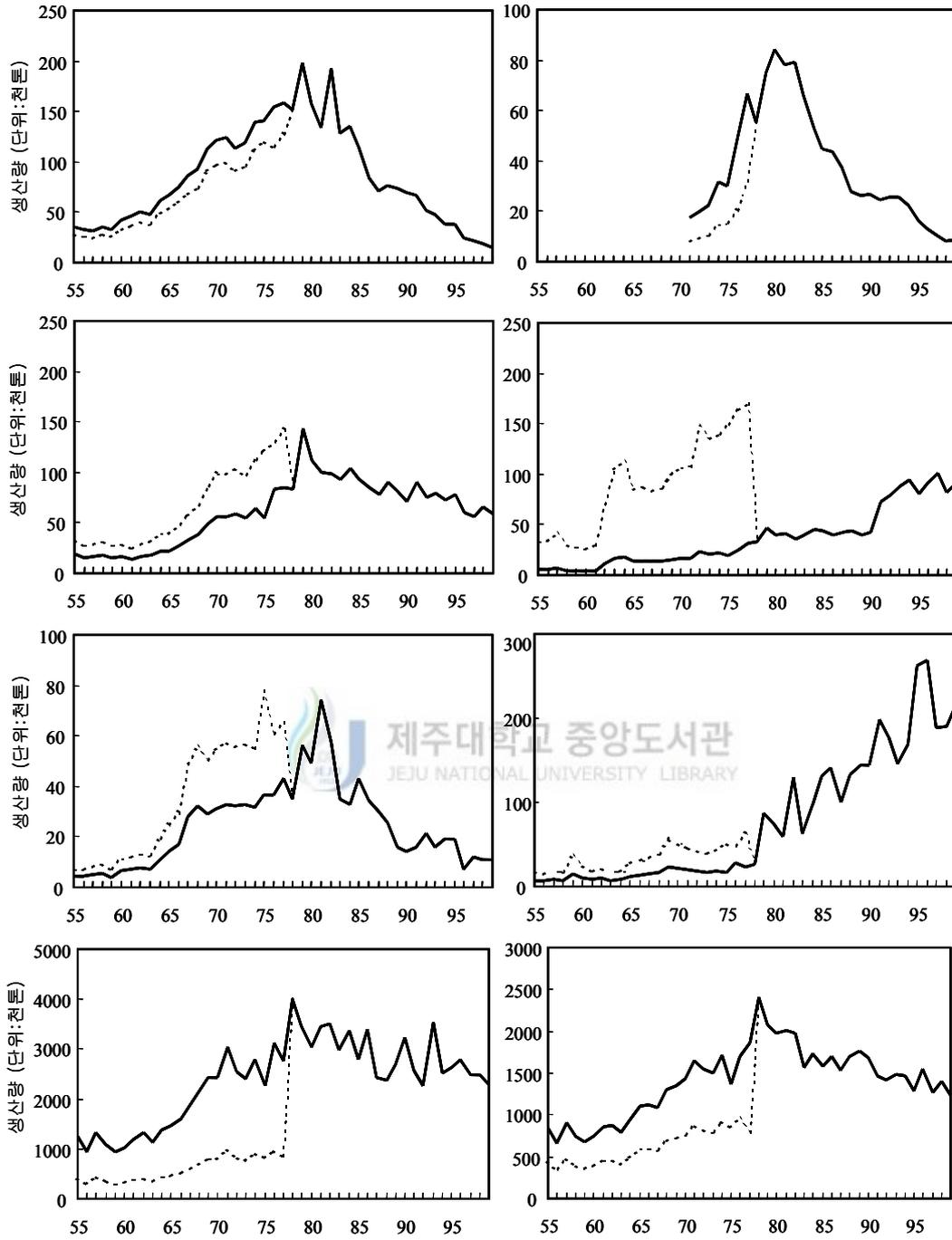
이처럼 채소류, 과실류 및 특용작물은 <그림 II-3>을 통해 원자료와 수정계열 간 차이를 살펴볼 수 있다. 황수철⁸⁾(1996년)은 생산량 추계에 있어 대폭적인 조정이 가해진 것은 10종⁹⁾의 채소류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 살펴본 바로는 이들외에도 더 많은 품목¹⁰⁾에 있어 생산량에 조정이 가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8) 황수철, 『韓國農業의 産出 投入 및 生産性 推計研究 : 1955~1992年』, 1992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제학과 경제학전공 박사논문, pp 66

9) 무, 배추, 양배추, 토마토, 오이, 호박, 파, 양파, 고추, 마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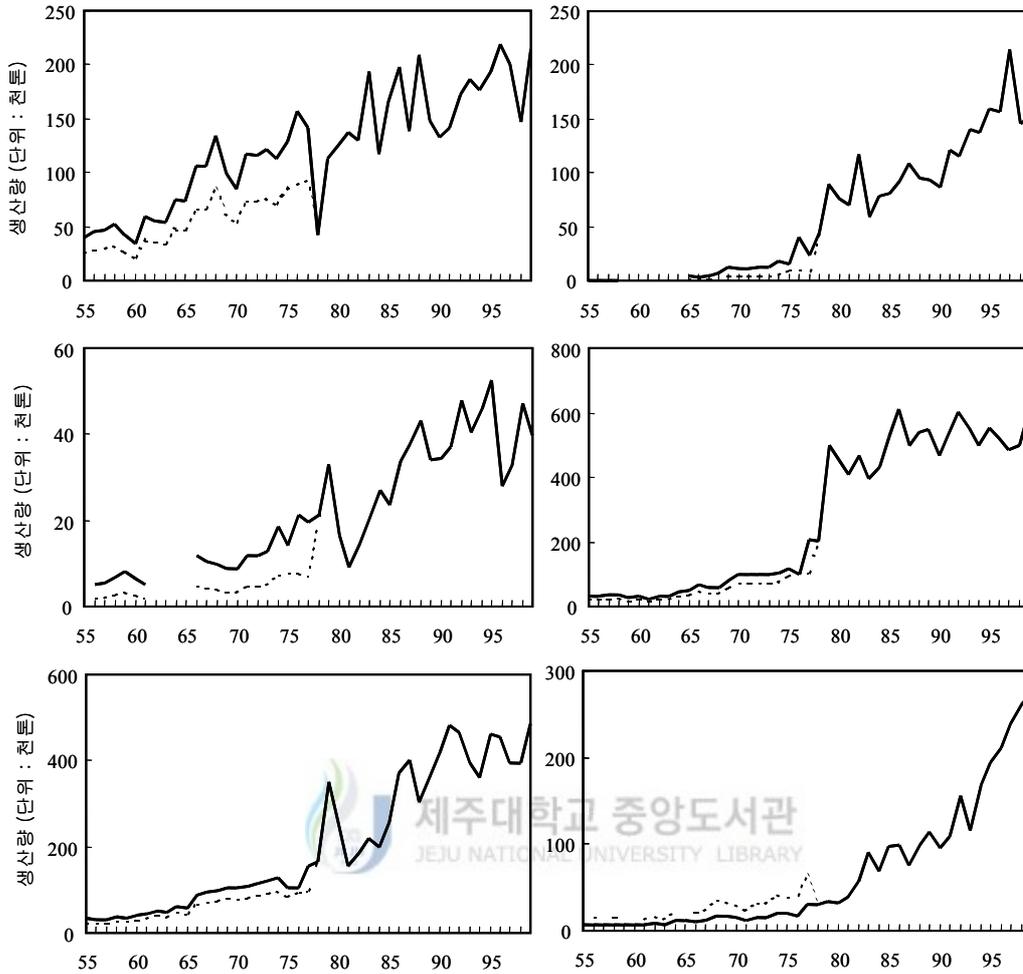
10) 참외, 딸기, 당근, 생강, 감임.

<그림 11-3> 생산량 수정에 따른 변화 추이



자료 : 농림통계연보, 각년판, 농림부

<그림 II-3(계속)> 생산량 수정에 따른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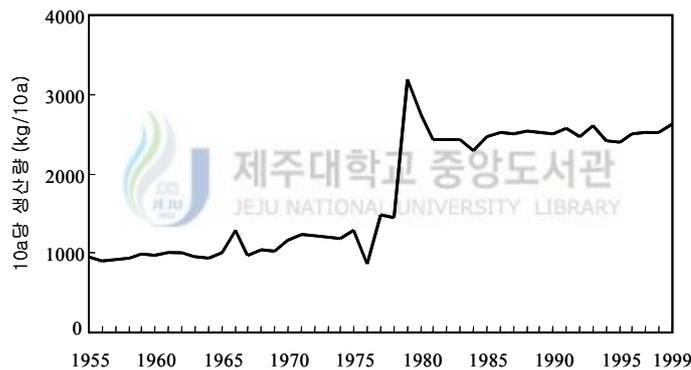


자료 : 농림통계연보, 각년판, 농림부

지금까지 생산량의 추계에 따른 품목별 원자료와 수정계열의 변화추이를 살펴봤다. 이 과정에서 품목별 자료의 단층현상이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로 인해 생산량 통계자료를 이용함에 있어 수정이 불가피 하였다. 그러나, 이런 작업은 지금까지 생산량 수정에 있어 이용한 1979년판 연보의 생산지수처럼 현실화된 추계치를 발표하고 있는 동일 통계연보에서 조차 그에 따른 생산량이 수정되지 않음으로써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자료의 변경에 관한 정보를 알려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통계자료의 정보를 감안하지 않는 현상

을 발견할 수 있었다. 한 예로, 1966년판 연보(p3)에서 ‘1961년 이전은 행정구역 변경전의 조사’라는 언급을 하고 있다. 따라서, 1961년 행정구역 변경이 있는 후에 생산량, 재배면적 변경이 이루어진 배추를 살펴보면, 1961~1963년 사이 생산량과 재배면적이 수정되어 발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산지수 산출에 있어서는 수정되지 않은 자료가 이용되다가, 1979년판 연보에서 비로소 1966년판 연보에서 수정되어 발표된 배추생산량이 이용되고 있었다. 이처럼 통계조사방법의 변경은 물론 조사대상의 변경에 따른 수정자료가 발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생산량 통계자료는 동일 통계연보에서조차 시계열자료의 연속성이 유지되고 있지 않다. 한편, 재배면적의 증가와 신품종 도입, 생산기술의 향상 등 품목별 생산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림 II-4>와 같이 1979년을 경계로 단위당 생산량에서 큰 격차를 보이고 있는 것은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림 II-4> 10a당 생산량의 변화 추이



자료 : 농림통계연보, 각년판, 농림부

따라서, 생산량 통계자료를 사용함에 있어 그에 따른 조사방법 및 조사대상, 그리고 통계자료의 이상현상에 대한 원인등을 감안해야 할 것이며, 통계자료가 이미 정비하여 발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 통계연보에서도 이를 이용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시계열자료의 연속성의 부재는 통계자료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 재배면적

재배면적의 수정은 생산량에 비해 비교적 쉽게 수정할 수 있다. 재배면적은 1973년부터 면적단위가 ‘정보’에서 ‘ha’로 조정되어 발표되고 있는데, 우선 1955년부터 1972년까지의 면적단위를 ‘정보’에서 ‘ha(1정보=0.99174ha)’로 단위조정을 하고, 이후 통계조사방법의 변화에 따라 자료를 수정하였다. 그 수정방법은 생산량 추계에 있어 농림생산지수를 보조자료로 이용한 것과는 달리 재배면적은 행정조사 방법과 표본조사방법에 의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1974~77년 각각의 평균을 구하고 그 차이를 비율로 구하여 이를 1973년 이전 행정조사자료에 곱하였다. 또한 이들의 시도별 재배면적도 시도별 생산량의 추계와 마찬가지로 수정된 전국자료에 원자료의 시도별 비율을 곱하여 수정하였다. 따라서, 여기서는 미곡과 같이 ‘정보’에서 ‘ha’로 면적단위의 조정이 이루어진 후 1999년까지 변함없이 자료가 유지되고 있는 품목들은 제외하도록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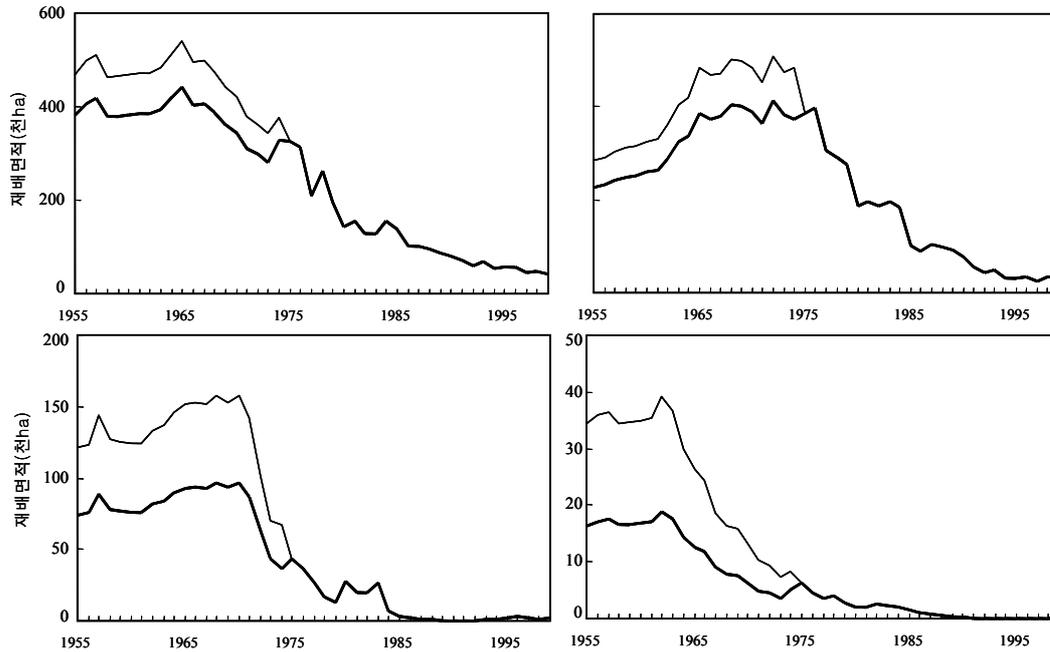
1) 식량작물

식량작물의 재배면적 역시 생산량과 함께 통계조사방법의 변화에 따라 1955년부터 수정된 자료가 발표되고 있으며, 재배면적의 단위조정에 이후 큰 변화를 나타내지 않고 있다. 따라서, 연보상에서 수정되어 발표되고 있는 품목은 겉보리, 쌀보리, 밀, 호밀로 연보의 자료를 그대로 이용하였다. 이들 품목에 대한 재배면적의 원계열과 수정계열의 차이를 <그림 II-5>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감자는 다른 식량작물들과는 달리 1979년판 연보에서 1974년~1977년까지 수정된 자료가 제시되고 있다. 이는 재배면적의 통계조사방법이 1974년부터 행정조사를 표본조사로 대체¹¹⁾되었기 때문이며 1973년 이전자료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였으면, 이를 위해 1974~77년까지 행정조사자료와 표본조사자료의 평균차(差)의 비율¹²⁾로 수정하였으나 두 자료간 큰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았다.

11) 1979년산 작물통계, 농수산부, pp 6

<그림 II-5> 통계조사방법의 변경에 따른 품목별 재배면적 변화 추이



자료 : 농림통계연보, 각년판, 농림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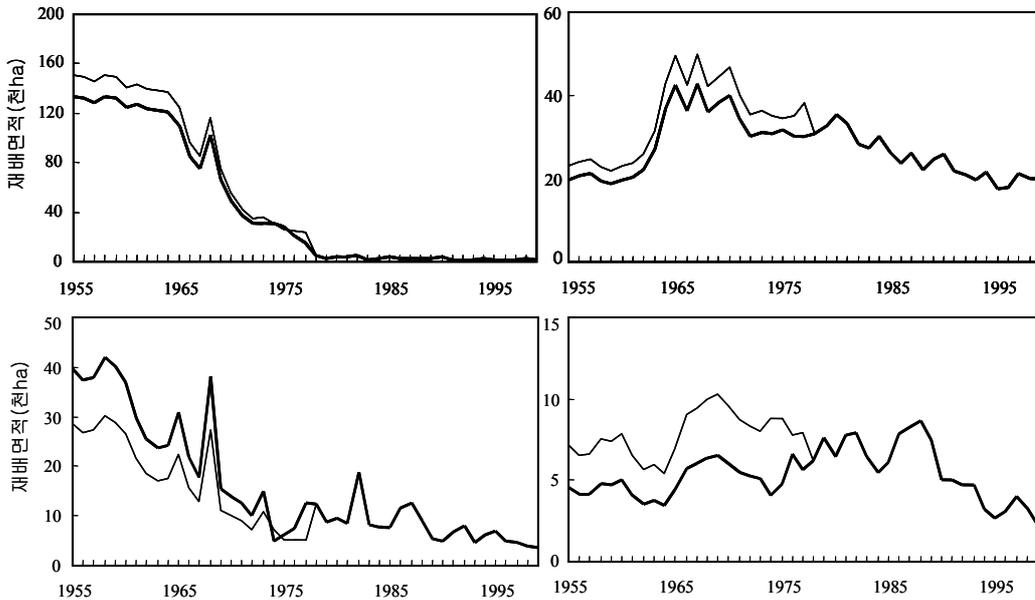
조, 수수¹³⁾, 옥수수, 메밀, 녹두의 재배면적 역시 통계조사방법의 변경에 따라 1979년판 연보부터 수정계열이 발표되고 있다. 따라서, 위에서 언급했던 재배면적의 수정방법으로 이를 수정하였으며, 이에 따른 품목별 재배면적의 변화 추이를 <그림 II-6>을 통해 볼 수 있다.

콩, 팥 재배면적의 조사방법 역시 1974년 행정조사방법에서 표본조사방법으로 변경(1979년산 작물통계, 농수산부, pp 6)되었지만, 농림통계연보에서는 타 식량작물과는 달리 행정조사자료와 표본조사자료가 동시에 제시되고 있지 않아 수정을 가하지 않고 그대로 이용하였다.

12) 감자의 수정비율은 0.969임.

13) 수수 수정비율은 0.964임.

<그림 11-6> 잡곡 및 두류의 재배면적 차이



자료 : 농림통계연보, 각년판, 농림부

식량작물의 재배면적 수정에 있어서는 1955~1972년까지의 면적단위의 조정과 이후 1974년 행정조사방법에서 표본조사방법으로의 변경과 이에 따른 수정에 큰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었다.

2) 채소류, 과실류 및 특용작물

식량작물의 재배면적은 1973년 면적단위가 '정보'에서 'ha'로 바뀌면서 '1정보=0.99174ha'로 조정이 이루어지면서 별 무리가 없었지만, 채소류, 과실류 및 특용작물은 1974년판 연보부터 단위가 변경되어 발표되면서 전국자료의 수정계열이 1964년부터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원자료를 '1정보=0.99174ha'로 단위조정한 자료와 1964년부터 발표되고 있는 자료를 비교해 보면, 후자가 전자에 비해 100.8%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채소류, 과실류 및 특용작물에서 같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또한, 식량작물이 1974년부터 표본조사통계자료가 발표되고 있는 반면 이들 작물들은 생산량과 같이 1975년부터 발표되고 있다. 따라서, 이들 품목에 대해

서는 1차적으로 '1정보=0.99174ha'라는 공식에 의해 면적단위를 조정하고, 그 이후 1차 수정된 1955년~63년 자료에 100.8%의 비율을 곱하여 2차 수정을 하였다. 이후 행정조사자료와 1979년판 연보부터 표본조사방법에 의해 동시에 발표되고 있는 1975~77년 각각의 3개년 평균치에 대한 비율을 구한 후, 1974년 이전의 행정조사 통계에 그 비율을 곱하여 3차 수정을 하였다. 이렇게 해서 구해진 작물별 재배면적의 수정비율은 <표 II-1>과 같다.

<표 II-1> 통계조사방법별 1975~77년 평균재배면적 및 그 수정비율 (단위 : ha, %)

	행정조사 면적 (A)	표본조사 면적 (B)	수정비율 (B/A)		행정조사 면적 (A)	표본조사 면적 (B)	수정비율 (B/A)
채소류				과일류			
수 박	8,529	8,979	105.3	사 과	38,518	37,827	98.2
참 외	8,916	11,132	124.8	배	10,910	10,225	93.7
딸 기	2,645	5,632	212.9	복숭아	10,788	9,739	90.3
오 이	8,683	4,824	55.6	포 도	7,076	7,388	104.4
호 박	11,035	1,719	15.6	감 굴	11,613	9,849	84.8
토마토	3,618	2,045	56.5	감	10,334	4,794	46.4
배 추	67,532	43,618	64.6	특용작물			
시금치	2,920	3,322	113.7	면 화	7,521	6,299	83.7
양배추	2,318	973	42.0	들 깨	15,310	16,998	111.0
무	65,350	42,851	65.6	참 깨	42,278	58,342	138.0
당 근	939	2,570	273.7	땅 콩	6,930	9,253	133.5
고 추	53,750	102,304	190.3	유 채	23,617	26,381	111.7
파	8,737	11,398	130.5				
양 파	5,917	7,109	120.1				
생 강	913	2,252	246.7				
마 늘	17,124	15,676	91.5				

자료 : 농림통계연보, 각년판, 농림수산부

재배면적의 수정에 있어서도 생산량과 같이 다른 품목들에 비해 채소류에 있어 행정조사통계자료와 표본조사통계자료간 상당한 단층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을 수정함에 있어서는 생산량의 추계보다는 쉽게 이루어졌다. 하지만, 이들 역시 생산량 통계자료와 같이 자료의 불연속성 및 자료변경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없었다.

3. 농림업취업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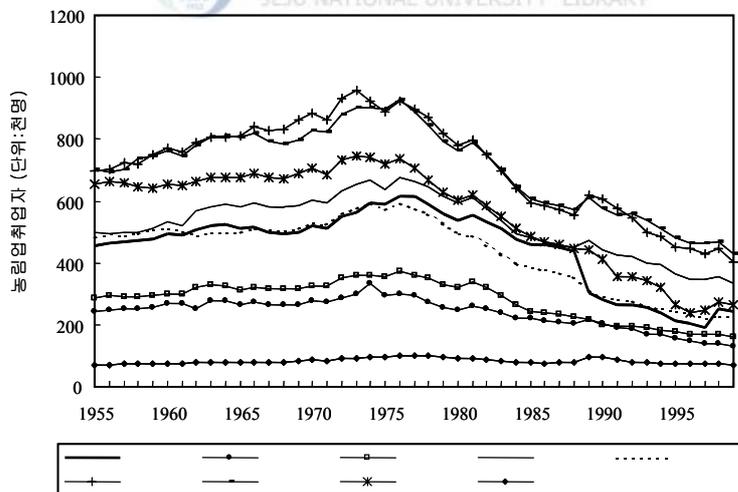
농림업취업자는 1963년 이후 전국자료만이 발표되다가 1989년 이후 농림어업취업자에 대해 시도별로 구분하여 발표하고 있으며, 1997년부터는 농림업취업자의 지역별 자료가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1955년부터의 한국농업산출구조를 살피기 위해서는 1955~62년까지의 전국 농림업취업자는 물론 1955~99년까지 지역별 농림업취업자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1955~62년까지의 전국 농림업취업자를 구하고 이후 지역별 농림업취업자를 추정하도록 한다. 지역별 농림업취업자수의 추정에 있어서 1989년 이후의 통계는 지역별 발표되고 있는 농림어업취업자수를 이용하였고, 이전 자료에 대해서는 농가인구의 지역별 비율을 이용하여 추계하였다. 이 과정에서 1963~99년까지의 전국 농림업취업자수는 통계청홈페이지(<http://www.nso.go.kr>)에서 발췌했으며, 이 자료는 한국표준사업분류 6차 개정(1991년)에 의해 1992년을 기준으로 산업별 취업자가 구분되어 발표되고 있지만 농림업취업자의 경우는 개정 변경에 따른 차이가 없음으로 그대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1955~62년 농림업취업자에 대한 자료를 확보할 수 없으므로 1955년부터 연령별, 시도별로 구분하여 발표하고 있는 농가인구 중에서 1955~67년까지는 15세 이하, 1968년~88년까지는 14세 이하를 제외하고 사용하였다. 그러나, 경제활동인구의 경우 1963~87년까지는 14세 이상, 1988년 이후 1999년까지는 1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농가인구의 연령구분과는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농가인구를 통해 농림업취업자의 지역별 자료를 추정한다는 것이 무리가 따르긴 하지만, 지역별 농림업취업자를 통해 그 변화추세만을 살피는데는 큰 무리가 없으리라 생각된다. 따라서, 농가인구의 연령을 경제활동인구의 연령구분과 동일하게 조정하여 농림업취업자를 추정해야 오류의 범위를 줄일 수 있지만, 여기서는 이에 대한 조정없이 농가인구¹⁴⁾를 추계 과정에 그대로 이용하였다.

14) 여기서는 총 농가인구에서 1955~1968년까지는 15세 이하, 1968~1988년까지는 14세 이하의 농가인구를 제외한 것이며, 이하 논문에서 말하는 농가인구는 이를 말함.

추계에 있어서는 먼저, 농가인구와 농림업취업자수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1963~65년 자료를 기준으로 이들 농림업취업자가 전국 농가인구에 대한 비율을 구한 후 이 비율의 3개년 평균치를 1955~62년 농가인구에 곱하여 농림업취업자를 구하였다. 이때, 농가인구에 대한 농림업취업자의 평균비율은 0.52였으며, 이를 시도별 농가인구에 곱하여 시도별 농림업취업자를 추정하였다. 이후 1963~1988년까지는 각 연도별 전국 농가인구에 대한 농림업취업자의 비율을 구한 후 이 비율을 시도별 농가인구에 곱하여 시도별 농림업취업자를 추정하였다. 그리고, 1989년 이후의 농림업취업자는 농림업취업자의 시도별 비율을 전국 농림업취업자에 곱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농림업취업자의 지역별 비율을 이용하여 산출한 농림업취업자와 2000년 경제활동인구연보에서 1997년부터 발표하고 있는 농림업취업자와 비교했을 때 같은 결과를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1989~99년 지역별 농림업취업자는 같은 해 농림업취업자의 지역별 비율을 이용하여 전국 농림업취업자수를 각 지역별로 분리하였다. 이렇게 해서 산출된 지역별 농림업취업자수의 추이는 <그림 II-7>과 같다.

<그림 II-7> 농림업취업자의 지역별 변화 추이



자료 : 농림통계연보, 각년판, 농림수산부

통계청 홈페이지(www.stat.go.kr),

경제활동인구연보, 1992~2000, 통계청

그러나, 전국 농가인구와 농림업취업자의 비율을 통해 1955~1962년 전국 농림업취업자의 추정 및 1955~1988년까지의 시도별 농림업취업자를 추정함에 있어 농가인구와 경제활동인구로 발표하고 있는 연령대가 다르기 때문에 이를 조정하고, 지역별 농림업취업자와 관련된 자료를 많이 확보할 수 있다면 좀더 정교한 통계자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4. 비료 및 농기계

농업투입요소의 변화를 살피기 위해 비료의 경우 비료 성분별(N, P, K) 소비량을 합하여 이용하였다. 이 때 유영봉¹⁵⁾(1992년)이 집계한 비료투입량을 이용하였으며, 1999년 성분별 소비량은 있어서는 성분별 전국 합계가 맞지 않음으로 인해 2000년 지역통계연보(통계청)를 참고하였다.¹⁶⁾

그리고, 농기계의 경우 작업별 사용농기계가 다양하므로 195~60년대 많이 이용되던 소농기구를 제외한 대형 농기계를 중심으로 그 보유대수¹⁷⁾에 1995년 농가구입가격¹⁸⁾을 곱하여 농기계보유액을 산출하였다.

15) 유영봉, 『韓國農業生産の技術變化に關する實證研究』, 박사학위논문, 동경대학교 대학원, 1992, pp161

16) 요소에 있어서는 전라남도 소비량, 인산은 전국합계, 가리는 충청남도 소비량임.

17) 경운기, 트랙터, 이앙기, 바인더, 콤바인, 주행식분무기, 동력분무기(분무기+살분무기)임.

18) 1999 농림통계연보 pp 265, 바인더 구입가격은 1996 농림통계연보 pp 411.

Ⅲ. 한국농업산출구조의 실태 및 특징

1. 농업의 위치

1960년대 초반 경제개발계획의 실시로 공업부문에 대한 정부의 집중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면서 국내 경제는 어느 나라에서도 경험하지 못한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이 과정에서 비농업부문의 급속한 성장에 따른 산업내 비중변화는 물론 성장률의 차이로 인해 한국농업은 1950년대 이후 여건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하면서 지속적인 성장을 유지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인 낮은 평가를 받고 있다.

경제활동별 산업구성을 <표 III-1>을 통해 살펴보면, 1950년대 52.1%를 국내 산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농림어업은 1970년대 19.9%를 나타내어 20년 상이 32.2%포인트의 비중감소를 나타냈다. 그리고, 1990년대에 들어서는 그 비중감소추세가 지속되어 10%대에 미치는 못하는 6.3%를 나타냈다. 이에 반해, 같은 기간 공업부문은 1950년대 8.5%에서 1970년대 27.8%로 19.3%포인트의 비중증가를 나타냈으며, 1990년대에는 33.5%로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 더불어 서비스업부문 역시 지속적인 비중증가 추세를 보여 1990년대에는 60.2%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산업별 비중변화와 더불어 이들의 변화추세를 살펴보면, 산업별 국내총생산은 전 기간에 걸쳐 8.3%로 높은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다. 산업별 성장률을 보면, 농림어업은 1970년대 4.1%로 높은 성장률을 보인 이후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1.8%, 1990년대는 1.5%로 그 성장률이 점차 둔화되고 있다. 공업부문과 서비스업 부문 역시 1970년대 17.6%, 11.2%로 전 기간 중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인 이후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7%대로 성장률이 저하되었으나 여전히 5%대 이상의 높은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다. 이들 산업별 변화추세를 보면, 각 부문별 성장률은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지만, 이들 모두 전 기간 중 1970년대에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또한, 산업별 성장변화를 보면, 공업부문이 전 부문에 걸쳐 12.1%로 가장 높은 나타나고 있으며, 1950년대 이후 40년간 45.8%포인트로 큰 폭의 비중감소를 나타낸 농림어업부문 역시 2.8%의 성장률을 나타냈다.

<표 III-1> 경제활동별 국내총생산의 구성비(1995년 불변가격) (단위:%)

	전 산업	산업별		
		농림어업	공업	서비스업
1957/59	100.0	52.1	8.5	39.4
1967/69	100.0	36.2	14.9	48.9
1977/79	100.0	19.9	27.8	52.3
1987/89	100.0	10.7	33.3	56.0
1997/99	100.0	6.3	33.5	60.2
연평균성장률				
1957/59~67/69	7.6	3.8	13.8	10.0
1967/69~77/79	10.5	4.1	17.6	11.2
1977/79~87/89	8.3	1.8	10.3	9.1
1987/89~97/99	7.0	1.5	7.0	7.7
1957/59~97/99	8.3	2.8	12.1	9.5

자료 : 통계청 홈페이지(<http://www.stat.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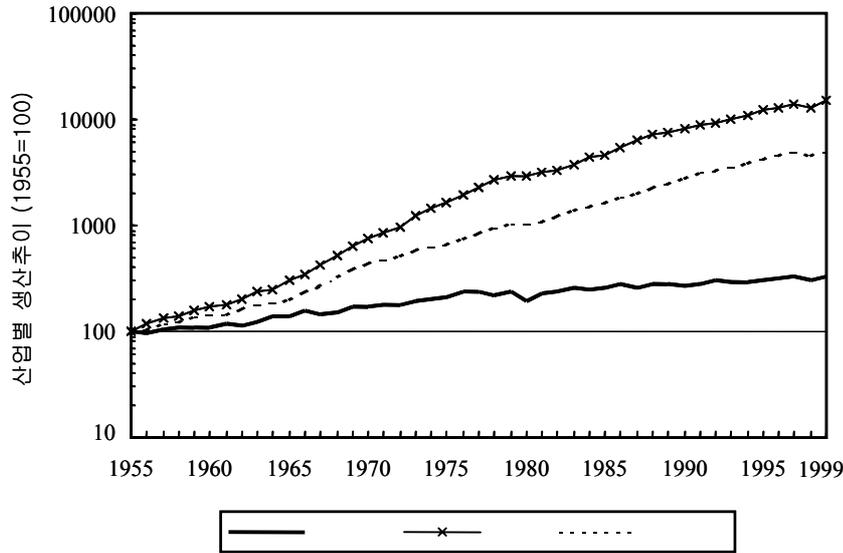
한국통계연감,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1977

국민소득연보 1953~67, 한국은행, 1968

주) 국내총생산은 3개년 평균치이며, 1970년 이전은 1995년 불변가격으로 추계한 것임.

산업별 생산변화를 <그림 III-1>을 통해 좀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 <표 III-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 기간에 걸쳐 국내 경제에 있어 가장 높은 성장률을 나타냈던 공업부문이 가장 큰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비해 1950년대 국내 경제에서 50%이상을 차지하던 농림어업은 1999년까지 지속적인 성장추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비농업부문의 생산이 큰 폭의 변화를 보임으로써 상대적으로 농림어업 생산이 침체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다.

<그림 III-1> 산업별 생산변화 추이(95년 기준가격, 1955=100)



자료 : <표 III-1>과 동일

주) semi-log scale

이처럼 경제발전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산업별 생산구조의 변화와 더불어 이들의 산업별 취업자의 추이를 <표 III-2>를 통해 살펴보면, 1960년대 취업자 중 52.8%를 차지하던 농림어업부문이 1990년대에는 11.8%로 30년 사이에 41%포인트의 비중감소를 나타냈다. 같은 기간 공업부문은 13.7%에서 20.3%로 6.6%포인트의 비중증가를 보이고 있다. 서비스업 역시 1960년대 이후 지속적인 비중의 증가추세를 나타내어 같은 기간 34.5%포인트 증가하였다. 이러한 산업별 취업자의 변화를 살펴보면, 농림어업부문은 취업자의 비중감소와 더불어 이들의 성장률 역시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3.73%로 성장률 감소를 나타내고 있다. 이런 감소추세는 지속되어 1990년대에는 3.68%의 (-) 성장을 보이고 있다. 이와는 달리 공업과 서비스업부문은 1980년대까지 증가추세를 나타내다가 1990년대 접어들면서 공업부문의 취업자 변화가 1.43%로 (-)성장을 나타내고 있다. 전 기간에 걸쳐 농림어업부문 취업자가 가장 크게 감소하고 있다.

<표 III-2> 산업별 취업자 변화 추이

	전 산업	산업별		
		농림어업	공업	서비스업
산업별 취업자수(천명)				
1967/69	8,990	4,749	1,230	3,011
1977/79	13,275	5,121	3,056	5,099
1987/89	16,928	3,500	4,794	8,634
1997/99	20,460	2,405	4,151	13,905
산업별 구성비(%)				
1967/69	100.0	52.8	13.7	33.5
1977/79	100.0	38.6	23.0	38.4
1987/89	100.0	20.7	28.3	51.0
1997/99	100.0	11.8	20.3	68.0
연평균 성장률(%)				
1967/69~1977/79	3.97	0.76	9.53	5.41
1977/79~1987/89	2.46	-3.73	4.61	5.41
1987/89~1997/99	1.91	-3.68	-1.43	4.88
1967/69~1997/99	2.78	-2.24	4.14	5.23

자료 : 통계청 홈페이지(<http://www.stat.go.kr>)

주) 취업자는 3개년 평균치임.

지금까지 경제발전 에 따른 산업별 생산비중 및 취업자의 변화를 살펴봤는데, 비농업부문의 변화에 비해 농림어업부문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취업자가 1980년대 이후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으며, 전 기간에 걸쳐 2.24%의 (-)성장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생산은 2%대 이상의 성장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산업별 비중의 변화를 살펴보면, <표 III-1>에서 1960년대 서비스업부문이 농림어업부문의 생산을 상회하고 있는 반면, 취업자의 경우 1980년대에 접어들어서야 비농업부문이 농림어업부문을 대체하고 있다. 이처럼 생산에 대한 산업별 대체 및 취업자의 구조변화에 대해 이정환¹⁹⁾(1997)은 생산변환 이후 고용구조의 변화는 각각 13년, 12년 늦게 나타난다고 밝히고 있는 것과는 달리 여기서는 11년과 9년으로 그 시기가 더욱 짧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변화가 어느 정도가 걸리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산업별 생산변화에 기인하여 취업구조가 변화하고 있음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19) 이정환, 「농업의 구조전환 그 시작과 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7

2. 한국농업산출구조의 실태

국내 경제가 1960년대 초반 이후 급속한 공업부문의 성장에 힘입어 경제발전이 이루어지는 동안 농림어업부문은 국내 생산에 있어 비중감소는 물론 취업자가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농림어업부문의 비중감소에도 불구하고 한국농업 자체만을 살펴봤을 때 1950년대 이후 지속적인 성장을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이처럼 국내 경제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한국농업생산은 과연 시기별로 어떤 형태를 띄며 변화되고 있으며, 그 변화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

따라서, 여기서는 한국농업생산이 어떻게 변화해 왔으며, 농업산출에 있어서 품목별 구성변화는 어떠한지, 더 나아가 각 품목들이 한국농업생산의 성장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를 살펴 보기로 하겠다.

1) 농업총생산액의 추계

한국농업생산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우선 II장에서 수정한 품목별 생산량에 1994~96년 평균가격을 곱하여 농업총생산액을 산출하였다. 이때 품목별 가격자료는 농림어업생산액을 각 해당연도의 생산량으로 나누어 구하였다. 농업생산액 추계에 있어 채소류의 시설재배 품목도 포함시켰는데, 현재 연보에서는 시설재배품목의 생산량을 발표하고 있지 않아서 연보와 같은 재배면적을 발표하고 있는 「작물통계」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이로 인해 II장에서 생산량 수정이 이루어진 품목들 중에서 가격자료를 얻을 수 있는 식량작물 11종, 채소류 17종, 과실류 6종, 특용작물 4종을 선택하여 경종부문 총 38품목을 생산액 추계에 이용하였다. 그리고 축산부문생산액 추계를 위해서 먼저 농림어업생산액 중 가축 생산액을 해당연도 사육두수로 나눈 1994~96년 마리당 평균생산가격을 이용하였다. 이는 현재 농림통계연보에서는 축산물의 생산량 대신 사육두수가 발표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연보에서는 축산물 생산량이 우유외에는 발표하고 있지 않아서 이들에 대한 생산액을 구

할 수 없었다. 따라서, 우선 1978년 이후부터 발표하고 있는 우유생산량의 1964~66년 생산지수를 1979~81년 생산지수 계열로 수정하여 1978년 이전 생산량을 추정하였다. 그리고, 전국 젓소의 마리당 우유생산량을 구하고, 이를 시도별 젓소 사육두수에 곱하여 각 시도별 우유생산량을 추정하였다. 또한, 계란과 오리알은 품목별 농림업생산액을 닭과 오리 사육두수로 나누어 마리당 평균생산가격을, 벌꿀은 통당 평균생산가격을 이용하였다. 따라서, 축산부문 생산액 추계를 위해서는 가축 7품목, 축산물 4품목으로 총 11품목을 이용하였다. 이처럼 농업총생산액 추계에 이용한 세부품목들은 총 49품목으로 <표 III-3>과 같다.

<표 III-3> 농업총생산액 추계 대상품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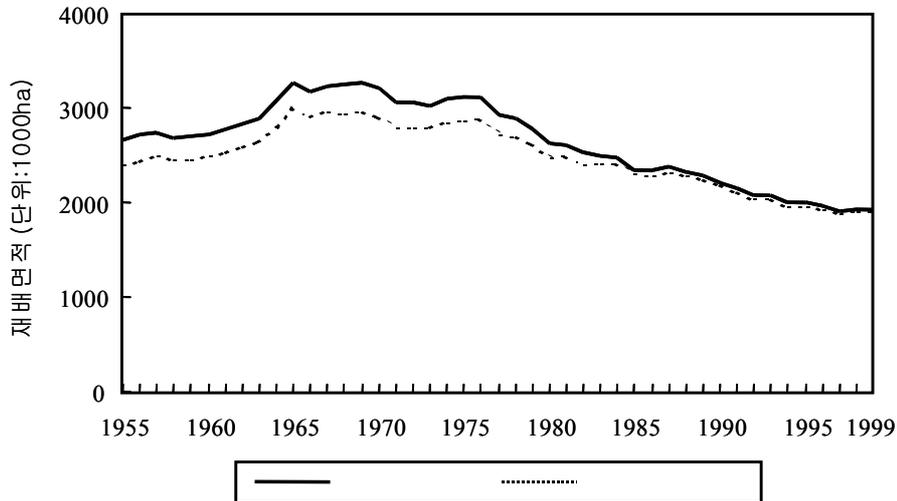
구 분		대 상 품 목	품목수
식량작물	미곡류	쌀(논벼+밭벼)	11품목
	맥류	보리(맥주보리 포함), 쌀보리	
	잡곡	조, 옥수수, 메밀	
	두류	콩, 팥, 녹두	
서류	감자, 고구마		
채소류	과채류	수박*, 참외*, 딸기*, 오이*, 호박*, 토마토*	17품목
	엽채류	배추*, 시금치*, 상추*, 양배추	
	근채류	무*, 당근	
	조미채소	고추*, 파, 양파, 생강, 마늘	
과실류	사과, 배, 복숭아, 포도, 감귤, 감	6품목	
특용작물	참깨, 들깨, 땅콩, 유채	4품목	
축산부문	한육우, 젓소, 돼지, 산양, 토끼, 닭, 오리, 우유, 계란, 오리알, 벌꿀	11품목	
총 계	49 품목		

주) *는 시설재배도 포함함.

여기서, 경중부문생산액 추계 대상품목들의 재배면적 변화 추이를 <그림 III-2>를 통해 살펴보면, 1955년 2,396ha로 총 재배면적의 90%의 비중을 차지한다. 이후 1980년에는 2,472ha로 총 재배면적의 94%, 1999년에는 1,903ha로 총 재배면적 1,932ha의 98%를 차지하고 있어 여기서 선정된 품목들이 한국농업생산의 경중부

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증가하고 있고, 전체 경종작물의 대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그림 III-2> 경종부문 생산액 추계품목의 재배면적 추이



자료 : 농림통계연보, 각년판, 농림부

주) 총 재배면적은 기타수원지, 기타작물(묘상, 사료작물, 기타(노지+시설)), 약용작물을 제외한 면적임.

2) 한국농업산출의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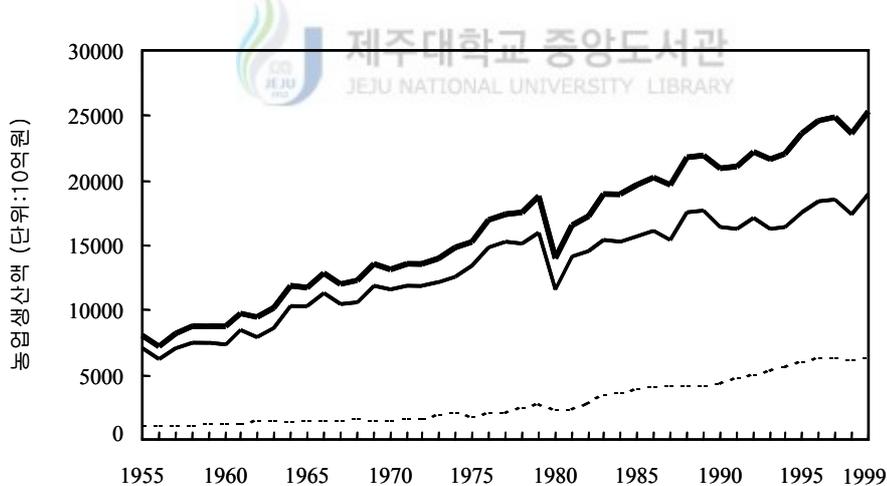
앞절에서 추계한 농업총생산액을 통해 과연 한국농업산출은 과연 어떤 형태를 띄며 변화하고 있으며, 각 부문별 생산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한다.

한국농업총생산액의 변화 추이를 <그림 III-3>에서 보면, 앞에서 한국농업생산은 1950년대 이후 40%포인트 이상의 큰 폭의 비중감소를 나타냈지만 1950년대 이후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생산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부문별 농업생산을 살펴보면, 한국농업은 1950년대 이후 경종중심의 생산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1970년대 후반까지 급속한 증가추세를 나타내던 경종부문 농업생산이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성장둔화를 보이고 있는 반면, 축산부문 농업생산은 이와는 달리 큰 폭의 증가를 나타내고 있다. 이처럼, 1970년대 후반까지

급속한 생산의 증가를 나타냈던 경종부문의 농업생산은 1980년 병충해 피해와 냉해²⁰⁾로 인한 흉작으로 전년대비 36.2%의 미곡생산량 감소는 물론 대부분의 품목들에 있어 생산량이 급락하였다. 그러나, 1981년 이후 경종부문 생산이 회복되어 1999년까지 꾸준히 생산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1987년 10차례에 걸친 큰 수해(水害)와 1990년대 농산물 수입자유화 품목의 확대, 1997년 후반 외환위기에 따른 IMF관리체제 이후 농자재가격상승과 경기침체에 따른 국내 소비감소 등의 여파로 농업생산이 일시적 감소현상을 나타냈다.

이에 비해 축산부문의 농업생산을 보면 1955년 이후 최근까지 지속적인 생산증가를 보이고 있지만, 1970년대까지도 한국농업생산에 있어 그리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았다. 그러나, 자연재해에 따른 경종부문 농업생산이 1980년 크게 감소한 후 그 성장이 차츰 둔화된 반면 축산부문 농업생산은 큰 폭의 생산증가를 나타냈으며 그 추세는 최근까지 유지되고 있다. 또한, 농업생산에 있어 축산부문의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그림 III-3> 농업생산의 부문별 변화 추이(1994~96년 평균가격)



자료 : <부표 14>

이러한 한국농업생산에 있어 부문별 생산변화를 <표 III-4>에서 확연히 살필 수

20) 한국농촌경제연구원, 韓國農政四十年史(上), 1989, pp.525

있다. 1950년대 농업총생산에서 85.8%를 차지했던 경종부문은 1970년대 86.2%까지 증가한 후, 1990년대 74.3%로 40년 사이에 11.5%포인트의 비중감소를 나타냈지만 여전히 한국농업생산에 있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농업생산의 부문별 비중변화와 더불어 이들의 부문별 연평균성장률을 살펴보면, 1980년대 이전 경종부문 성장률이 3.83%, 축산부문이 3.68%를 나타냄으로써 한국농업총생산의 성장률이 3.81%로 높은 성장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1980~90년대에 들어서면서, 경종부문 생산은 0.86%의 성장둔화를 나타낸 반면 축산부문은 4.83%로 지속적인 성장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처럼, 1980년대 이후 경종부문의 성장둔화에도 불구하고 한국농업총생산에 있어 1.61%의 성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축산부문의 높은 성장률에 기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농업총생산은 경종부문과 축산부문이 시기별 생산주도의 변화를 경험하면서 지속적인 성장을 유지하여 왔음을 알 수 있다.

<표 III-4> 한국농업생산의 부문별 변화 추이

	농업총생산	경종부문	축산부문
농업생산액(10억원)			
1955/57	7,867	6,751	1,117
1977/79	17,906	15,435	2,471
1997/99	24,658	18,311	6,348
부문별 구성비(%)			
1955/57	100.0	85.8	14.2
1977//79	100.0	86.2	13.8
1997/99	100.0	74.3	25.7
연평균성장률 (%)			
1955/57 ~ 1977/79	3.81	3.83	3.68
1977/79 ~ 1997/99	1.61	0.86	4.83
1955/57 ~ 1997/99	2.76	2.40	4.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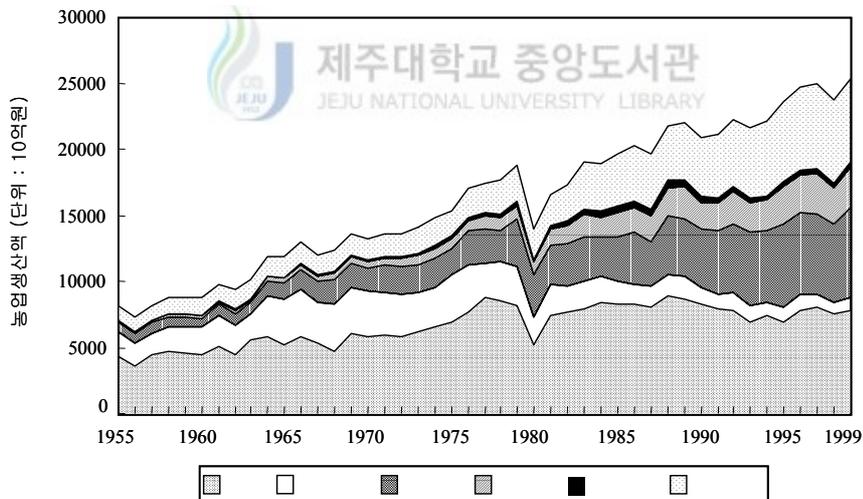
자료 : <부표 14>

주) 농업생산액은 3개년 평균임.

한국농업총생산의 품목별 생산구성변화를 살펴보면, <그림 III-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곡으로 이용하는 미곡생산이 전 기간에 걸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미곡이외의 곡류생산은 1960~70년대 크게 증가하였으나 1980년 이후 그 비중이 급속히 감소하였다. 이는 1970년대 중반 이후 다수확 벼 품종의 재배 확대를 통해 쌀 자급이 이루어지면서 대체작물로 재배가 이루어지던 기타곡류의 생산이 급격히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이와는 달리 채소류와 과실류 생산은 1980년대 접어들면서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채소류의 경우 1990년대 생산비중이 더욱 커지고 있다. 특용작물의 경우 타작물과는 달리 농산물시장의 변화에 따라 그 생산이 크게 좌우됨으로써 재배품목은 많지만 1955년 이후 지속적인 생산이 이루어지는 것은 그리 많지 않으며, 이들이 한국농업총생산액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다. 한편, <표 III-4>에서 살펴본 것처럼 한국농업총생산액에 있어 축산부문은 1980년대 이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지만, 지속적인 생산증가가 이루어지면서 1980년대 이후 미곡과 채소류와 더불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림 III-4> 유형별 농업생산의 구성 변화



자료 : <부표 1>

지금까지 한국농업총생산을 통해 부문별 생산변화와 품목별 생산구성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한국농업생산은 경종부문 위주의 생산활동이 이루어지

고 있으며, 시기별로 농업생산을 주도하는 부문이 변화하면서 지속적인 성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1980년대 이전은 미곡과 함께 기타곡류의 생산이 한국농업생산을 주도한 반면 그 이후에는 축산 및 과채류 중심으로 생산변화가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농업투입요소의 변화

지금까지 한국농업총생산의 변화를 통한 각 부문별 생산의 변화 및 품목별 생산구성의 변화를 살펴봤다. 이는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농업은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감소와 함께 비농업부문에 비해 성장저하를 나타내고 있지만, 한국농업생산은 1955년 이후 부문별 생산주도의 변화를 겪으면서 지속적인 성장을 유지하고 있었고 이에 따른 품목별 생산구성 역시 시기에 따라 변화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처럼, 한국농업생산이 변화하는 과정에서 농업투입요소들은 과연 어떤 형태를 띠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산업별 생산변화와 더불어 농림어업취업자에 있어 (-) 성장을 나타냈던 농업노동력에 대해 <표 III-5>를 살펴보면, 1960년대까지 농가호수는 물론 농가인구, 농림업취업자는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1970년대에 접어들면서 농림업취업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감소하고 있으며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 그 감소추세는 더욱 커지고 있다. 농가호수와 농가인구는 1970년대 1.41%, 3.10%로 (-) 성장을 보이며, 1990년대는 들어서서는 -2.53%, -4.99%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호당 농가인구도 점차 감소하여 1950년대 6명에서 1990년대 3명으로 연평균 1.68%의 (-) 성장을 보였다. 이와는 달리 농림업취업자는 1970년대까지만 해도 487.2만명으로 1950년대 411.9만명보다 연평균 0.8%의 성장률을 나타냈다. 그러나,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연평균 -3.72%로 급격한 성장감소를 나타낸 이후 1990년대에도 3.60%로 (-) 성장이 지속되고 있다.

<표 III-5> 농업노동력의 변화

	농가호수 (천호)	농가인구 (천명)	농림업취업자 (천명, %)	호당 농가인구 (명/호)
1957/59	2,210	13,446	4,119	6.1
1967/69	2,571	15,858	4,561	6.2
1977/79	2,230	11,573	4,872	5.2
1987/89	1,823	7,276	3,337	4.0
1997/99	1,411	4,359	2,313	3.1
연평균성장률(%)				
1957/59~1967/69	1.52	1.66	1.03	0.14
1967/69~1977/79	-1.41	-3.10	0.66	-1.72
1977/79~1987/89	-1.99	-4.53	-3.72	-2.59
1987/89~1997/99	-2.53	-4.99	-3.60	-2.53
1957/59~1997/99	-1.11	-2.78	-1.43	-1.68

자료 : <부표 5>, <부표 6>

농림통계연보, 각년판, 농림부

이처럼, 1970년대 이후 농가수, 농가인구 및 농림업취업자가 크게 감소하는 현상은 이 시기 공업부문이 국내 경제에서 차지하는 생산의 비중증가와 더불어 급속한 성장으로 노동수요가 증가하였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1970년대 이후 농업노동력의 감소추세와 함께 경지면적에 있어서도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표 III-6>에서 보면, 1950년대 199.5만ha에서 1960년대 231.4만ha로 연평균 1.49%의 성장률을 나타냈으나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0.41%로 (-)성장을 나타내어 1990년대까지 감소추세가 이어졌다. 그러나, 경지면적의 논, 밭면적을 살펴보면 서로 다른 변화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논면적의 경우 1980년대까지 소폭이지만 지속적인 면적증가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그 추세는 반전되어 연평균성장률이 1.56%로 (-)성장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반해, 밭면적의 경우 1960년대 2.45%의 높은 연평균성장률을 나타낸 반면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1.18%의 (-)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으며 1990년대에 들어서도 그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경지이용면적 역시 경지면적의 변화추세와 동일한 형태를 띄고 있으나, 이들의 변화가 보다 큰 폭으로 나타남으로써 경지이용률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

1960년대 경지이용면적은 연평균 1.84%의 성장률을 나타냈고, 이때 경지이용률은 140%로 가장 높았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 이들의 (-) 성장을 나타내어 1980년대는 2.02%, 1990년대에는 1.89%의 성장률 저하추세를 보였다. 경지이용률을 살펴보면 1960년대 140%에서 1990년대에는 101%로 30년 사이 39%포인트 감소하였다. 이러한 경지면적의 감소와 이보다 더 큰 폭으로 감소한 농가인구로 인해 호당 경지면적은 1970년대 이후 점차 확대되고 있다. 1960년대 호당 경지면적이 0.90ha로 1ha에도 미치지 못하였지만, 1990년대에는 1.35ha로 경영규모가 확대되었다. 또한, 농림업취업자 1인당 경지면적도 1950년대 0.48ha에서 1990년대는 0.83ha로 연평균 1.35%의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다.

<표 III-6> 경지면적의 변화 추이

	경지면적(천ha)			경지이용 면적(천ha)	호당 경지 면적(ha/호)	토지/노동비율 (ha/인)
	합 계	논	밭			
1957/59	1,995	1,190	805	2,708 (136)	0.90	0.48
1967/69	2,314	1,288	1,026	3,248 (140)	0.90	0.51
1977/79	2,220	1,309	911	2,858 (129)	1.00	0.46
1987/89	2,136	1,354	782	2,330 (109)	1.17	0.64
1997/99	1,911	1,158	753	1,925 (101)	1.35	0.83
연평균성장률(%)						
1957/59~1967/69	1.49	0.79	2.45	1.84	-0.03	0.46
1967/69~1977/79	-0.41	0.16	-1.18	-1.27	1.01	-1.05
1977/79~1987/89	-0.39	0.34	-1.52	-2.02	1.64	3.45
1987/89~1997/99	-1.11	-1.56	-0.37	-1.89	1.46	2.59
1957/59~1997/99	-0.11	-0.07	-0.17	-0.85	1.02	1.35

자료 : <부표 3>, <부표 4>, <부표 12>

주) 1. 3개년 평균치임.

2. ()는 경지이용률을 나타내며, 단위는 %임.

3. 토지/노동비율의 토지는 경지면적을 나타내며, 노동은 농림업취업자임.

비료소비량과 농기계보유액에 있어서는 위에서 살펴본 경지면적 및 농가인구의 변화추세와는 확연히 다른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표 III-7>에서 보면, 비료소비량은 1950년대 20.8만톤에서 1960년대 50.0만톤으로 2.4배 증가하였고 이 기간 연

평균 9.2%의 높은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비료소비량의 증가추세는 1970년대까지 지속되다가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그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970년대까지 5%이상의 높은 성장률을 보였던 비료소비량은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성장을 보이고 있다. ha당 비료소비량을 보면 1950년대 77kg에서 1990년대 409kg으로 40년 사이 5.3배 증가하고 있어, 전체 비료소비량의 감소추세에 비해 단위면적 당 비료소비량은 195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농기계보유액의 경우 1950년대 이후 다른 농업투입요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폭의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다. 1960년대 연평균 65.1%의 놀랄만한 성장을 나타낸 이후 그 증가추세는 점차 둔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1990년대까지도 8%대 이상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이와 더불어 농림업취업자 1인당 농기계 보유액도 전기간 연평균 33.2%의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으며 각 시기별 10%이상의 높은 증가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

<표 III-7> 비료 및 농기계보유액의 변화

	비료소비량 (천톤)	농기계보유액 (억원)	재배면적 당 비료소비량 (kg/ha)	1인당 농기계 보유액(천원/인)
1957/59	208	0.6	77	0.01
1967/69	500	93	154	2
1977/79	822	2,613	288	54
1987/89	853	14,037	366	421
1997/99	788	32,941	409	1,425
연평균성장률(%)				
1957/59~1967/69	9.2	65.1	7.2	63.5
1967/69~1977/79	5.1	39.5	6.5	38.8
1977/79~1987/89	0.4	18.3	2.4	22.8
1987/89~1997/99	-0.8	8.9	1.1	13.0
1957/59~1997/99	3.4	31.3	4.3	33.2

자료 : <부표 7>, <부표 8>, <부표 13>

- 주) 1. 비료소비량은 유기질비료를 제외한 것으로, 비료성분량(N, P, K)을 합한 것임.
 2. 농기계보유액은 경운기, 트랙터, 이앙기, 바인더, 콤바인, 주행식분무기, 동력분무기(분무기+살분무기) 보유대수를 기준으로 1995년 농가구입가격(1999 농림통계연보 p265, 바인더-1996 농림통계연보 p411)을 이에 적용하여 집계하였음.
 3. 1인당 농기계보유액은 농림업취업자 1인당 농기계보유액을 말함.

지금까지 농업투입요소에 대한 변화양상을 살펴봤다. 농업노동력과 경지면적은 1960년대 소폭의 증가를 나타낸 이후 1970년대 이후 (-) 성장이 1990년대까지 지속되고 있다. 이는 1970년대 공업부문의 급속한 생산의 증가와 이에 따른 노동수요가 급증함에 따른 농업노동력의 유출이 크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경지면적의 경우 그 이용에 있어 논면적은 1980년대까지 증가추세를 나타냈으나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 급격한 감소를 보이고 있다. 이는 앞에서 한국농업생산의 품목별 생산구성을 살펴봤을 때 1990년대 들어오면서 미곡생산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과 연관성을 갖게 된다. 한편, 비료소비량과 농기계보유액의 변화에 있어 다른 투입요소와는 달리 큰 폭의 증가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호당 경지면적이 1ha에도 미치지 않는 소규모 경영면적하에서 토지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비료의 다량투입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1970년대 이후 농업노동력의 대거 유출에 따른 노동력의 대체는 물론 정부차원에서 농업기계화 사업의 추진에 따른 농기계구입자금이 보조되면서 다른 농업투입요소의 변화와는 달리 급속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4. 한국농업산출구조의 특징

1960년대 이후 국내경제가 공업부문의 성장에 힘입어 짧은 기간에 놀랄만한 발전을 이루었다. 이 과정에서 산업별 생산은 물론 취업자에 있어 큰 비중을 차지하던 한국농업은 비농업부문의 급속한 성장에 의해 상대적인 비중감소 및 성장저하를 나타냈다. 그러나, 한국농업생산을 살펴 봤을 때 1950년대 이후 부문별 생산의 증가 뿐만 아니라 시기별 성장률의 변화를 나타내면서도 지속적인 농업생산의 성장을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농업투입요소의 다양한 변화양상을 살필 수 있었다.

이처럼 한국농업산출구조를 살피는 과정에서 부문별 농업생산의 시기별, 품목별 생산변화가 서로 다른 형태를 띄고 있었다. 따라서, 한국농업산출구조의 실태를 시

기구분을 통해 살펴보고, 또한 품목별 생산구성이 어떤 특징을 나타내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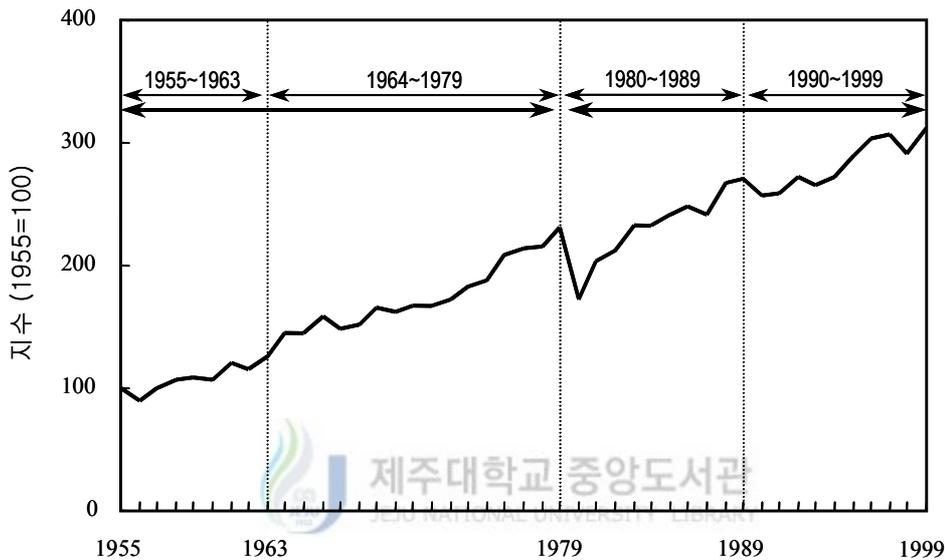
1) 시기별 변화 특징

한국농업생산의 변화를 시기별로 크게 구분한다면, 앞서도 살펴봤던 것처럼 냉해와 병충해 피해 등으로 농업생산이 급격히 감소한 1980년을 기준으로 하여 전·후기로 나뉘볼 수 있다. 한국농업생산이 변화하는 과정에서 그 추세가 바뀌는 바로 이전연도를 기준으로 <그림 III-5>에서와 같이 한국농업생산을 4기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다. 그러나, <표 III-4>에서 보는 것처럼 한국농업생산을 I, II기를 전기(前期)로, III, IV기를 후기(後期)로 크게 구분하여 살펴보는 것도 큰 무리가 따르지 않는다.

한국농업생산의 변화를 시기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I기(1955~63년)는 국내 경제발전이 있어 공업부문의 급속한 성장을 이끌었던 경제개발계획이 1962년부터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농업생산에 있어서는 1955년부터 생산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그리 큰 변화를 나타내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기간은 경제발전 초기단계라 할 수 있다. II기(1964~79년)는 경제개발계획이 본격적으로 실시됨으로써 공업 부문에 있어 가장 큰 폭의 성장률을 나타낸 시기이다. 농업생산 역시 이 기간에 가장 급격한 변화를 나타내고 있는 시기이다. III기(1980~89년)는 1989년 10월 한국이 GATT 국제수지(BOP)조항에서 제외됨에 따라 수입자유화 품목이 확대되었고 국내 농산물시장에 대한 개방압력이 거세지고 있는 시기이다. 이 기간은 1955년부터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던 농업생산은 1980년 냉해와 병해충의 피해로 대부분의 작물생산실적이 저조한 해였다. 이로인해 1980년 농업생산액은 1979년에 비해 25.4%의 감소를 나타냄으로써 한국농업생산에 있어 큰 단층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1981년 이후 농업생산이 회복되어 생산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국내 농산물시장에 대한 개방압력으로 1990년 국내 농업생산은 감소하였다. 따라서, IV기(1990~99년)는 수입자유화 농산물 품목이 확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1993년 12월 UR협상 타결로 국내 농산물시장이 개방되었고, 이후 1995년 WTO체제 출범과

1997년 외환위기로부터 시작된 IMF관리체제로 국내 경기침체는 물론 이로 인해 국내 소비침체를 가져왔다. 이렇게 IV기는 농업을 둘러싼 국내외 여건이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는 시기이다. 그러나, 이 기간 초반에는 외국농산물 수입으로 인한 불안감으로 국내 농업생산이 위축되었지만 1998년 국내 소비감소의 여파에 따른 생산감소 현상을 제외하고는 지속적인 생산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 III-5> 농업총생산의 변화 추이(1955=100)



자료 : <부표 1>, <그림 5>참조

이처럼 한국농업생산의 시기구분에 따른 부문별 성장률을 <표 III-8>에서 살펴보면, 전기(I, II기)에는 전 부문에 걸쳐 연평균 3%대 이상의 높은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후기에 접어들면서 한국농업생산은 III기 1.67%로 성장이 둔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IV기에도 지속되고 있다. 농업총생산의 지속적인 성장추세속에서 전·후기에 걸쳐 부문별 성장률에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전기(I, II기) 경중부문생산이 3.5%대 이상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지만, 후기(III, IV기)에 접어들면서 축산부문의 성장률이 높게 나타남으로써 한국농업생산을 주도하는 부문별 성장률이 달라지고 있다.

<표 III-8> 시기별 농업생산의 연평균성장률 비교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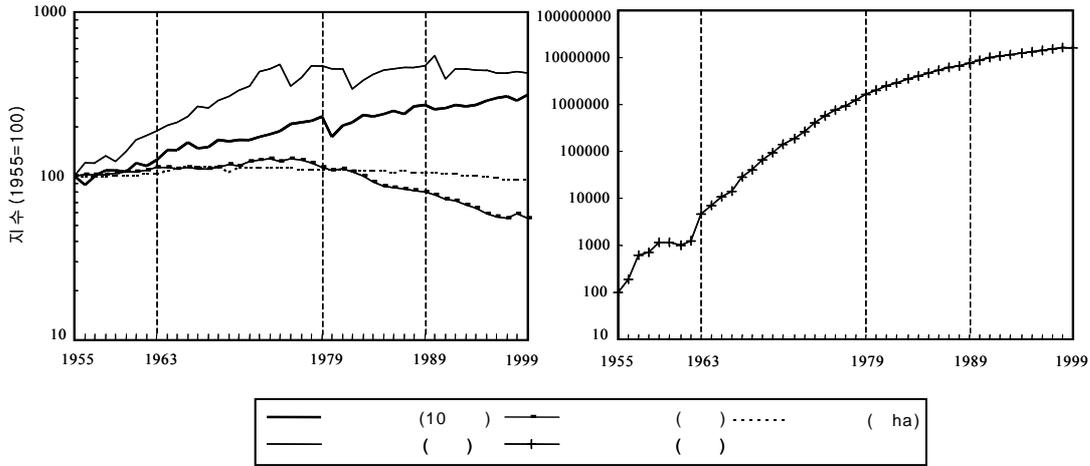
		농업총생산	경종부문	축산부문
전 기	I 기간 1955/57 ~ 1961/63	3.72	3.52	4.88
	II 기간 1961/63 ~ 1977/79	3.84	3.95	3.23
후 기	III 기간 1977/79 ~ 1987/89	1.67	0.92	5.51
	IV 기간 1987/89 ~ 1997/99	1.55	0.80	4.16

자료 : <부표 14>

시기구분을 통한 한국농업생산을 정리해 보면, 전기(I, II기)에는 경제개발계획의 실시와 더불어 비농업부문의 급속한 성장으로 경제발전이 이루어지면서 농업총생산 역시 경종부문 농업생산의 높은 성장에 힘입어 급속한 증가를 나타냈다. 그러나, 후기(III, IV기)에 접어들면서 경종부문 농업생산이 성장둔화를 보였지만, 축산부문의 높은 성장으로 인해 한국농업생산이 지속적인 성장을 유지할 수 있었다. 따라서, 한국농업생산은 시기별 성장을 주도하는 부문별 농업생산의 변화를 겪으면서 지속적인 성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처럼 시기별 농업생산이 변화하는 과정에서 농업투입요소의 변화를 <그림 III-6>에서 보면, 경지면적은 전 기간에 걸쳐 큰 변화를 보이고 있지 않다. 이에 비해 농업총생산이 큰 폭으로 증가한 전기(I, II기)에 농림업취업자와 비료투입량, 농기계보유액을 살펴보면 이들은 1955년 이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후기(III, IV기)에 접어들면서 이들 투입요소들간 상이한 변화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농업총생산이 후기(III, IV기)에 접어들면서 그 성장추세가 전기(I, II기)보다 둔화되긴 했으나 IV기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때 농림업취업자는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다른 투입요소들과는 상이한 변화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는 달리, 비료소비량에 있어서는 투입증가가 둔화되고 있으나 그 소비량은 여전히 크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전기(I, II기) 다른 투입요소들의 변화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인 농기계보유액은 후기(III, IV기)에 들어서면서 그 변화추세가 둔화되긴 했지만 IV기까지도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 III-6> 시기별 농업투입요소의 변화



자료 : <부표 3>, <부표 6>, <부표 7>, <부표 8>

주) semi-log scale

국내 경제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한국농업생산의 변화를 시기구분을 통해 살펴본 결과, 한국농업생산은 1950년대 이후 지속적인 성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전·후기 성장주도 부문이 변화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전기(I, II기)에는 경종부문 농업생산이 성장을 주도하였고, 후기(III, IV기)에 들어서면서 경종부문 성장이 위축에도 불구하고 축산부문의 높은 성장에 의해 한국농업생산은 1.5%대 이상의 성장을 유지하였다. 그리고, 한국농업생산이 I기부터 III기까지는 경제개발계획과 자연재해 등 내적 여건변화에 기인하고 있다면, IV기는 이외에 국내 농산물시장 개방 등 외적 여건변화에 큰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한국농업생산이 시기별 변화를 나타내는 과정에서 농업투입요소 역시 다양한 형태로 변하고 있었다. 1950년대 이후 큰 변화를 보이지 않은 경지면적을 제외한 농업투입요소들은 전기(I, II기)에 증가추세를 나타냈다. 그러나, 1970년대 비농업부문의 급속한 성장에 따른 노동수요가 증가하였고, 농업부문에 비해 높은 생산성을 나타냄으로써 농업노동력의 대거 이동하였다. 따라서, 후기(III, IV기)에 접어들면서 농업노동력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며 부족한 농업노동력을 대체하기

위해 농기계사용이 많아졌으며 정부의 농업기계화사업의 추진과 더불어 다른 투입 요소들과는 달리 전 기간에 걸쳐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그리고, 농기계보유액과 더불어 큰 폭의 증가추세를 나타냈던 비료소비량의 경우, 후기(Ⅲ, Ⅳ기)에 접어들면서 비료소비량은 전기(Ⅰ, Ⅱ기)에 비해 성장이 정체되고 Ⅳ기에 접어들면서 (-)성장을 나타내고 있으나 여전히 ha당 소비량은 늘고 있다.

2) 품목별 변화의 특징

지금까지 시기구분을 통해 한국농업의 생산과 투입요소의 특징적 변화를 검토하였다. 그렇다면, 한국농업생산이 시기에 따라 부문별 다른 성장률을 나타내며 변화할 때 과연 품목별 생산구성의 변화추이와 성장을 주도하는 품목들은 과연 어떤 품목들인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한국농업생산의 품목별 구성변화를 <표 Ⅲ-9>에서 살펴보면, 전기(Ⅰ, Ⅱ기)에는 식량작물이 농업총생산에서 60%이상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미곡의 경우 단일품목임에도 불구하고 45%이상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후기(Ⅲ, Ⅳ기)에 접어들면서 식량작물은 큰 폭의 생산비중이 감소했는데, 이는 전기(Ⅰ, Ⅱ기) 15%대 이상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던 기타곡류의 생산비중이 크게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이처럼 식량작물이 한국농업생산에 있어 비중감소를 나타낸 반면 채소류와 과실류, 그리고 축산부문은 후기(Ⅲ, Ⅳ기)에 접어들면서 생산비중이 크게 증가하였다. 특용작물은 농업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추세를 나타내고는 있지만, 그들 비중이 전체에서 3%에도 미치지 않아 다른 품목들의 비중변화에 비해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시기별 농업생산의 품목별 구성변화와 더불어 이들의 성장률을 보면, 식량작물은 전기(Ⅰ, Ⅱ기)에 연평균 2.5%대 이상의 성장률을 보였으나 후기(Ⅲ, Ⅳ기)에 접어들면서 (-) 성장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채소류와 과실류, 축산부문을 보면 전 기간에 걸쳐 4%대 이상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특용작물은 전기(Ⅰ, Ⅱ기)에 연평균 12%이상의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으나 Ⅳ기에 들어서는 (-)성장률을 보임으로써 다른 품목들에 비해 변동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표 III-9> 농업생산의 변화 추이(1994~96년 평균가격)

	농업총생산	경종부문							축산부문
		합 계	식 럡 작 물			채소류	과실류	특용작물	
			합계	미 곡	기타곡류				
농업생산액(3개년 평균, 10억원)									
1955/57	7,867	6,751	5,837	4,110	1,727	746	146	21	1,117
1961/63	9,796	8,310	7,169	5,009	2,160	888	210	43	1,486
1977/79	17,906	15,435	11,313	8,499	2,814	2,840	995	287	2,471
1987/89	21,140	16,916	10,160	8,537	1,623	4,023	2,170	563	4,224
1997/99	24,658	18,311	8,739	7,737	1,002	6,251	2,973	347	6,348
구성비(%)									
1955/57	100.0	85.8	74.2	52.2	21.9	9.5	1.9	0.3	14.2
1961/63	100.0	84.8	73.2	51.1	22.0	9.1	2.1	0.4	15.2
1977/79	100.0	86.2	63.2	47.5	15.7	15.9	5.6	1.6	13.8
1987/89	100.0	80.0	48.1	40.4	7.7	19.0	10.3	2.7	20.0
1997/99	100.0	74.3	35.4	31.4	4.1	25.4	12.1	1.4	25.7
연평균성장률(%)									
1955/57~1961/63	3.72	3.52	3.49	3.35	3.80	2.93	6.27	12.29	4.88
1961/63~1977/79	3.84	3.95	2.89	3.36	1.67	7.54	10.20	12.61	3.23
1977/79~1987/89	1.67	0.92	-1.07	0.04	-5.35	3.54	8.11	6.99	5.51
1987/89~1997/99	1.55	0.80	-1.50	-0.98	-4.71	4.51	3.20	-4.72	4.16
1955/57~1997/99	2.76	2.40	0.97	1.52	-1.29	5.19	7.44	6.86	4.22

자료 : <부표 14>

한국농업생산에 있어 시기별 성장주도의 부문간 생산변화 뿐만 아니라 그 품목별 구성에 있어서도 큰 변화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한국농업생산은 전기(I, II기)에는 식량작물 위주에서 후기(III, IV기)에는 채소류와 과실류, 축산부문으로 그 생산비중이 변하고 있다. 한편, 시기별 농업생산의 품목별 구성이 변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후기(III, IV기) 농업생산의 성장을 주도함으로써 한국농업생산이 지속적인 성장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이처럼 한국농업생산은 시기에 따라 품목별 구성이 변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의 성장률의 변화가 농업총생산의 성장에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렇다면, 시기별 생산구성의 변화와 품목별 다양한 변화추세 속에서 과연 각 품목별 생산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겠다.

<표 III-10>에서 각 품목별 연평균성장률을 보면, 같은 그룹에 속한 품목일지라도 시기별 생산이 서로 다른 양상을 나타내며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식량작물을 보면 전기(I, II기) 높은 성장률을 나타냈던 품목들은 감자를 제외하고는 후기(III, IV기)에 접어들면서 (-)성장을 보이고 있다.

후기(III, IV기)에 접어들면서 생산비중이 크게 증가추세를 보였던 채소류를 살펴보면, 일부 품목이 I기에 (-) 성장률을 나타낸 것을 제외하고는 IV기까지 성장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전통적인 부식용으로 이용하는 배추와 무는 III기에 들어서면서 동시에 (-)성장을 나타내며 비슷한 생산변화를 보이고 있지만, IV기에는 이들 변화가 서로 다른 형태를 보이고 있다.

채소류와 함께 후기(III, IV기) 생산비중 증가를 보였던 과실류 역시 I기 -1.4%의 성장률을 보인 배를 제외하고는 전 품목에서 지속적인 성장증가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후기(III, IV)에 들어서면서 IV기 이후 이들의 생산변화가 품목별 다른 형태를 보이고 있다. III기까지 연평균 4%대 이상의 높은 성장률을 나타낸 과실류는 IV기에 접어들면서 사과, 감귤과 같이 성장둔화를 나타낸 품목과 포도와 감처럼 연평균 10%대 이상의 높은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는 품목으로의 구분이 뚜렷해지고 있다.

<표 III-9>에서 한국농업생산에 있어 낮은 생산비중에도 불구하고 높은 성장률을 나타냈던 특용작물은 각 품목들의 생산변화에 있어서도 같은 형태를 보이고 있다. 후기(III, IV기)에 접어들면서 (-)성장을 보인 유채를 제외한 전 품목들이 III까지 연평균 6%대 이상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지만, IV기에는 (-)성장을 나타냄으로써 유사한 변화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축산부문을 살펴보면, 가축과 축산물²¹⁾의 경우 전 기간에 걸쳐 높은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토끼와 산양의 생산이 서로 다른 변화양상을 보이고 있을 뿐 대부분의 품목에 있어 지속적인 성장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한편, 젖소와 우유 생산은 III기까지 연평균 10%대 이상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나 IV기에 접어들면서 동시에 성장률의 감소를 나타냄으로써 이들의 생산변화가 동일한 형태를 띄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1) 축산물 중 계란, 오리알은 닭과 오리의 성장률과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이들 생산량이 통계연보에서 발표하고 있지 않아서 닭과 오리 사육두수에 의해 이를 추계함으로써 나타난 결과임.

<표 III-10> 품목별 연평균 성장률(%)

	전 기		후 기			전 기		후 기	
	I기	II기	III기	IV기		I기	II기	III기	IV기
식량작물	3.5	2.9	-1.1	-1.5	생 강	-11.5	18.3	4.5	0.4
미 곡	3.4	3.4	0.04	-1.0	마 늘	7.0	10.2	4.7	1.8
보 리	2.3	-1.5	-6.0	-7.7	과실류	6.3	10.2	8.1	3.2
쌀보리	5.4	3.8	-9.8	-11.3	사 과	10.8	9.2	4.0	-1.6
조	2.9	-11.1	-11.4	-3.1	배	-1.4	6.4	9.7	3.8
옥수수	5.8	13.5	0.6	-3.6	복숭아	4.0	10.5	4.3	1.2
메 밀	-2.0	-0.7	-1.1	-6.5	포 도	14.1	13.8	10.9	10.3
콩	0.8	3.8	-2.2	-5.1	감 굴	24.3	40.8	16.3	1.1
팥	2.9	4.7	1.0	-9.3	감	0.7	9.8	11.9	10.4
녹 두	-2.9	6.8	3.7	-8.4	특용작물	12.3	12.6	7.0	-4.7
감 자	-0.5	0.01	2.1	2.2	들 깨	8.5	9.5	9.2	-1.6
고구마	9.7	1.7	-9.4	-4.6	참 깨	10.8	13.2	6.7	-4.5
채소류	2.9	7.5	3.5	4.5	땅 콩	20.8	12.5	9.4	-8.4
수 박	19.8	13.5	8.8	9.7	유 채		14.9	-10.9	-15.3
참 외	6.7	8.1	2.0	10.7	가 축	4.9	2.5	4.1	4.4
딸 기			4.0	8.0	한육우	5.1	1.6	0.5	3.5
오 이	-0.8	12.4	6.7	10.3	젖 소	33.0	28.8	13.6	1.0
호 박	11.2	8.1	5.5	13.7	돼 지	3.3	2.0	8.7	4.9
토마토	8.7	12.0	8.3	15.1	산 양	31.9	-1.2	-3.9	13.6
배 추	0.5	6.7	-2.7	0.4	끼	25.1	-0.6	-10.4	-2.0
시금치	-3.3	12.3	1.3	5.3	닭	4.8	7.3	4.8	4.1
양배추	2.9	11.2	10.8	4.6	오 리	-12.8	7.1	0.5	19.7
상 추			10.2	8.8	축산물	5.0	9.7	10.8	3.4
무	0.7	5.9	-2.0	-1.1	우 유	34.1	35.1	17.4	2.7
당 근	-24.9	60.0	6.5	5.6	계 란	4.8	7.3	4.8	4.1
고 추	4.2	3.6	5.9	3.6	꿀 벌	6.9	3.8	9.9	5.3
파	-2.8	16.0	5.7	0.03	오리알	-12.8	7.1	0.5	19.7
양 파	-5.2	16.0	7.0	4.7					

자료 : 농림통계연보, 농림부, 각년도

이처럼 각 품목별 생산변화를 연평균성장률을 통해 살펴봤을 때, 이들 역시 한국 농업생산의 시기별 품목구성변화와 유사한 형태를 띠면서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몇몇 품목에 있어 다른 형태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지만, 후기(Ⅲ, Ⅳ기) 생산비중이 크게 감소했던 식량작물의 경우 이들 대부분의 품목에 있어 성장률 감

소 또는 (-)성장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채소류와 과실류, 축산부문 역시 대부분의 품목에서 성장추세가 유지되고 있거나 성장률이 더욱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그렇다면 각기 다른 성장추세를 나타내며 변화하는 이들 품목들이 과연 한국농업총생산의 성장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살펴 보겠다. 이를 위해 성장회계(growth accounting)분석방법을 이용하여 한국농업총생산액을 구성하는 품목별, 지역별생산액이 농업총생산액의 성장에 대한 기여도²²⁾를 구하여 검토한다.

한국농업생산에 대한 부문별 성장기여도를 <표 III-11>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앞의 <표 III-4>와 <표 III-8>에서 살펴봤듯이, 전기(I, II기)에는 농업총생산에 대한 생산비중은 물론 성장률 역시 높게 나타난 경종부문이 한국농업생산의 성장을 주도했다면, 경종부문의 성장둔화에도 불구하고 1.5%대 이상의 성장추세를 유지했던 후기(III, IV기)에 있어서는 축산부문의 높은 성장추세에 의한 것이라 밝히고 있다. 이러한 부문별 농업생산이 각각의 성장기여도를 구함으로써 한국농업생산의 성장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더 확실하게 살펴 볼 수 있다.

한국농업생산의 부문별 성장기여도를 <표 III-11>에서 살펴보면, 전기(I, II기) 한국농업총생산에 있어 경종부문이 87.1%, 축산부문은 12.9%의 성장기여도를 나타

22) 한국농업총생산액에 대한 품목별·지역별 성장기여도

$$Y_n = \sum A_{i_n} \cdots \textcircled{1}, \quad Y_n = \sum R_{j_n} \cdots \textcircled{2},$$

$$G(A_{i_n}) = \frac{g(A_{i_n}) \times \frac{A_{i_n}}{Y_n}}{g(Y_n)} \cdots \textcircled{3}, \quad G(R_{j_n}) = \frac{g(R_{j_n}) \times \frac{R_{j_n}}{Y_n}}{g(Y_n)} \cdots \textcircled{4}$$

n : 기간, i : 품목, j : 지역

Y_n : n 기의 평균농업총생산액, A_{i_n} : n 기 i 작물 평균생산액

R_{j_n} : n 기 j 지역 평균농업총생산액

$G(A_{i_n})$: n 기 i 품목의 농업총생산에 대한 성장기여도

$g(Y_n)$: n 기 농업총생산의 연평균성장률

$g(A_{i_n})$: n 기 i 품목의 연평균성장률

$g(R_{j_n})$: n 기 j 지역의 연평균성장률

내고 있어 경종부문이 한국농업생산의 성장을 주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후기(Ⅲ, Ⅳ기)에 접어들어서는 축산부문이 66.0%의 성장기여도를 나타냄으로써 한국농업생산의 성장주도 부문이 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로부터 앞에서 연평균성장률을 통해 한국농업생산의 성장에 대한 부문별 영향의 정도를 더욱 확실하게 살필 수 있다.

그리고, 품목별 기여도를 살펴보면 전기(Ⅰ, Ⅱ기) 55.4%로 한국농업생산의 성장에 가장 높은 기여도를 나타낸 식량작물은 후기(Ⅲ, Ⅳ기)에 접어들어서는 -38.5%로 오히려 성장침체를 가져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후기(Ⅲ, Ⅳ기) 생산비중의 증가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성장추세를 나타낸 채소류와 과실류, 축산부문을 보면, 각각 55.3%, 35.1% 그리고 66.0%의 기여도를 나타냄으로써 후기(Ⅲ, Ⅳ기) 한국농업생산의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

<표 Ⅲ-11> 시기별 한국농업생산의 부문별 성장기여도 (%)

	전 기 (Ⅰ, Ⅱ기)	후 기 (Ⅲ, Ⅳ기)
경종부문	87.1	43.9
식량작물	55.4	-38.5
채 소 류	20.9	55.3
과 실 류	9.0	35.1
특용작물	3.4	1.2
축산부문	12.9	66.0
가 축	9.9	44.5
축 산 물	3.0	22.8

자료 : <표 3-10>

농림통계연보, 농림부, 각년도

한편, 시기별 각 품목들이 한국농업생산의 성장에 과연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표 Ⅲ-12>의 품목별 성장기여도를 통해 살펴보면, 전기(Ⅰ, Ⅱ기) 한국농업총생산에 있어 단일품목으로 40%이상 큰 비중을 차지한 미곡이 41.07%로 가장 높은 성장기여도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후기(Ⅲ, Ⅳ기)에 접어들면서 미곡의 성장기여도가 -11.09%를 나타냄으로써 오히려 한국농업생산의 성장둔화를 가져오는 가

장 큰 요인이 되고 있다. 이와는 달리 몇몇 품목²³⁾을 제외한 채소류와 과실류, 축산부문은 후기(Ⅲ, Ⅳ기) 한국농업생산에 있어 성장기여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Ⅲ-12> 시기별 품목별 성장기여도(단위:%)

	전 기		후 기	
	(Ⅰ, Ⅱ기)	(Ⅲ, Ⅳ기)	(Ⅰ, Ⅱ기)	(Ⅲ, Ⅳ기)
식량작물				
미 곡	41.07	-11.09	생 강	0.47
보 리	-0.67	-5.68	마 늘	4.24
쌀 보 리	6.33	-10.06	과 실 류	
조	-0.38	-0.04	사 과	4.69
옥 수 수	0.41	-0.19	배	0.60
메 밀	-0.02	-0.09	복 송 아	1.40
콩	2.19	-3.79	포 도	1.49
팥	0.51	-0.92	감 귤	1.75
녹 두	0.09	-0.14	감	0.31
감 자	-0.06	1.81	특용작물	
고 구 마	5.67	-6.62	들 깨	0.32
채 소 류			참 깨	2.25
수 박	1.91	11.96	땅 콩	0.49
참 외	1.25	4.66	유 채	0.00
딸 기	0.00	3.51	가 축	
오 이	0.46	3.87	한 육 우	4.67
호 박	0.17	1.62	젓 소	0.90
토 마 토	0.28	2.87	돼 지	1.77
배 추	3.23	-1.60	산 양	0.25
시 금 치	0.21	0.43	토 끼	0.31
상 추	0.00	2.12	닭	2.46
양 배 추	0.07	0.68	오 리	0.05
무	2.22	-1.56	축 산 물	
당 근	0.44	1.08	우 유	2.38
고 추	4.04	14.97	계 란	1.79
파	0.86	1.76	꿀 벌	0.10
양 파	0.39	1.82	오 리 알	0.00

자료 : <부표 10>

농림통계연보, 농림부, 각년도

시기별 한국농업생산에 있어 높은 성장기여도를 나타낸 품목을 정리해 보면 <표 Ⅲ-13>과 같다. 이를 보면, 후기(Ⅲ, Ⅳ기) 한국농업생산의 성장주도품목에 있어 채소류와 과실류, 축산부문 품목수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3) 배추, 무, 토끼임

<표 III-13> 시기별 농업생산의 성장주도품목

	전 기 (Ⅰ, Ⅱ기)	후 기 (Ⅲ기, Ⅳ기)
식량작물	미곡, 쌀보리, 콩, 고구마	감자
채 소 류	수박, 참외, 배추, 무, 고추, 마늘	수박, 참외, 딸기, 오이, 호박, 토마토, 상추, 당근, 고추, 파, 양파, 마늘
과 실 류	사과, 복숭아, 포도, 감귤	사과, 복숭아, 포도, 감귤, 배, 감
특용작물	참깨	-
가 축	한육우, 돼지, 닭	한육우, 돼지, 닭, 젓소, 오리
축 산 물	우유, 계란	우유, 계란
품 목 수	20개 품목	26개 품목

자료 : <표 III-12>

지금까지 한국농업생산의 시기별, 품목별 변화를 살펴봤고, 또한 성장회계분석 방법을 통해 작물별 성장기여도를 구하여 이들이 시기별 한국농업생산의 성장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의 검토를 토대로 한국농업생산의 변화 특징을 간략히 정리해 보면, 전기(Ⅰ, Ⅱ)에는 미곡을 중심으로 한 식량작물 위주에서 후기(Ⅲ, Ⅳ)에는 채소류와 과실류, 그리고 축산부문으로의 생산패턴이 변화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시기별 품목생산의 구성변화를 나타내고 있으며 또한 이들의 성장변화도 유사한 추세를 나타냈다. 그리고, 전·후기 품목별 성장기여도를 구하여 살펴본 결과, 이들 역시 시기별 농업생산의 품목구성의 변화와 동일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한국농업생산은 시기별 품목생산구성의 변화를 나타내며 지속적인 성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들 변화에 따라 한국농업생산의 품목별 성장기여도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IV. 지역별 농업생산의 실태 및 특징

지금까지 한국농업생산이 시기별, 품목별로 어떤 형태를 띠며 변화하고 있는지 살펴왔다. 또한 이 과정에서 시기별 성장기여도가 높은 품목을 구분하여 살펴 봤을 때, 이들은 시기별 생산구성변화에 동일한 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한국농업생산의 성장을 주도하고 있었다.

본 장에서는 한국농업생산의 변화하는 과정에서 지역별 농업생산은 과연 어떤 형태를 띠고 있으며, 이들이 한국농업생산의 성장에 어느정도의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1. 도별 농업생산의 실태

한국농업생산은 시기별 품목구성의 변화를 나타내면서 지속적인 성장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도별 농업생산은 어떤 형태를 띠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도별 농업생산의 품목구성을 <표 IV-1>에서 보면, 경종부문 생산이 도별 농업총생산에 있어 70% 이상의 높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1970년대까지 식량작물생산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채소류와 과실류, 축산부문 생산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강원도와 제주도의 경우 다른 지역에 비해 미곡생산 비중이 낮게 나타나고 있지만, 제주도는 1970년대 이후 과실류의 생산변화가 크게 나타나고 있지만 강원도는 1950년대 이후 2%대의 낮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1970년대 농업총생산에 있어 식량작물이 65%이상 높은 생산비중을 나타냈던 전라남도과 경상남도의 경우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 급속한 생산비중의 감소를 나타낸 반면 채소류 생산이 30%이상 비중증가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축산부문의 생산을 살펴보면 한국농업생산에 있어 1990년대 들어서면서 축산부문의 생산비중이 25%대로 높아지고 있으나, 경기도의 경우 1970년대 농업 총생산에 있어 24.6%의 비중증가를 보였으며 1990년대에는 46.4%의 비중을 나타내어 축산위주의 생산이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표 IV-1> 도별 농업생산의 품목별 구성비(%)

	농업총 생산	경종부문								축산부문
		합 계	식량작물			채소류	과실류	특용작물		
			합 계	미 곡	기타곡류					
전 국	1955/57	100.0	85.8	74.2	52.2	21.9	9.5	1.9	0.3	14.2
	1977/79	100.0	86.2	63.2	47.5	15.7	15.9	5.6	1.6	13.8
	1997/99	100.0	74.3	35.4	31.4	4.1	25.4	12.1	1.4	25.7
경 기 도	1955/57	100.0	88.2	74.7	59.6	15.0	11.6	1.5	0.5	11.8
	1977/79	100.0	75.4	52.6	47.9	4.6	17.7	3.7	1.3	24.6
	1997/99	100.0	53.6	32.8	30.9	1.9	13.5	6.2	1.1	46.4
강 원 도	1955/57	100.0	77.8	63.8	37.4	26.4	13.1	0.6	0.4	22.2
	1977/79	100.0	82.3	58.6	38.1	20.4	19.8	2.3	1.7	17.7
	1997/99	100.0	71.5	43.5	29.0	14.5	24.5	2.1	1.5	28.5
충청북도	1955/57	100.0	81.2	71.7	46.4	25.4	7.4	1.7	0.4	18.8
	1977/79	100.0	87.8	52.6	42.4	10.2	24.1	9.3	1.8	12.2
	1997/99	100.0	74.4	33.3	29.6	3.7	22.7	15.6	2.8	25.6
충청남도	1955/57	100.0	87.9	76.3	56.9	19.4	9.0	2.2	0.4	12.1
	1977/79	100.0	88.5	62.6	53.4	9.1	19.6	4.9	1.4	11.5
	1997/99	100.0	72.4	41.0	39.7	1.3	22.8	7.2	1.3	27.6
전라북도	1955/57	100.0	89.0	76.9	57.9	19.0	10.6	1.3	0.2	11.0
	1977/79	100.0	90.9	75.7	61.9	13.7	11.9	2.2	1.1	9.1
	1997/99	100.0	76.7	50.9	47.3	3.6	20.1	4.0	1.7	23.3
전라남도	1955/57	100.0	87.1	77.2	54.2	23.0	8.4	1.3	0.2	12.9
	1977/79	100.0	90.0	75.0	47.9	27.1	11.8	1.0	2.1	10.0
	1997/99	100.0	81.8	42.0	35.4	6.6	33.1	5.0	1.7	18.2
경상북도	1955/57	100.0	84.6	72.4	49.1	23.3	8.2	3.8	0.2	15.4
	1977/79	100.0	87.6	59.0	46.3	12.7	15.0	12.3	1.3	12.4
	1997/99	100.0	78.0	25.8	23.7	2.1	27.4	23.4	1.4	22.0
경상남도	1955/57	100.0	85.3	74.1	51.7	22.4	9.6	1.4	0.2	14.7
	1977/79	100.0	85.1	65.2	45.1	20.1	15.7	3.1	1.2	14.9
	1997/99	100.0	77.1	30.6	26.7	3.8	35.1	10.7	0.7	22.9
제 주 도	1955/57	100.0	72.6	65.6	3.0	62.6	6.8	0.1	0.1	27.4
	1977/79	100.0	87.5	46.4	1.4	44.9	6.6	27.8	6.7	12.5
	1997/99	100.0	87.4	8.5	0.1	8.4	19.3	58.8	0.8	12.6

자료 : <부표 15> ~ <부표 23>

도별 농업생산의 품목별 구성변화를 살펴본 결과, 한국농업생산의 품목구성변화

와 유사한 형태를 띄며 전기(I, II기) 식량작물 위주에서 후기(III, IV기)에 접어들면서 이들의 생산비중 감소와 더불어 채소류와 과실류, 축산부문의 생산비중증가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각 도별 생산구성은 품목에 따라 차이를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도별 농업생산의 구성변화가 한국농업생산의 변화와 유사한 형태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처럼 품목별 생산구성변화와 더불어 부문별 성장률이 시기별로 변화되고 있음을 III장에서 살펴볼 수 있었다. 따라서, 도별 농업생산구성 변화와 함께 이들의 성장변화 역시 한국농업생산의 변화와 같은 형태를 띄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도별 농업생산의 연평균성장률을 <표 IV-2>에서 살펴보면, 이들 역시 시기별 품목구성변화에 따라 전·후기 부문별 성장률이 변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전기(I, II기) 경종부문의 높은 성장률에 의한 도별 농업생산의 성장증가를 나타내고 있다. 후기(III, IV기)에 접어들면서 경종부문의 성장둔화를 나타낸 반면 전 지역에 걸쳐 축산부문의 높은 성장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후기(III, IV기) 도별 농업생산의 성장률을 보면, 전기(I, II기)에 비해 성장둔화를 나타내고 있으나 IV기 강원도만이 농업생산에 있어 (-) 성장을 보이고 있다. 또한, 도별 농업생산이 후기(III, IV기)에 들어서면서 III, IV기에 서로 다른 변화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전라남도와 경상남도와 같이 전기(I, II기)에 높은 성장률을 보였지만 III기 성장이 크게 낮아졌지만 IV기에 들어서면서 농업생산의 성장증가를 나타냈다.

지금까지 도별 농업생산을 살펴봤는데, 한국농업생산과 유사한 형태를 띄며 변화하고 있지만 품목별 생산구성에 있어서는 도별로 차이를 나타내고 하였다. 즉, 도별 농업생산의 품목구성을 살펴 봤을 때, 전기(I, II기) 식량작물 위주에서 후기(III, IV기) 채소류와 과실류, 축산부문의 생산구성이 변하고 있다. 또한, 도별 품목별 생산구성의 변화를 나타냄과 동시에 부문별 농업생산의 성장변화가 전기(I, II기) 경종부문에서 후기(III, IV기) 축산부문으로 도별 농업생산의 성장률이 부문별 변화를 나타내면서 성장을 주도하고 있었다.

<표 IV-2> 부문별 농업생산의 연평균성장률(%)

	전 기		후 기	
	I 기	II기	III기	IV기
경 기 도	5.10	3.64	2.92	0.05
경종부문	4.90	2.70	0.44	- 0.92
축산부문	6.59	7.96	8.30	1.31
강 원 도	3.22	3.48	2.29	- 0.10
경종부문	2.71	4.04	1.88	- 1.09
축산부문	4.92	1.40	4.04	2.99
충청북도	4.84	4.53	0.01	1.96
경종부문	5.30	4.87	- 0.45	0.75
축산부문	2.73	2.50	2.87	6.77
충청남도	4.72	4.48	1.50	2.22
경종부문	4.57	4.58	0.46	1.24
축산부문	5.78	3.80	7.38	5.43
전라북도	2.95	2.87	1.42	1.43
경종부문	2.95	3.00	1.00	0.14
축산부문	2.90	1.74	4.93	7.65
전라남도	3.30	4.04	0.73	2.81
경종부문	3.02	4.36	0.59	1.97
축산부문	5.09	1.75	1.85	7.93
경상북도	2.73	4.14	1.83	1.30
경종부문	2.50	4.46	1.36	0.60
축산부문	3.95	2.27	4.73	4.29
경상남도	3.33	3.20	0.75	1.83
경종부문	2.97	3.31	- 0.04	1.63
축산부문	5.33	2.58	4.43	2.56
제 주 도	6.76	5.54	7.55	1.47
경종부문	6.02	7.05	8.17	0.87
축산부문	8.59	- 0.14	1.87	7.18

자료 : <부표 15> ~ <부표 23>

2. 도별 농업투입요소의 변화

한국농업생산이 변화하는 과정에서 농업투입요소 역시 시기별 변화하고 있음을 Ⅲ장에서 살필 수 있었다. 앞절에서 도별 농업생산의 변화가 한국농업생산의 변화와 유사한 형태를 띄고 있었지만, 그 품목별 생산구성변화에 있어서는 도별 차이를 나타내며 변화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농업투입요소의 변화는 어떤 형태를 띄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표 IV-3>에서 도별 경지면적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는데, 전국 호당 경지면적이 후기(Ⅲ, Ⅳ기)에 들어서면서 1ha 이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각 도별 호당 경지면적 역시 비슷한 형태로 변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1인당 경지면적도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1990년대 경기도는 1ha이상으로 1인당 경영규모가 가장 확대되고 있다.

<표 IV-3> 도별 경지면적 및 토지/노동비율의 변화

	전국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
호당 경지면적(ha/호)										
1955/57	0.90	1.16	1.00	0.97	0.93	0.92	0.82	0.91	0.72	0.85
1961/63	0.86	1.09	0.90	0.91	0.90	0.88	0.79	0.83	0.71	0.81
1977/79	0.99	1.20	1.30	1.12	0.99	0.95	0.87	0.99	0.86	0.83
1987/89	1.22	1.39	1.41	1.43	1.22	1.29	1.12	1.16	1.03	1.19
1997/99	1.51	1.69	1.78	1.63	1.58	1.71	1.43	1.39	1.27	1.36
연평균성장률(%)										
1955/57~77/79	0.42	0.13	1.18	0.63	0.32	0.15	0.27	0.37	0.84	-0.11
1977/79~97/99	2.14	1.74	1.62	1.89	2.36	3.02	2.54	1.72	1.95	2.53
토지/노동비율(ha/인)										
1955/57	0.48	0.62	0.55	0.50	0.48	0.49	0.45	0.49	0.38	0.54
1961/63	0.46	0.58	0.51	0.47	0.46	0.47	0.43	0.45	0.39	0.57
1977/79	0.46	0.52	0.56	0.50	0.45	0.45	0.42	0.44	0.39	0.51
1987/89	0.64	0.76	0.69	0.69	0.63	0.70	0.61	0.61	0.56	0.67
1997/99	0.83	1.07	0.87	0.82	0.78	0.99	0.82	0.69	0.79	0.80
연평균성장률(%)										
1955/57~77/79	-0.27	-0.76	0.08	0.06	-0.22	-0.36	-0.35	-0.45	0.10	-0.30
1977/79~97/99	3.02	3.65	2.19	2.48	2.72	4.02	3.39	2.25	3.57	2.30

자료 : <부표 3>, <부표 6>, <부표 12>

통계청 홈페이지(<http://www.stat.go.kr>)

농림통계연보, 농림부, 각년도

시기별 경영규모의 확대추세와 더불어 비료소비량과 농기계보유액의 도별 변화를 <표 IV-4>에서 살펴보면, 재배면적 당 비료소비량과 1인당 농기계보유액의 전국치에 있어 시기별 큰 폭의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재배면적 당 비료투입량을 살펴보면, 강원도와 제주도의 경우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이 투입되고 있으며 후기(Ⅲ, Ⅳ기)에 접어들면서 투입량의 성장둔화를 나타내고 있지만 이들 지역은 2.5%대 이상으로 여전히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한편, 1인당 농기계보유액을 살펴보면, 전·후기에 걸쳐 10%이상의 상당히 높은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으나 전기(Ⅰ, Ⅱ기)에 이들의 변화가 큰 폭의 증가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V-4> 도별 비료소비량 및 농기계보유액의 변화

	전국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
재배면적 당 비료투입량(kg/ha)										
1955/57	85	84	61	81	86	92	87	87	92	61
1961/63	127	123	112	125	125	135	131	128	131	100
1977/79	307	302	336	324	315	335	272	327	274	363
1987/89	377	321	415	360	389	425	350	378	335	669
1997/99	432	382	563	369	400	424	387	459	444	817
연평균성장률(%)										
1955/57~77/79	6.01	6.01	8.06	6.47	6.08	6.07	5.30	6.23	5.10	8.45
1977/79~97/99	1.73	1.17	2.60	0.65	1.20	1.18	1.79	1.71	2.44	4.14
1인당 농기계보유액(천원/인)										
1955/57	0.0	0.0	0.0	0.0	0.0	0.0	0.0	0.1	0.0	0.0
1961/63	0.1	0.2	0.1	0.1	0.1	0.1	0.0	0.2	0.1	0.0
1977/79	54	69	45	55	48	43	45	65	57	65
1987/89	421	681	355	411	392	402	326	430	434	303
1997/99	1425	2238	1313	1245	1295	1444	1245	1391	1630	676
연평균성장률(%)										
1955/57~77/79	45.1	46.6	60.0	70.1	63.3	72.2	60.7	35.2	76.7	53.8
1977/79~97/99	17.8	19.0	18.4	16.9	17.9	19.2	18.1	16.6	18.3	12.4

자료 : <부표 11>, <부표 13>

통계청 홈페이지(<http://www.stat.go.kr>)

농림통계연보, 농림부, 각년도

주) 경기도 1인당 농기계보유액의 연평균성장률은 1961/63년 보유액을 이용함.

도별 농업투입요소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이들 역시 한국농업생산의 변화에 따른 농업투입요소의 변화와 유사한 형태를 띄고 있다.

3. 지역별 농업생산의 특징

지금까지 각 도별 농업생산의 시기별 품목구성과 함께 이때 농업투입요소의 변화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각 도별 농업생산은 Ⅲ장에서 살펴보았던 시기별·품목별 변화양상과 유사한 형태를 띄며 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여기서는 시기별·품목별 농업생산의 구성변화가 도별 농업생산에 있어 상이하게 나타나는 경우도 살필 수 있었다.

Ⅲ장에서 한국농업생산의 변화를 살펴보면서 시기별 품목구성변화와 이에 따른 품목별 성장률의 변화가 유사한 형태를 띄고 있으며, 이런 변화를 보인 품목들 중 대부분이 한국농업생산의 성장을 주도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렇다면, 한국농업생산의 변화와 비슷한 형태를 보이고 있는 도별 농업생산에 있어, 이들의 시기별 성장기여도를 통해 한국농업생산의 성장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살필 수 있다.

따라서, 도별 성장기여도를 구하고 이들의 변화형태를 통한 지역을 구분한 후 이들이 한국농업생산의 성장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지역별 농업생산의 변화 특징

성장회계분석방법에 의해 산출된 한국농업생산에 대한 도별 성장기여도를 <표 IV-5>에서 보면, 전기(I, II기) 한국농업생산의 성장에 있어 전라남도과 경상북도가 17.5%, 16.8%의 기여도를 나타내고 있다. 이와는 달리 전기(I, II기)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성장률을 나타냈던 제주도의 경우 기여도가 3.1%로 전국에서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후기(III, IV기)에 접어들면서 제주도는 10.8%의 기여도를 보임으로써 전기(I, II기)에 비해 한국농업생산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전라남도과 경상북도처럼 전·후기에 걸쳐 한국농업생산에 대한 성장기여도가 높게 나타나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제주도처럼 전·후기 성장기여도가 큰 차이를 보이는 지역도 나타나고 있다.

<표 IV-5> 한국농업생산의 지역별 성장기여도(%)

	전 기	후 기
	(I, II기)	(III, IV기)
경 기 도	14.1	13.3
강 원 도	4.5	3.3
충 청 북 도	8.0	3.8
충 청 남 도	14.9	15.6
전 라 북 도	9.0	9.2
전 라 남 도	17.5	18.6
경 상 북 도	16.8	16.6
경 상 남 도	12.2	9.9
제 주 도	3.1	10.8

자료 : <부표 15> ~ <부표 23>

따라서, 전·후기 한국농업생산에 대한 도별 성장기여도를 기준으로 지역을 구분하면 <표 IV-6>과 같이 나타난다. 이를 보면, 제주도가 후기(Ⅲ, Ⅳ기)로 접어들면서 이들의 성장기여도가 높아짐으로써 전·후기 속한 그룹이 달라지고 있다. 이렇게 구분한 지역별 전·후기 성장기여도를 살펴보면, 성장주도지역의 경우 전·후기 63.2%와 63.6%의 성장기여도를 나타냄으로써 한국농업생산이 성장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성장약세지역의 성장기여도를 보면, 전·후기 15.6%, 7.0%를 보이고 있어 이들 지역구분에 따른 성장기여도의 차이가 확실하게 드러나고 있다.

<표 IV-6> 성장기여도에 따른 지역구분

	전기(I, II기)	후기(III, IV기)	지역별 성장기여도(%)	
			전기	후기
성장주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충청남도, 경기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충청남도, 경기도	63.2	63.6
성장중위	경상남도, 전라북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제주도	21.1	28.4
성장약세	충청북도, 강원도, 제주도	충청북도, 강원도	15.6	7.0

자료 : <표 4-5>, <부표 15~23>

따라서, 도별 품목별 생산구성은 물론 시기별 성장기여도와 이들의 변화양상을 통해 최종적으로 <표 IV-7>과 같이 지역을 구분하여 사용하도록 하겠다. 다만, 성장주도지역 중 경기도의 경우 후기(Ⅲ, Ⅳ기)에 들어오면서 그 기여도가 전기(Ⅰ, Ⅱ기)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어 동일 그룹내 다른 지역과는 성격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후기(Ⅲ, Ⅳ기) 성장기여도가 전기(Ⅰ, Ⅱ기)에 비해 낮게 나타나고 있으나 한국농업생산에 있어 다른 지역에 비해 비교적 높은 기여도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성장주도지역에 포함시켰다.

<표 IV-7> 농업생산의 지역별 성장기여도에 따른 지역구분

구 분	지 역 명	특 징
성장주도지역	전라남도, 경상북도, 충청남도, 경기도	전·후기 강세
성장중위지역	전라북도, 경상남도 제주도	전·후기 중위 후기 기여도의 증가
성장약세지역	충청북도, 강원도	전·후기 약세

자료 : <표 IV-1>, <표 IV-5>, <표 IV-6>



이처럼 성장기여도에 따라 구분된 지역별 농업생산은 어떤 형태를 띠고 있는지 그 특징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지역별 농업생산의 품목구성을 <그림 IV-1>에서 살펴보면, 두 지역 모두 농업총생산에서 전기(Ⅰ, Ⅱ기)에는 식량작물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후기(Ⅲ, Ⅳ기)에 접어들면서 이들의 비중은 크게 감소하고 있는 반면 채소류와 과실류, 축산부문의 생산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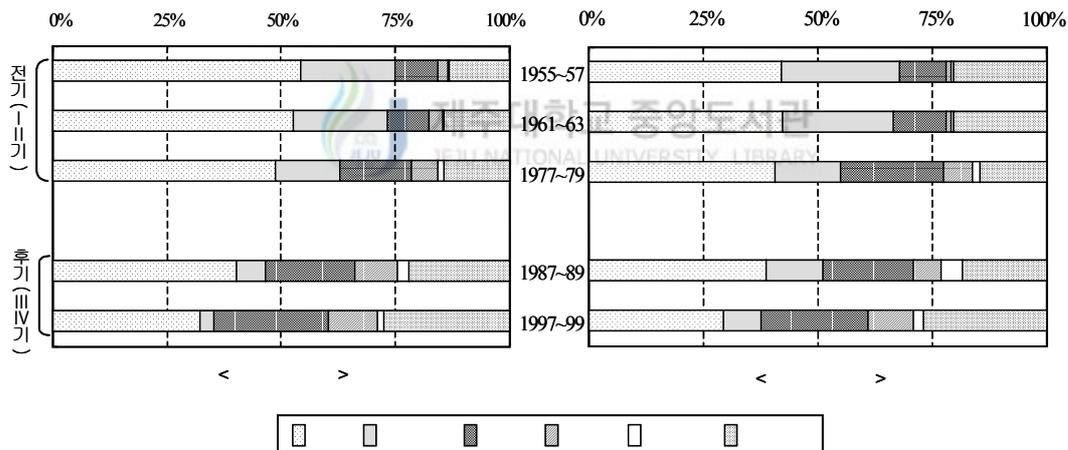
성장주도지역의 경우, 전기(Ⅰ, Ⅱ기)에는 미곡과 기타곡류를 포함한 식량작물이 농업총생산에서 60%이상의 높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후기(Ⅲ, Ⅳ기)에 접어들면서 식량작물의 생산비중이 크게 감소하고 있으며, 이 중 기타곡류의 생산비중이 더 큰 폭의 감소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식량작물의 생산비중 감소에 비해, 채소류와 과실류, 축산부문의 생산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성장약세지역의 경우, 전기(I, II기) 농업총생산에 있어 식량작물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곡류의 생산비중이 성장주도지역에 비해 크게 나타나고 있다. 후기(III, IV기)에 접어들면서 이들 지역 역시 식량작물 위주에서 채소류와 과실류, 축산부문 위주로 생산비중이 변하고 있다.

이처럼, 전·후기 품목별 생산구성이 같은 형태를 나타내며 변하고 있으나, 성장약세지역의 경우 식량작물의 생산구성에 있어 기타곡류의 생산비중이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후기(III, IV기)에 접어들면서도 이들의 생산비중변화가 성장주도지역에 비해 작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채소류와 과실류, 축산부문의 생산변화에 있어서도 성장주도지역에 비해 그 변화폭이 적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지역별 성장기여도는 품목생산구성이 시기적절한 변화²⁴⁾가 얼마나 신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IV-1> 지역별 농업생산의 구성 비교



자료 : <부표 15>~<부표 23>

24) 이는 <표 III-11>과 <표 III-12>에서 전기(I, II기)에는 식량작물, 특히 미곡이 가장 높은 성장기여도를 나타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장약세지역은 미곡생산이 성장주도지역에 비해 낮은 비중을 보이며 기타곡류의 생산비중 감소와 채소류 생산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이와는 달리, 후기(III, IV기)에 들어와서는 기타곡류와 채소류 생산비중 변화가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지역별 농업생산의 변화를 정리해보면, 시기별 식량작물의 비중감소와 채소류와 과실류, 축산부문의 생산비중 증가가 전 지역에 걸쳐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또한, 시기별 성장기여도가 높은 품목의 시기적절한 산출구성 변화가 신축적으로 이루어 질수록 한국농업생산의 성장에 대한 지역별 성장기여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품목별 농업생산의 변화 특징

지금까지 한국농업생산의 성장기여도를 통해 구분된 지역별 농업생산의 변화를 살펴 봤다. 이 과정에서 한국농업생산의 성장기여도에 있어 차이를 나타낸 이들 지역들은 시기별 품목구성의 변화양상이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III장에서 한국농업생산이 시기별 품목생산구성의 변화와 더불어 이들의 품목별 성장기여도가 유사한 형태를 띄며 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한국 농업생산에 대한 성장기여도의 차이를 나타내는 지역별 농업생산이 품목생산의 구성에 있어 다른 형태를 띄며 변하고 있으므로, 이들 지역의 시기별 성장주도품목에 대한 생산형태로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한국농업생산의 시기별 성장주도품목에 있어 이들 지역들은 과연 어떤 생산형태를 띄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를 위해 III장에서 선정한 전·후기 성장주도작물을 중심으로 지역별 농업생산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지역별 농업생산을 <표 IV-8>에서 살펴보면, 전·후기 성장주도작물이 지역별 생산형태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전기(I, II기) 성장주도작물의 생산에 있어 성장주도지역은 이들의 농업생산액이 다른 지역에 비해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들이 지역농업총생산에서 80% 이상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그 비중변화를 보면 1970년대 이후 감소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지역별 전기(I, II기) 성장주도작물의 농업생산액의 성장률을 전·후기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전 지역에 걸쳐 전기(I, II기) 성장률이 더욱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후기(III, IV기) 성장주도작물의 농업생산액 역시 성장주도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이들 품목들이 지역별 농업총생산액에서 차지하는

생산비중은 전기(I, II기) 성장주도작물의 비중변화와는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후기(III, IV기) 성장주도작물 중 한국농업총생산에 있어 단일품목으로서 큰 비중을 보인 미곡이 제외되면서 이들이 지역농업총생산액에서 차지하는 생산비중이 전기(I, II기)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시기별 생산구성의 변화를 보면 전·후기에 걸쳐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후기(III, IV기) 성장률이 전기(I, II기)에 비해 큰 폭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지역별 전·후기 성장주도작물의 생산형태를 살펴본 결과, 지역농업총생산액 중에서 시기별 성장주도작물의 생산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시기별 성장주도작물의 변화에 이들의 성장률 역시 전·후기에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한국농업생산의 시기별 성장주도작물 위주의 생산형태를 나타내는 지역일수록 한국농업생산의 성장에 대한 기여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V-8> 성장주도작물의 지역별 생산변화 추이

	전기 성장주도작물			후기 성장주도작물		
	성장주도지	성장중위지	성장약세지	성장주도지	성장중위지	성장약세지
성장주도작물생산액(10억원)						
1955/57	4,113	2,018	706	1,057	500	301
1961/63	5,190	2,527	924	1,391	597	380
1977/79	9,996	4,237	1,831	3,386	1,212	828
1987/89	11,678	4,888	1,982	6,203	2,489	1,041
1997/99	13,174	5,476	2,187	9,241	4,083	1,530
구성비(%)						
1955/57	87.8	87.6	80.0	22.6	21.7	34.1
1961/63	88.5	89.9	82.3	23.7	21.2	33.9
1977/79	90.1	90.4	86.2	30.5	25.9	39.0
1987/89	88.7	86.8	84.3	47.1	44.2	44.3
1997/99	85.3	82.8	83.9	59.8	61.8	58.7
연평균성장률(%)						
1955/57~61/63	3.96	3.82	4.57	4.68	2.99	3.96
1961/63~77/79	4.18	3.28	4.37	5.72	4.53	4.99
1977/79~87/89	1.57	1.44	0.80	6.24	7.46	2.31
1987/89~97/99	1.21	1.14	0.99	4.07	5.07	3.92
전기(I, II기)	4.12	3.43	4.43	5.43	4.10	4.71
후기(III, IV기)	2.80	2.60	1.79	10.56	12.91	6.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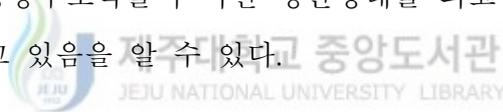
자료 : <부표 15> ~ <부표 23>

- 주) 1. 구성비는 지역별 농업총생산액에서 전·후기 성장주도작물이 차지하는 비율임.
 2. 후기(III, IV기) 성장주도작물의 구성비가 전기(I, II기)에 비해 낮은 비중을 보이는 것은 한국농업총생산에 있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미곡이 성장주도작물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임.

3) 지역별 농업생산의 특징

한국농업생산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도별 농업생산은 어떤 형태를 띄고 있는지 살펴본 결과, 이들의 농업생산 역시 III장에서 살펴봤던 한국농업생산의 시기별·품목별 변화양상과 유사한 형태를 띄고 있었다. 그러나, 한국농업생산이 시기별 다른 성장률을 나타내며 변화할 때, 이에 대한 각 도별 농업생산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성장기여도를 구하여 살펴봤다. 그 결과, 도별 농업생산에 있어 시기별·품목구성별 비슷한 형태를 띄며 변화하고 있었지만, 이들이 한국농업생산에 대한 성장기여도는 시기에 따라 서로 상이한 변화형태를 보였다. 이로부터, 한국농업생산의 성장에 따른 도별 농업생산의 각 시기별 성장기여도 및 그 변화형태를 토대로 하여 성장주도지역, 성장중위지역, 성장약세지역으로 구분하였다.

따라서, 한국농업생산의 성장에 따른 기여도의 차이를 나타내는 이들 지역별 농업생산을 살펴본 결과, 이들의 시기별 품목생산구성의 변화에 있어서는 전 지역에서 유사한 형태를 띄었다. 그러나, 한국농업생산의 변화에 있어 이들 지역들이 전·후기 성장주도품목에 대한 시기적절한 산출구성변화가 얼마나 신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시기별 성장주도작물이 어떤 생산형태를 띄고 있는지에 따라 성장기여도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V. 한국농업산출구조의 변화요인 분석

1960년대 초반이후 국내 경제가 급속히 발전하는 과정에서 한국농업은 산업별 생산비중 감소는 물론 비농업부문에 비해 상대적인 성장감소를 나타냈다. 그러나, III장에서 살펴본 한국농업생산에 있어서는 전·후기 다른 성장률을 나타내던 경종 부문과 축산부문의 생산대체 뿐만 아니라 시기별 품목구성의 변화 등을 보이면서 지속적인 성장추세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한국농업생산의 변화속에서 시기별, 품목별, 지역별 농업생산의 변화양상이 비슷한 양상을 띄고 있었다.

따라서, 여기서는 우선 III, IV장에서 살펴본 한국농업생산의 변화과정에서 나타난 시기별, 품목별, 지역별 농업생산의 특징을 정리하고, 이후 한국농업산출구조의 변화를 초래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살펴도록 하겠다.

1. 한국농업산출구조의 특징



국내 경제가 발전하는 동안 한국농업총생산 역시 1950년대 이후 지속적인 성장 추세를 나타내며 변화하고 있었다. 이런 한국농업총생산의 변화에 있어 냉해와 병해충 피해로 인해 농업생산이 급격하게 감소했던 1980년을 기준으로 크게 전·후기로 구분할 수 있을 수 있다. 이런 시기구분을 통한 한국농업생산의 특징을 정리해 보면, 전기(I, II기)에는 경제개발계획의 실시와 더불어 비농업부문의 급속한 성장으로 경제발전이 이루어지면서 한국농업총생산 역시 전 기간 중 급격한 성장을 나타냈다. 그러나, 후기(III, IV기)에 접어들면서 경종부문 농업생산이 성장둔화를 나타냄에도 불구하고 축산부문 생산의 높은 성장으로 인해 한국농업생산은 지속적인 성장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이처럼, 한국농업총생산의 변화에 있어 전·후기 부문별 성장률의 차이에 따라 성장주도부문이 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처럼 시기별 한국농업생산이 변화하는 동안 품목생산구성이 변화하고 있으며, 성장회계분석방법을 통해 작물별 성장기여도를 구하여 이들이 과연 한국농업생산의 성장에 과연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 전기(I, II)에는 미곡을 중심으로 한 식량작물 위주에서 후기(III, IV기)에는 채소류와 과실류, 그리고 축산부문의 생산패턴이 변화했다. 그리고, 전·후기 품목별 성장기여도를 구하여 살펴본 결과, 이들 역시 시기별 농업생산의 품목구성의 변화와 유사한 형태로 변화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한국농업생산의 성장에 따른 기여도의 차이를 나타내는 지역별 농업생산을 살펴본 결과, 이들의 시기별 품목생산구성의 변화에 있어서 한국농업총생산의 변화와 유사한 형태를 띄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 지역들이 전·후기 성장주도품목에 대한 시기적절한 산출구성변화가 얼마나 신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시기별 성장주도작물에 대해 어떤 생산형태를 띄고 있는지에 따라 지역별 성장기여도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처럼, 한국농업생산이 시기별 품목생산구성 및 품목별·지역별 성장기여도의 차이를 나타내며 변화하는 과정에서 농업투입요소들 역시 큰 변화를 보이고 있다. 전 기간에 걸쳐 경지면적이 그리 큰 변화를 보이지 않은 반면, 농림업취업자 및 비료소비량, 농기계보유액은 전기(I, II기)에는 증가추세를 보이며 그 변화형태가 같게 나타났으나, 후기(III, IV기)에 들어서면서 이들의 변화는 상이하게 나타났다.

2. 한국농업산출구조의 변화요인

한국농업산출구조는 전기(I, II기) 식량작물 위주의 생산에서 후기(III, IV기)에 접어들면서 채소류와 과실류, 축산부문 생산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런 변화는 시기별 성장주도작물에 있어서도 유사한 형태를 띄고 있다. 이는 1970년대 중반이후 공업부문의 급속한 성장에 의한 경제발전이 이루어지면서 국민소득의 향상에 따른

농산물 수요의 변화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과연 한국농업산출구조를 변화시키는 원인이 무엇인지 전·후기로 구분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전기(I, II기) 한국농업생산의 변화요인

전기(I, II기)는 경제개발계획의 실시로 국내 경제에 있어 급속한 성장발전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한국농업생산에 있어서도 가장 높은 성장이 나타난 시기이다. 이때, 한국농업생산은 경종부문생산액이 농업총생산액 중 84%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또한 한국농업생산에 대한 성장기여도가 87.1%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전기(I, II기) 한국농업생산에 있어 경종부문생산이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또한 농업총생산액에서 식량작물생산액이 70%이상을 차지함으로써 이들의 생산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그리고, 식량작물생산액 중 미곡생산액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성장기여도 역시 41.07%로 전기(I, II기) 한국농업생산에 있어 미곡이 큰 영향을 끼치고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생산여건이 어떠한가에 따라 한국농업생산에 대한 지역별 성장기여도도 차이를 나타낼 것이다.

우선, 지역별 경지면적 구성을 <표 V-1>에서 보면, 성장주도지역은 전국대비 11%이상으로 이들 중 전라남도과 경상북도를 합하면 30%이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이 두 지역은 모두 전국 논면적 중 16%이상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비해, 성장약세지역은 전국대비 8% 미만을 나타내며 제주도의 경우 겨우 2%정도로 경지면적의 외연적 크기에 있어 다른 지역에 비해 크게 뒤떨어짐을 알 수 있다. 한편, 지역별 경지면적의 논/밭 구성을 보면, 성장주도지역은 논면적이 55%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성장약세지역은 오히려 밭면적이 50%이상을 나타내고 있으며 더구나 제주도의 경우 95%이상을 차지하여 전작(田作)중심지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성장약세지역은 경지면적의 외연적 크기뿐만 아니라 그 중 밭면적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전기(I,II기) 한국농업생산에 주도적 역할을 한 미곡생산의 자연적 여건이 불리함을 알 수 있다.

<표 V-1> 지역별 경지면적 구성 (단위 : %)

	전국	성장주도지역				성장약세지역		
		전남	경북	충남	경기	강원	충북	제주
전국대비 지역별 비중(%)								
1955/57	100.0	16.1	17.1	11.9	14.3	6.9	7.2	1.9
1961/63	100.0	16.3	17.0	12.5	14.3	6.6	7.3	2.1
1977/79	100.0	16.2	16.8	13.1	13.8	6.9	7.9	2.3
경지면적 당 논/밭 비율(%)								
논								
1955/57	59.6	63.7	55.9	66.8	61.5	37.0	48.3	2.2
1961/63	59.3	62.8	55.9	65.3	61.6	37.3	48.1	2.4
1977/79	58.9	60.9	57.7	63.5	63.4	39.8	48.2	2.0
밭								
1955/57	40.4	36.3	44.1	33.2	38.5	63.0	51.7	97.8
1961/63	40.7	37.2	44.1	34.7	38.4	62.7	51.9	97.6
1977/79	41.1	39.1	42.3	36.5	36.6	60.2	51.8	98.0
논면적의 지역별 구성(%)								
1955/57	100.0	17.1	16.1	13.3	14.8	4.3	5.9	0.07
1961/63	100.0	17.3	16.0	13.7	14.8	4.1	5.9	0.09
1977/79	100.0	16.8	16.4	14.1	14.8	4.7	6.4	0.08

자료 : <부표11>

농림통계연보, 각년판, 농림부

이처럼, 지역별 생산 요소부존조건에 따라 한국농업생산에 대한 지역별 농업생산 형태가 달라지고 있으며, 경지규모의 외연적 크기와 농업총생산액에 대한 지역별 구성비가 비슷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즉, <표 V-1>에서 전국대비 경지면적 비중이 컸던 전라남도와 경상북도가 농업총생산액에서도 이 지역 모두 16%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전국대비 3%미만의 경지면적 비중을 나타낸 제주도는 농업총생산액에서도 그 비중이 3%미만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지역별 연평균성장률을 살펴보면 강원도를 제외한 전 지역이 연평균 3.5%이상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지역별 농업생산액 비중과 그들의 연평균성장률을 이용하여 성장기여도를 구했을 때, 제주도의 경우 전기(I, II기) 5.87%로 가장 높은 성장율을 나타냈지만 이들이 농업총생산액에서 3%도 되지 않는 낮은 비중을 나타냄으로써 이 지역의 성장기여도는 3.1%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V-2> 전기(I, II기) 한국농업생산액의 지역별 구성 (단위:%)

	전국	성장주도지역				성장약세지역		
		전남	경북	충남	경기	강원	충북	제주
농업총생산액의 지역별 구성(%)								
1955/57	100	17.4	17.5	11.4	13.2	5.4	5.8	1.6
1961/63	100	16.9	16.5	12.1	14.3	5.2	6.2	1.9
1977/79	100	17.5	17.3	13.4	13.8	4.9	6.9	2.5
전기성장주도작물의 지역별 비중(%)								
1955/57	100	19.1	16.3	11.5	13.3	4.8	5.5	1.5
1961/63	100	18.5	15.2	12.2	14.2	4.8	5.9	1.8
1977/79	100	18.3	17.0	13.1	13.8	4.4	7.0	2.5
연평균성장률(%)								
1955/57~61/63	3.72	3.30	2.73	4.72	5.10	3.22	4.84	6.76
1961/63~77/79	3.84	4.04	4.14	4.48	3.64	3.48	4.53	5.54
1955/57~77/79	3.81	3.84	3.75	4.55	4.03	3.41	4.61	5.87

자료 : <부표 2>, <표 3-13>

농림통계연보, 농림부, 각년판

또한, 이들 두 지역의 요소생산성을 <표 V-3>에서 살펴보면, 1977/79년 제주도를 제외하고는 성장주도지역이 토지생산성과 노동생산성이 높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토지생산성의 경우, 1955/57년 성장주도지역은 ha당 360만원대를 웃돌고 있지만 성장약세지역은 320만원대를 밑돌고 있다. 1977/79년에는 성장주도지역이 단위면적당 800만원 이상을 나타내고 있는 반면, 성장약세지역은 880만원대를 나타낸 제주도를 제외하고는 720만원대를 밑돌고 있다. 연평균성장률을 살펴보면, 성장주도지역의 경우 경기도를 제외하고는 II기에 들어서면서 성장증가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성장약세지역의 1977/79년 880만원대로 가장 높은 생산성을 나타낸 제주도를 제외하고는 II기에 들어서면서 성장둔화를 보이고 있다. 노동생산성도 이 두 지역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1955/57년 성장주도지역은 1인당 180만원이상으로 경기도의 경우 220만원대를 웃돌고 있지만 성장약세지역은 170만원대로 낮은 생산성을 보이고 있다. 1977/79년에는 성장주도지역이 360만원대 이상으로 경기도의 경우 420만원대를 나타낸 반면 성장약세지역은 450만원대의 제주도를 제외하고는 350만원대를 보이고 있다. 연평균성장율을 살펴보면, I기 5.33%, 3.55%로 높은 성장률을 보인 제주도와 경기도가 II기에 들어오면서 3.94%, 2.69%로 성장둔화를 나타낸 것을 제외하고는 전 지역에서 3% 이상으로 성장률이 증가하고 있다.

<표 V-3> 지역별 토지생산성 및 노동생산성의 비교

	성장주도지역				성장약세지		
	전남	경북	충남	경기	강원	충북	제주
토지생산성(천원/ha)							
1955/57	4,263	4,035	3,806	3,627	3,089	3,187	3,273
1961/63	4,946	4,625	4,619	4,759	3,783	4,073	4,264
1977/79	8,672	8,322	8,224	8,083	5,784	7,104	8,862
연평균성장률(%)							
1955/57~1961/63	2.51	2.30	3.28	4.63	3.43	4.17	4.51
1961/63~1977/79	3.57	3.74	3.67	3.37	2.69	3.54	4.68
1955/57~1977/79	3.28	3.35	3.56	3.71	2.89	3.71	4.63
노동생산성(천원/명)							
1955/57	1,930	1,974	1,814	2,243	1,703	1,584	1,777
1961/63	2,121	2,083	2,134	2,766	1,931	1,927	2,427
1977/79	3,647	3,695	3,737	4,229	3,248	3,583	4,503
연평균성장률(%)							
1955/57~1961/63	1.58	0.90	2.74	3.55	2.12	3.32	5.33
1961/63~1977/79	3.44	3.65	3.56	2.69	3.30	3.95	3.94
1955/57~1977/79	2.93	2.89	3.34	2.92	2.98	3.78	4.32

자료 : <부표 9>, <부표 10>

지금까지 전기(I, II기) 한국농업생산의 성장기여도에 있어 다른 형태를 보인 두 지역을 중심으로 그들의 생산여건을 살펴봤다. 전기(I, II기)에는 식량작물 위주의 생산이 이루어졌고, 이중 미곡생산은 농업총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만큼이나 성장기여도가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미곡생산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따라 지역별 생산비중 및 기여도에서 차이를 보이게 된다. 지역별 성장기여도를 통해 구분된 성장주도지역과 성장약세지역을 비교했을 때 경지면적의 외연적 크기 및 그 구성을 통해 지역별 농업생산 형태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성장주도지역의 경우 경지면적이 클 뿐만 아니라 이 중 논면적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이에 비해 성장약세지역의 경우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경지면적과 그 구성에 있어서도 논면적 보다는 밭면적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전작(田作) 위주의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로부터 이들 지역은 경지면적의 규모와 그 구성에 있어 다른 지역에 비해 자연적으로 전기(I, II기) 한국농업생산의 성장을 주도한 미곡을 생산하기에 불리한 조건하에 있었다.

따라서, 전기(I, II기) 한국농업생산은 요소부존조건에 따라 지역별 성장기여도의 차이와 생산성에 있어서도 격차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 후기 농업생산의 변화요인

전기(I, II기) 한국농업생산에 있어 많은 영향을 끼쳤던 지역별 요소부존조건은 후기(III, IV기)에 접어들어서도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전기(I, II기)에 불리한 요소부존조건으로 성장약세지역에 속했던 제주도가 후기(III, IV)에 들어서도 그 여건은 변함이 없지만 이 지역의 성장기여도는 10.8%로 크게 높아졌다. 이로 인해, 후기(III, IV기) 한국농업생산에 있어서는 자연적 여건 이외의 다른 요인이 작용함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후기(III, IV기) 한국농업생산의 성장주도품목을 중심으로 한국농업생산이 변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후기(III,IV기)에 식량작물의 생산비중이 크게 감소한 반면 채소류와 과실류, 축산부문의 생산비중은 크게 증가하였다. 또한, 이 기간 한국농업생산의 성장주도작물 역시 이들 품목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후기 성장주도품목들의 성장기여도를 <표 V-4>에서 보면, 국내 농산물 시장이 개방된 IV기에 성장기여도가 증가하는 품목²⁵⁾과 성장둔화를 나타내는 품목²⁶⁾으로 양분할 수 있다.

<표 V-4> 후기(III,IV기) 성장주도품목별 성장기여도 (%)

	III기	IV기		III기	IV기
식량작물			과 실 류		
감 자	1.72	1.88	사 과	7.60	-3.09
채소류			배	5.49	3.38
수 박	6.37	16.79	복 송 아	2.24	0.66
참 외	0.84	10.49	포 도	6.66	12.62
딸 기	1.45	6.08	감 굴	16.37	1.86
오 이	1.54	6.55	감	3.64	6.94
호 박	0.43	3.26	가 축		
토 마 토	0.84	5.41	한 육 우	2.07	14.36
상 추	1.32	2.61	젓 소	5.31	0.63
당 근	0.91	1.17	돼 지	20.33	20.20
고 추	16.24	12.56	닭	6.80	8.28
파	3.48	0.02	오 리	0.06	6.48
양 파	1.70	1.75	축 산 물		
마 늘	8.99	4.99	우 유	20.27	6.08
			계 란	4.94	6.02

자료 : 농림통계연보, 농림부, 각년판

25) 수박, 참외, 포도, 한육우, 돼지, 닭, 오리, 계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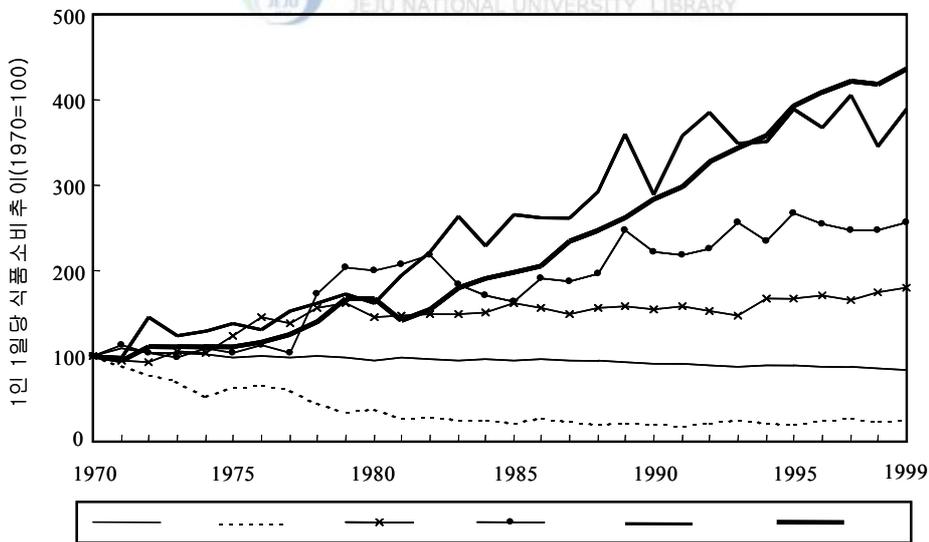
26) 사과, 감귤, 젓소, 우유임.

이처럼, 후기(Ⅲ, Ⅳ기) 한국농업생산의 성장주도품목들 중에서도 Ⅲ기와 Ⅳ기 품목별 성장기여도의 변화가 크게 양분되고 있는데, 이는 Ⅳ기 농업을 둘러싼 국내·외 여건변화에 따른 농업생산의 품목별 변화양상을 볼 수 있다.

그렇다면, 후기(Ⅲ, Ⅳ기) 성장주도품목들이 이처럼 시기별 성장기여도의 변화에 차이를 보이는 원인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1960년대 초반 경제개발계획의 실시와 더불어 급속한 경제성장과 더불어 국민소득이 높아지면서 곡류위주의 식생활에서 채소류와 과실류, 육류로 소비패턴이 변하고 있다. 이러한 품목별 소비변화를 <그림 V-1>에서 살펴보면, 곡류의 소비는 1970년 이후 그리 큰 변화를 보이고 있지 않지만 서류의 경우 1980년까지 큰 폭으로 감소한 이후 소비량이 거의 유지되고 있다. 두류 역시 1980년까지 소폭 증가한 후 1999년까지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식량작물 소비량이 거의 변함없이 나타나는 반면 채소류와 과실류, 육류의 소비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Ⅳ기에 들어서면서 채소류와 과실류의 소비가 유지되고 있는 반면 육류의 소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V-1> 제1차 산업혁명 이후의 식품소비 추이(1970=100)



자료 : 식품수급표, 1977, 1985, 1999,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처럼 식품소비변화를 살펴봤을 때, 한국농업생산이 후기(Ⅲ, Ⅳ기)로 접어들면서 나타났던 채소류와 과실류, 육류의 생산비중 증가와 동일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후기(Ⅲ, Ⅳ기) 한국농업생산의 성장을 주도했던 품목들의 소비량은 각각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살펴보겠다. 후기(Ⅲ, Ⅳ기) 한국농업생산의 품목별 성장기여도가 Ⅳ기에 높은 품목으로 분류하여 <표 V-5>에서 시기별 식품소비량을 살펴보면, Ⅳ기에 들어서 성장기여도가 -3.09%를 나타낸 사과는 Ⅲ기 연평균 2.79%의 소비량증가를 나타냈지만 Ⅳ기에 들어서는 -2.97%의 소비량 감소를 보이고 있다. 이에 비해, Ⅳ기 성장주도작물들의 소비량을 살펴보면, 감자와 당근, 양파를 제외한 모든 품목에 있어 연평균 5%이상의 높은 증가률을 나타내고 있다. 이 중에서 Ⅳ기 12.6%로 Ⅲ기에 비해 높은 기여도를 나타낸 포도의 경우 Ⅳ기 연평균 9.87%의 증가률을 나타내어 어떤 다른 품목들보다 가장 높은 증가률을 보여주고 있다. 이로부터, 시기별 높은 성장기여도를 나타낸 품목들이 그 시기에 식품소비량도 크게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축산부문에 있어 Ⅳ기에 성장기여도가 낮은 품목들의 경우 같은 기간 그들의 소비량 역시 증가율이 낮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들 품목들은 동일한 변화양상을 보인 경종부문 품목들보다는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즉, Ⅳ기에 접어들면서 그 성장기여도가 Ⅲ기보다 낮아진 축산부문 품목들 중에서도 Ⅳ기에 3%이상의 기여도를 나타낸 전 품목들의 소비량 증가율이 2.5%이상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이다.

한편, Ⅳ기에 들어서면서 성장기여도가 더 크게 나타난 축산품목들의 소비변화를 보면, Ⅳ기 14.36%의 기여도를 나타낸 한육우의 경우 Ⅲ기 2.21%에서 Ⅳ기 8.29%로 큰 폭의 소비량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8.28%와 6.02%로 Ⅲ기에 비해 높아진 기여도를 나타낸 닭과 계란의 소비량의 경우 Ⅲ기 연평균 5.26%와 4.62%로 높은 증가를 보인 반면 Ⅳ기에 들어와서는 1.66%와 0.82%로 오히려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표 V-5> 시기별 성장주도품목의 1인 1일당 식품소비량(3개년 평균)

	1인 1일당 평균소비량(g)			연평균성장률(%)	
	1977/79	1987/89	1997/99	1977/79~87/89	1987/89~97/99
Ⅲ기 성장주도품목					
고 추	4.4	5.3	6.8	1.83	2.54
파	12.6	24.4	24.3	6.83	-0.05
마 늘	7.1	14.4	19.2	7.30	2.93
사 과	23.8	31.4	23.2	2.79	-2.97
배	3.3	7.7	10.0	8.71	2.71
복 송 아	4.9	6.7	6.9	3.21	0.21
감 굴	6.1	23.0	24.9	14.13	0.81
돼지고기	13.4	27.6	40.6	7.50	3.93
우 유	15.5	82.0	117.3	18.10	3.65
Ⅳ기 성장주도품목					
감 자	20.4	20.2	26.5	-0.07	2.75
수 박	9.2	16.7	31.4	6.19	6.49
참 외	7.8	6.4	11.5	-2.04	6.06
딸 기	3.5	4.2	6.8	1.72	5.00
오 이	7.2	10.3	17.7	3.63	5.54
호 박	4.9	3.7	9.1	-2.71	9.38
토 마 토	3.0	6.8	13.1	8.41	6.80
상 추	1.7	4.1	7.5	9.15	6.34
당 근	2.8	5.0	7.8	5.95	4.58
양 파	10.6	26.7	38.9	9.67	3.84
포 도	2.5	6.4	16.4	9.70	9.87
감	2.4	4.5	8.5	6.23	6.65
쇠 고 기	7.6	9.5	21.1	2.21	8.29
닭 고 기	5.8	9.7	11.4	5.26	1.66
계 란	13.6	21.3	23.1	4.62	0.82

자료 : 식품수급표, 77년도, 86년도, 99년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후기(Ⅲ, Ⅳ기) 성장주도작물의 식품소비량을 살펴본 결과, 이들 대부분이 시기별 성장기여도의 변화와 유사한 형태로 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전기(Ⅰ, Ⅱ기) 한국농업생산이 요소부존조건에 의해 지역별 성장기여도에 차이가 발생했다면, 후기(Ⅲ, Ⅳ기) 한국농업생산은 수요변화에 대응하여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변화에 지역별로 얼마나 신속적으로 대응했느냐에 따라 이들의 성장기여도는 변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Ⅲ, Ⅳ기 한국농업생산의 성장에 대한 지역별 기여도를 <표 V-6>을 통해 살펴보면, 제주도의 경우 감귤생산의 국내 독점적 지역으로 소비증가율이 가장 컸던 Ⅲ기에 있어 이 지역의 한국농업생산의 성장에 대한 기여도는 15.4%로 전기

(Ⅰ, Ⅱ기) 성장기여도 3.1%보다는 훨씬 높아졌지만, Ⅳ기에 들어오면서 감귤의 성장기여도와 소비량이 크게 감소하면서 제주도의 성장기여도 역시 4.2%로 Ⅲ기에 비해 크게 감소하고 있다. 이와는 달리, Ⅲ기 경종부문에 있어서는 -0.5%로 성장침체를 나타내며 한국농업생산에 있어 5.5%로 가장 기여도가 낮았던 경상남도의 경우 Ⅳ기 한국농업생산에 대한 성장기여도가 14.5%로 크게 상승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종부문의 기여도는 25.6%를 나타내어 Ⅲ기와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변화하였다.

그러나, 축산부문의 경우 경기도의 성장기여도가 Ⅳ기에 큰 폭으로 감소한 것 이외에는 전 지역에서 Ⅲ기보다는 그 기여도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며 Ⅳ기에 기여도가 낮아지고 있는 지역에서도 그 변화폭은 그리 크지 않다. 이와는 달리 경종부문의 경우 Ⅲ, Ⅳ기 중 지역별 기여도가 심하게 변동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V-6> 시기별·부문별 성장기여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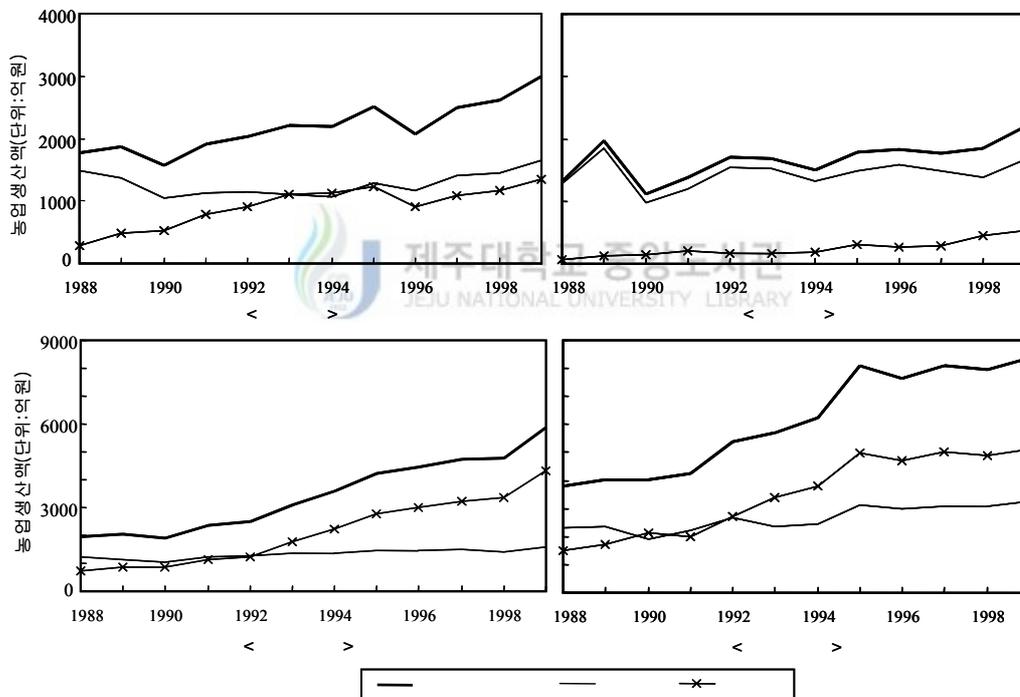
	Ⅲ기			Ⅳ기		
	농업생산	경종부문	축산부문	농업생산	경종부문	축산부문
경기도	26.2	5.7	44.5	0.4	-12.1	8.7
강원도	7.3	10.5	4.4	-0.3	-6.2	3.6
충청북도	0.03	-3.4	2.7	7.5	5.7	8.8
충청남도	11.9	6.7	16.4	19.5	20.6	19.4
전라북도	8.9	12.4	5.8	9.5	2.0	15.0
전라남도	7.1	11.5	3.5	31.1	47.2	21.2
경상북도	18.8	26.0	12.8	14.4	13.6	15.0
경상남도	5.5	-0.5	10.9	14.5	25.6	7.1
제주도	15.4	33.6	0.6	4.2	5.7	3.0

자료 : <부표 1>

한국농업생산 중 경종부문생산에 있어 후기에 지역별 성장기여도에 있어 큰 변화를 나타낸 지역을 대상으로 Ⅳ기 성장주도작물의 생산액 구성을 <그림 V-2>에서 보면, 이들 지역별 변화의 원인을 살펴볼 수 있다. Ⅳ기에 접어들면서 경종부문의 성장침체를 나타낸 경기도와 강원도의 경우, 성장주도작물의 생산액에 있어 시설재배작물의 농업생산액보다 이를 제외한 기타작물의 생산액이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강원도의 경우 이들의 차이가 더욱 큰 폭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경기도가 경종부문의 성장침체를 주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원도에 비해서는 IV기 한국농업생산의 성장기여도가 크게 나타난 이유는 축산부문에 있어 8.7%의 높은 기여도를 나타냈기 때문이다. 이와는 달리 IV기 성장기여도가 높아진 경상남도와 충청남도를 보면, 경기도와 강원도에 비해 IV기 성장주도작물의 생산액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 중 시설재배작물의 농업생산액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변화가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시설재배작물의 생산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IV기 성장기여도가 높은 지역들은 생산기술의 변화를 동반하면서 수요변화에 대응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림 V-2> IV기 시기별 · 부문별 성장기여도



자료 : 농림통계연보, 농림부, 각년판

주) 시설작물은 <표 V-5>에서 IV기 경종부문 성장주도품목 중 수박, 참외, 딸기, 오이, 호박, 토마토, 상추의 시설재배 생산액이며, 이들 품목의 노지재배 생산액은 기타작물 생산액에 포함시킴.

이처럼, 식생활의 변화에 대응하면서 이루어진 후기(Ⅲ, Ⅳ기) 한국농업생산은 지역별 생산기술의 차이를 나타내면서 그 성장기여도가 달라지고 있는데 이들 지역별 요소생산성을 <표 V-7>에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토지생산성을 살펴보면, 제주도의 경우 1987/89년 ha당 1,687.7만원으로 성장주도지역에 비해서도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연평균 6.60%의 증가률을 보이고 있다. 또한, 축산부문의 높은 성장기여도에 의해 Ⅲ기 한국농업생산에 있어 26.2%로 가장 높은 기여도를 나타낸 경기도는 토지생산성도 연평균 3.38%로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이들 지역의 노동생산성도 동일한 양상을 보이면서, 제주도가 9.36%, 경기도는 7.43%로 높은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Ⅳ기에 들어오면서 이들 지역의 토지생산성과 노동생산성의 성장률이 크게 감소하고 있다. 이와는 달리 Ⅳ기 성장기여도가 높아진 경상남도의 경우 토지생산성과 노동생산성의 성장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수요변화에 따른 성장주도작물의 생산 및 이들의 생산기술변화가 신속적으로 이루어진 지역일수록 한국농업생산의 높은 성장기여도를 나타냈으며, 또한 이들의 생산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V-7> 후기(Ⅲ, Ⅳ기) 지역별 생산성 비교

	성장주도지역				성장중위지역			성장약세지역	
	전남	경북	충남	경기	전북	경남	제주	강원	충북
토지생산성(천원/ha)									
1977/79	8672	8322	8224	8083	7547	9001	8862	5784	7104
1987/89	9555	10419	9555	11269	8996	10181	16787	7733	8049
1997/99	12762	13500	12933	13762	11360	14658	18525	9266	10999
연평균성장률(%)									
1977/79~87/89	0.97	2.27	1.51	3.38	1.77	1.24	6.60	2.95	1.26
1987/89~97/99	2.94	2.62	3.07	2.02	2.36	3.71	0.99	1.82	3.17
노동생산성(천원/인)									
1977/79	3647	3695	3737	4229	3422	3532	4503	3248	3583
1987/89	5789	6315	6056	8655	6350	5656	11016	5317	5531
1997/99	10420	9356	10047	14728	11297	11599	14822	8038	9053
연평균성장률(%)									
1977/79~87/89	4.73	5.51	4.95	7.43	6.38	4.82	9.36	5.05	4.44
1987/89~97/99	6.05	4.01	5.19	5.46	5.93	7.45	3.01	4.22	5.05

자료 : <부표 9>, <부표 10>

지금까지 한국농업생산에 있어 시기별, 품목별, 지역별 생산의 특징을 살펴봤고, 이러한 특징들로부터 한국농업생산의 변화 요인을 찾아볼 수 있었다.

한국농업생산이 경제발전과 더불어 지속적인 성장추세를 나타내는 과정에서 전기·후기 경종과 축산부문이 성장률의 차이에 따라 성장주도의 생산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또한, 시기별 한국농업생산의 품목별 생산구성도 변화하여 전기(I, II기) 식량작물 위주의 높은 생산비중을 나타냈지만 후기(III, IV기)에 들어서면서 이들의 생산비중이 큰 폭을 감소하는 반면 채소류와 과실류, 축산부문 생산비중이 증가하였다. 이와 더불어, 시기별 성장주도품목 역시 품목별 생산의 구성변화에 따라 달라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처럼 시기별, 품목별 생산변화를 보이며 한국농업생산이 변화하는 과정에서 시기별 품목별 생산구성의 변화는 물론 성장주도품목의 생산이 얼마나 신축적으로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지역별 성장기여도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처럼, 한국농업생산이 시기별, 품목별, 지역별 생산변화를 나타낸 원인을 살펴본 결과, 전기(I, II기) 한국농업생산은 경제발전 초기 식량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미곡생산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변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미곡을 생산하기 위한 논면적이 넓은 지역일수록 높은 성장기여도를 나타냄으로써 전기(I, II기) 한국농업생산의 변화는 요소부존조건에 의한 것이었다. 이로부터 한국농업생산의 품목별 생산구성 및 지역별 농업생산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와는 달리 후기(III, IV기) 한국농업생산은 경제발전에서 따른 농산물 수요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채소류와 과실류, 축산부문 위주로의 생산비중이 증가한 것이었다. 이로 인해 식품소비량이 증가하는 품목에 따라 시기별 성장주도품목의 성장기여도가 달라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수요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생산기술의 변화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으며, 이처럼 수요변화에 따른 품목생산 및 생산기술변화가 얼마나 신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느냐에 따라 지역별 성장기여도가 높게 나타났다.

V. 결 론

1960년대 초반 경제개발계획의 실시와 더불어 국내 경제는 급속한 성장발전을 이루었다. 이 과정에서 비농업부문의 급성장으로 따라 농업부문이 상대적인 성장저하를 나타냈다. 그러나, 한국농업생산만을 살펴 봤을 때, 1950년대 이후 1970년대 후반까지 급격한 성장추세를 나타냈으며, 기상이변에 따른 1980년 농업생산의 급락에도 불구하고 이후 농업을 둘러싼 국내외적 여건변화하에서도 지속적인 성장을 유지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농업산출구조는 어떤 형태를 띄며 변하고 있으며 그 변화를 초래하는 원인을 밝히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한국농업생산의 변화를 시기별, 품목별, 지역별로 구분하여 그 특징을 파악했고, 성장회계분석방법을 통한 성장기여도를 구하여 이들이 과연 한국농업생산의 성장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살펴 봤다.

이를 위해, II장에서는 농림통계연보를 기본자료로 삼아 1955~1999년까지 농업생산 관련 자료를 추계하였다. 이는 농업생산 관련 시계열자료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통계조사방법의 변경에 따른 자료의 단층현상 발생과 관련 자료의 미비 등에 의해 한국농업생산의 실태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자료의 추계가 불가피하였다.

III장에서는 화훼류를 제외한 한국농업총생산액을 추계한 후, 한국농업생산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 변화를 시기구분을 통해 품목별 생산구성의 특징을 살펴봤다. 한국농업생산은 그 성장의 변화는 다르게 나타나고 있지만 1955년 이후 지속적인 생산증가를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한국농업생산은 4기로 구분할 수 있었다. 이는 경제발전 초기단계인 I기(1955~1963)와 국내 경제뿐만 아니라 농업생산에 있어서도 급속한 성장을 나타낸 II기(1964~1979), 그리고 1980년 냉해와 병충해로 인해 농업생산이 큰 폭으로 감소한 이후 회복기에 있었던 III기(1979~1989)와 UR협상과 WTO출범, IMF관리체제 등 농업을 둘러싼 국내외 여건이 크게 변하고 있는

IV기(1989~1999)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농업생산의 변화를 살펴보는 데 있어 시기구분을 크게 전기(I, II기)와 후기(III기, IV기)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시기별 생산의 특징을 살펴보면, 전기(I, II기)에는 식량위주의 생산이 이루어졌고, 후기(III, IV기)에 접어들면서 채소류와 과실류, 축산부문의 생산증가가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성장회계분석방법을 이용하여 각 품목별 성장기여도를 구하였는데, 이들 품목들은 시기별 생산구성변화에 따라 그 기여도가 달라지고 있었다. 이처럼 한국 농업생산이 시기별·품목별 생산변화를 나타내는 과정에서 농업투입요소의 변화도 살펴볼 수 있었다. 경지면적은 다른 투입요소에 비해 큰 변화를 보이고 있지 않은 반면, 농림업취업자와 비료소비량, 농기계보유액은 전기(I, II)에 증가추세를 보이며 그 변화양상이 동일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후기(III, IV기)에 접어들면서 농림업취업자는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며, 비료소비량은 투입량의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으며 농기계보유액은 후기(III, IV기) 농림업취업자의 감소에 따른 노동력의 대체는 물론 정부차원의 농업기계화 추진계획에 따라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였다.

한국농업생산이 변화하는 과정에서 각 도별 성장기여도에 따라 성장주도지역, 성장중위지역, 성장열세지역으로 구분하여 이들 지역별 농업생산은 어떻게 변하고 있으며, 한국농업생산의 성장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IV장에서 살펴보았다. 지역별 농업생산은 시기별 농업생산구성 및 품목별 생산변화는 한국농업생산의 변화와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한편, 전·후기 지역별 성장기여도가 서로 다르게 나타남으로써, 이들 지역의 농업생산을 살펴본 결과 성장주도품목 생산이 얼마나 신속적으로 시기적절하게 변화하고 있는지에 따라 지역별 성장기여도가 달리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처럼, III장과 IV장을 통해 한국농업생산의 시기별, 품목별, 지역별 농업생산의 특징을 통해 전·후기 한국농업산출구조의 변화요인을 대해 V장에서 살펴보았다. 전기(I, II기) 한국농업생산은 가장 높은 성장기여도를 나타냈던 식량작물, 특히 미곡생산을 위한 논면적이 어느정도의 규모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 지역별 성장기여도에 차이가 나타났다. 따라서, 전기(I, II기) 한국농업생산은 요소부존조건에 의해 품목생산구성의 변화는 물론 지역별 농업생산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었다.

이와는 달리 후기(Ⅲ, Ⅳ기) 한국농업생산은 식량작물 위주에서 채소류와 과실류, 축산부문으로 생산비중변화가 나타난 시기이다. 이는 국내 경제발전에 따른 국민 소득이 향상되면서 곡류에서 채소류와 과실류, 육류 및 유제품으로의 농산물 수요가 변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후기(Ⅲ, Ⅳ기) 성장주도작물들이 Ⅳ기에 접어들면서 성장기여도가 변하고 있는데 이들의 소비량도 유사한 형태를 띄며 변하고 있었다. 또한, Ⅳ기에 성장기여도가 높아진 지역을 살펴본 결과, 이 시기 성장주도작물의 생산증가 뿐만 아니라 생산기술의 변화도 동시에 나타나고 있었다.

따라서, 한국농업산출구조는 요소부존조건과 더불어 경제발전에 따른 농산물 수요의 변화에 대응하며 변하여 왔다. 이 과정에서 시기별 성장주도품목에 대한 생산이 신축적으로 시기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느냐에 따라 지역별 농업생산의 성장 뿐만 아니라 한국농업생산의 성장에 대한 기여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참고문헌>

- 농림부, 「농림통계연보」, 각년판
_____, 「작물통계」, 1987~99년산, 농림부
_____, 홈페이지, <http://www.maf.go.kr>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1982~2000년판
_____, 「지역통계연보」, 1993~2000, 통계청
_____, 홈페이지, <http://www.nso.go.kr>
- 국립품질관리원 홈페이지, <http://www.naqs.go.kr>
- 유영봉, “韓國農業生産の技術變化に關する實證研究”, 박사학위논문, 동경대학교 대학원, 1992, pp
- 황수철, “韓國農業의 産出 投入 및 生産性 推計研究”,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1996, pp.
- 이정환 외, 「경지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생산체계 정립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89, pp
- 이정환, 「농업의 구조전환 그 시작과 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유병서, 「농업경제학」,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1998
- 문팔용, 「현대 농업경제학-이론과 정책」, 선진문화사, 1990
- 박기혁, 나민수, 「현대농업경제학-이론과 정책」, 박영사, 1995
- 유병서, 「농업경제학」,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1998
- 정운찬, 「거시경제론」, 을곡출판사, 2001
- 반성환, 「한국농업의 성장(1918~71)」, 한국개발연구원, 1985
- 허신행, 하현철, “韓國農業의 成長源泉과 變化形態”, 「농촌경제」 제8권 제4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85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韓國農政四十年史(上)」, 1989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품수급표」, 1977, 1986, 1999년도

<부표 1> 품목별 가격표(1994~96년 평균가격)

품 목	가 격 (천원/톤,두수,통)	품 목	가 격 (천원/톤,두수,통)
식량작물		시설채소	
미곡	1,468.2	시설수박	1,021.0
맥류		시설참외	1,622.7
겉보리	1,053.0	시설딸기	2,213.3
쌀보리	1,045.2	시설오이	838.0
맥주보리	993.8	시설호박	705.0
잡곡		시설토마토	872.3
조	568.3	시설배추	178.3
옥수수	402.3	시설시금치	520.2
메밀	977.3	시설상추	845.0
두류		시설무	213.9
콩	1,641.3	시설고추(생고추)	2,250.7
팥	2,762.1	과실류	
녹두	3,412.0	사과	1,141.9
서류		배	1,587.3
감자	2,601.4	복숭아	1,517.5
고구마	1,440.1	포도	1,732.0
채소류		감귤	1,046.2
수박	585.7	감	1,437.7
참외	840.3	특용작물	
딸기	1,591.3	들깨	2,757.6
오이	584.3	참깨	8,239.4
호박	549.7	땅콩	3,561.4
토마토	543.6	유채	694.9
배추	153.3	축산	
시금치	520.2	한육우	680.1
상추	821.7	젖소	405.7
양배추	214.8	돼지	245.9
무	186.2	산양	98.3
당근	550.3	토끼	35.7
고추	5,867.8	닭	9.2
파	426.3	오리	64.4
양파	198.7	벌꿀	76.7
생강	2,358.7	우유	428.9
마늘	2,320.4	계란*	6.7
		오리알*	2.4

자료 : 농림통계연보, “농림업생산액(경상가격)”, p262~269, 1998, 농림부

주) 1. *의 가격은 생산액을 닭과 오리 마리수로 나눈 금액임.(천원/마리)

2. 우유는 1978년 이후 생산량이 발표되고 있는 가장 오랜 자료로, 1955년~77년 생산량은 1984년판 농림통계연보의 우유생산지수(1979~81=100)를 기준으로 추정함.

<부표 2> 지역별 농업생산액(1994~96년 평균가격)

(단위:10억원)

	전국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955	8134	1065	446	450	910	988	1462	1433	1247	134
1956	7272	967	364	445	866	981	1196	1315	1017	121
1957	8197	1079	459	485	924	1062	1442	1386	1236	124
1958	8738	1218	437	526	1004	1128	1496	1474	1331	123
1959	8818	1253	455	546	1063	1111	1481	1532	1236	140
1960	8710	1279	464	573	1097	1100	1442	1389	1199	167
1961	9778	1341	496	619	1146	1234	1691	1635	1451	166
1962	9439	1352	524	566	1063	1113	1700	1504	1413	203
1963	10171	1500	514	646	1352	1262	1589	1718	1395	193
1964	11844	1605	572	746	1505	1538	2112	1921	1582	263
1965	11802	1291	519	716	1407	1440	2048	2026	2026	328
1966	12915	1513	556	832	1588	1655	2354	2210	1926	281
1967	12019	1565	647	861	1612	1408	1728	2133	1845	221
1968	12333	1527	637	868	1720	1490	1926	2040	1856	270
1969	13531	1728	634	840	1642	1662	2391	2277	2102	257
1970	13224	1764	610	873	1657	1591	2276	2256	1972	227
1971	13577	1785	686	925	1577	1588	2461	2285	2055	215
1972	13575	1670	672	883	1618	1616	2542	2330	2005	238
1973	14058	1913	745	1009	1726	1526	2561	2439	1893	246
1974	14804	2049	744	1080	1876	1624	2485	2583	2077	285
1975	15330	2068	799	1096	1892	1672	2725	2675	2013	390
1976	16978	2310	834	1180	2181	1916	3118	2765	2326	348
1977	17352	2460	900	1286	2414	1811	2927	2922	2217	415
1978	17599	2394	853	1102	2252	1823	2992	3144	2595	444
1979	18767	2574	901	1331	2516	2046	3464	3230	2235	472
1980	13992	2147	693	941	1924	1511	2480	2143	1689	465
1981	16556	2406	922	1110	2154	1783	2730	2827	2125	501
1982	17274	2654	984	1173	2274	1889	2849	2791	2070	589
1983	18960	2864	993	1379	2477	1950	3023	3301	2337	637
1984	18917	2881	1028	1281	2505	1983	3158	3200	2287	592
1985	19613	2956	1132	1363	2572	2031	3132	3386	2317	723
1986	20244	3160	1142	1364	2707	2157	3125	3513	2361	715
1987	19684	3141	1087	1203	2561	2037	3039	3504	2281	830
1988	21780	3315	1088	1280	2892	2291	3622	3822	2686	783
1989	21956	3452	1154	1239	2884	2213	3425	3820	2627	1142
1990	20893	3063	961	1171	2794	2184	3480	3728	2668	844
1991	21100	3132	1011	1182	2855	2192	3539	3592	2659	937
1992	22220	3294	1030	1261	2921	2280	3718	3824	2744	1149
1993	21590	3322	928	1292	3004	2285	3730	3448	2566	1014
1994	22128	3288	1001	1303	3118	2262	3823	3673	2704	957
1995	23618	3242	1002	1380	3133	2360	4235	4171	3007	1089
1996	24643	3295	1063	1495	3386	2563	4560	4259	3024	998
1997	24953	3305	1089	1494	3463	2517	4534	4404	3015	1132
1998	23669	3252	1061	1406	3345	2407	4385	3948	2909	956
1999	25353	3398	1144	1622	3578	2616	4390	4326	3182	1098
연평균성장률(%)										
1955/57~1961/63	3.72	5.10	3.22	4.84	4.72	2.95	3.30	2.73	3.33	6.76
1961/63~1977/79	3.84	3.64	3.48	4.53	4.48	2.87	4.04	4.14	3.20	5.54
1977/79~1987/89	1.67	2.92	2.29	0.01	1.50	1.42	0.73	1.83	0.75	7.55
1987/89~1997/99	1.55	0.05	-0.10	1.96	2.22	1.43	2.81	1.30	1.83	1.47
1955/57~1997/99	2.76	2.81	2.30	2.87	3.26	2.19	2.84	2.70	2.30	5.20

<부표 3> 지역별 경지면적

(단위:1,000ha)

	전국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955	1995	286	136	142	235	237	328	341	251	38
1956	1992	285	137	145	237	240	316	340	252	39
1957	1999	286	138	145	238	240	317	343	253	39
1958	2012	289	137	145	238	240	323	344	254	41
1959	2016	288	137	146	240	239	325	343	255	41
1960	2025	289	139	146	243	239	326	344	256	43
1961	2033	290	139	147	244	241	329	343	256	43
1962	2063	295	133	151	262	232	337	353	256	44
1963	2080	296	135	152	264	234	342	354	258	45
1964	2171	310	143	159	277	247	358	366	267	46
1965	2256	316	157	166	287	252	377	379	274	48
1966	2293	320	162	174	291	253	381	386	278	49
1967	2312	320	166	177	292	257	383	389	278	50
1968	2319	319	169	179	294	258	383	390	276	50
1969	2311	316	169	179	295	257	381	390	274	50
1970	2114	290	159	168	265	222	341	370	263	36
1971	2271	309	165	177	293	251	372	386	269	49
1972	2242	308	161	176	290	249	360	383	268	49
1973	2241	308	156	177	292	249	361	383	267	49
1974	2238	307	156	176	292	249	361	382	266	49
1975	2240	307	155	176	292	250	362	382	266	49
1976	2238	310	154	176	292	252	361	378	265	50
1977	2231	309	153	176	292	251	361	376	263	50
1978	2222	307	153	175	291	251	361	372	261	50
1979	2207	303	153	173	290	250	360	369	259	50
1980	2196	300	152	172	289	250	359	366	258	50
1981	2188	299	151	172	288	249	358	365	256	50
1982	2180	297	150	171	289	248	358	362	255	50
1983	2167	294	149	171	287	248	357	359	253	50
1984	2152	293	148	166	286	247	356	356	251	50
1985	2144	290	147	166	285	247	356	354	249	51
1986	2141	289	146	165	285	246	355	352	248	54
1987	2143	295	144	155	290	243	353	358	250	55
1988	2138	294	144	154	292	242	352	357	249	55
1989	2127	291	143	154	291	242	351	355	247	55
1990	2109	285	141	153	289	241	349	352	245	55
1991	2091	280	140	152	288	239	348	347	242	54
1992	2070	277	138	150	285	238	346	343	238	54
1993	2055	274	136	148	283	236	350	339	235	54
1994	2033	267	133	147	283	234	346	335	232	57
1995	1985	255	125	143	280	229	349	326	221	57
1996	1945	247	122	140	274	227	346	320	213	56
1997	1924	243	120	138	270	224	347	316	209	57
1998	1910	241	118	137	268	222	349	313	207	57
1999	1899	240	118	136	265	219	347	310	206	59
연평균성장률(%)										
1955/57 ~ 1961/63	0.52	0.45	-0.19	0.64	1.39	-0.22	0.79	0.42	0.30	2.13
1961/63 ~ 1977/79	0.47	0.27	0.77	0.96	0.78	0.39	0.45	0.39	0.10	0.82
1977/79 ~ 1987/89	-0.39	-0.44	-0.63	-1.24	-0.01	-0.34	-0.25	-0.43	-0.48	0.89
1987/89 ~ 1997/99	-1.11	-1.93	-1.89	-1.17	-0.82	-0.91	-0.12	-1.30	-1.81	0.47
1955/57 ~ 1997/99	-0.10	-0.40	-0.34	-0.12	0.30	-0.18	0.19	-0.21	-0.47	0.94

<부표 4> 지역별 재배면적

(단위:1,000ha)

	전국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955	2396	297	152	169	279	279	412	438	320	51
1956	2441	300	154	176	285	291	413	445	323	54
1957	2488	298	160	183	296	299	423	445	329	55
1958	2452	303	156	170	292	289	410	451	330	52
1959	2459	307	149	175	289	291	412	452	330	55
1960	2487	310	149	176	295	295	412	459	336	56
1961	2523	313	147	177	298	303	427	463	339	56
1962	2576	315	152	182	305	312	448	460	344	58
1963	2647	318	148	185	334	310	460	483	347	63
1964	2801	335	158	193	346	340	487	511	363	68
1965	2994	347	169	219	373	356	517	525	416	73
1966	2898	341	172	206	360	339	512	505	391	73
1967	2960	339	174	213	367	359	522	509	405	74
1968	2949	330	174	208	358	374	527	506	401	72
1969	2962	333	169	203	347	369	554	499	416	72
1970	2911	335	167	199	341	358	546	493	401	72
1971	2796	310	162	190	318	335	538	482	395	67
1972	2801	300	162	183	320	331	563	474	396	72
1973	2786	304	164	190	330	315	547	469	395	71
1974	2843	318	162	197	346	314	546	485	400	75
1975	2863	313	162	184	339	314	562	500	410	79
1976	2884	322	163	190	347	318	570	493	402	78
1977	2708	317	163	179	336	291	522	455	368	77
1978	2706	310	153	186	333	297	520	456	377	75
1979	2626	297	149	181	321	289	526	440	352	71
1980	2472	292	148	174	305	274	487	407	314	69
1981	2492	290	146	175	307	278	495	407	323	70
1982	2404	282	144	169	294	271	485	379	310	71
1983	2412	278	141	167	292	273	491	390	313	67
1984	2416	272	141	168	289	270	498	397	315	68
1985	2308	267	141	162	280	255	462	380	296	66
1986	2289	270	143	164	284	252	440	380	292	65
1987	2313	275	148	151	285	249	451	381	298	73
1988	2265	267	137	151	282	246	445	378	292	68
1989	2221	263	134	147	278	247	438	367	280	67
1990	2146	250	128	142	271	243	425	356	267	64
1991	2066	238	122	138	265	240	408	338	255	62
1992	1990	230	118	135	258	234	395	321	238	61
1993	1986	229	115	131	255	237	410	314	236	60
1994	1898	221	111	125	252	229	381	300	219	59
1995	1886	213	108	124	247	231	395	293	214	61
1996	1853	202	106	122	246	228	403	282	203	60
1997	1810	198	102	119	244	217	393	281	198	58
1998	1828	201	102	119	244	223	402	278	198	59
1999	1827	202	104	121	243	221	398	283	198	59
연평균성장률(%)										
1955/57 ~ 1961/63	0.94	0.93	-0.71	0.51	1.43	1.06	1.13	0.95	0.98	1.80
1961/63 ~ 1977/79	0.23	-0.15	0.27	0.03	0.35	-0.34	1.01	-0.25	0.39	1.43
1977/79 ~ 1987/89	-1.66	-1.38	-1.03	-1.93	-1.57	-1.64	-1.60	-1.81	-2.29	-0.71
1987/89 ~ 1997/99	-2.16	-2.86	-3.04	-2.23	-1.45	-1.16	-1.11	-2.86	-3.74	-1.65
1955/57 ~ 1997/99	-0.70	-0.94	-0.98	-0.91	-0.39	-0.65	-0.11	-1.08	-1.16	0.23

<부표 5> 지역별 농가인구

(단위:1,000명)

	전국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955	13300	1428	762	918	1608	1593	2369	2309	2100	213
1956	13445	1475	776	929	1622	1640	2385	2300	2101	218
1957	13592	1505	785	934	1638	1633	2438	2326	2111	223
1958	13750	1521	794	938	1645	1643	2439	2431	2111	229
1959	14126	1555	823	973	1696	1713	2525	2480	2135	225
1960	14559	1609	862	999	1771	1738	2611	2540	2198	232
1961	14509	1611	868	1019	1762	1725	2596	2510	2181	235
1962	15097	1676	821	1074	1962	1707	2721	2650	2241	247
1963	15266	1690	884	1087	1957	1692	2736	2713	2256	251
1964	15553	1726	922	1100	2008	1701	2788	2760	2297	253
1965	15812	1739	926	1115	2028	1761	2859	2773	2348	261
1966	15781	1712	934	1111	2026	1773	2884	2762	2324	255
1967	16078	1724	959	1151	2050	1836	2954	2798	2336	269
1968	15908	1684	939	1134	2036	1815	2968	2755	2306	271
1969	15589	1631	912	1106	1998	1772	2953	2681	2264	272
1970	14422	1525	869	1023	1824	1658	2678	2515	2082	248
1971	14712	1545	880	1027	1870	1690	2772	2550	2121	257
1972	14677	1546	863	1034	1869	1688	2769	2537	2109	263
1973	14645	1545	871	1031	1860	1689	2772	2528	2083	266
1974	13459	1459	872	920	1732	1581	2501	2271	1876	247
1975	13244	1472	782	931	1689	1545	2416	2293	1862	255
1976	12785	1427	738	903	1663	1486	2344	2192	1784	250
1977	12309	1398	720	865	1613	1439	2267	2078	1684	244
1978	11527	1303	653	816	1526	1356	2141	1939	1557	238
1979	10883	1237	614	767	1452	1277	2015	1823	1464	234
1980	10827	1226	646	745	1421	1214	1989	1856	1486	243
1981	9999	1159	577	735	1352	1110	1818	1691	1349	208
1982	9688	1151	569	705	1304	1062	1752	1641	1303	203
1983	9475	1157	570	676	1275	1036	1687	1599	1278	197
1984	9015	1119	539	630	1218	982	1591	1523	1221	193
1985	8521	1080	535	578	1164	941	1463	1431	1144	185
1986	8180	1056	509	555	1114	897	1405	1374	1090	180
1987	7771	1012	481	528	1056	847	1327	1310	1033	177
1988	7272	956	450	490	997	788	1229	1230	962	171
1989	6786	911	415	458	929	727	1141	1150	891	164
1990	6661	864	393	433	943	708	1142	1142	872	164
1991	6068	801	367	405	835	646	1030	1034	796	153
1992	5707	764	333	379	784	609	948	983	753	152
1993	5407	745	317	362	738	570	875	934	714	151
1994	5167	724	305	349	704	545	824	886	683	147
1995	4851	670	281	326	673	485	791	836	643	146
1996	4692	673	278	322	631	472	743	804	627	142
1997	4468	641	267	311	599	445	707	776	588	135
1998	4400	641	260	300	587	435	698	771	576	133
1999	4210	617	248	279	565	407	667	737	552	136
연평균성장률(%)										
1955/57 ~ 1961/63	1.79	2.05	1.72	2.26	2.61	0.87	1.90	2.13	0.94	1.93
1961/63 ~ 1977/79	-1.59	-1.45	-1.60	-1.62	-1.32	-1.43	-1.40	-1.85	-2.16	-0.15
1977/79 ~ 1987/89	-4.53	-3.09	-3.82	-4.94	-4.22	-5.30	-5.37	-4.49	-4.77	-3.28
1987/89 ~ 1997/99	-4.99	-4.07	-5.37	-4.93	-5.19	-5.90	-5.63	-4.69	-5.06	-2.33
1955/57 ~ 1997/99	-2.65	-1.99	-2.58	-2.68	-2.41	-3.12	-2.92	-2.61	-3.05	-1.13

<부표 6> 지역별 농림업취업자

(단위:1,000명)

	전국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955	4080	453	244	285	497	480	699	700	653	69
1956	4123	466	248	294	495	494	702	693	661	71
1957	4153	469	253	292	497	488	722	701	658	74
1958	4178	473	251	288	498	493	719	737	645	73
1959	4252	475	256	294	513	507	748	745	642	72
1960	4369	493	269	301	533	512	772	762	654	74
1961	4308	490	268	300	521	501	757	745	651	75
1962	4448	505	252	322	568	489	790	781	664	77
1963	4573	520	276	330	580	499	804	807	677	80
1964	4580	523	276	323	590	497	807	811	675	77
1965	4538	509	264	314	581	498	811	807	675	78
1966	4631	514	271	319	594	511	839	818	687	79
1967	4545	499	266	318	579	506	827	794	676	80
1968	4531	495	265	316	582	503	832	784	673	79
1969	4608	500	266	315	585	510	864	797	689	83
1970	4756	518	276	327	604	529	885	828	704	85
1971	4682	512	272	324	595	523	864	821	686	84
1972	5006	549	286	351	633	558	929	877	732	90
1973	5143	565	298	359	653	576	955	901	743	92
1974	5205	594	333	359	667	594	921	903	740	94
1975	5041	588	294	356	638	572	886	895	718	94
1976	5240	616	298	372	675	592	921	928	738	100
1977	5101	613	294	361	665	578	897	887	708	99
1978	4894	587	271	350	645	560	870	846	665	100
1979	4622	560	255	330	615	527	818	793	627	97
1980	4429	538	248	322	592	492	779	764	603	91
1981	4556	555	259	339	612	491	797	789	621	92
1982	4314	535	250	319	576	461	751	748	586	88
1983	4044	512	240	294	536	430	698	701	551	83
1984	3731	478	219	264	495	396	642	646	511	78
1985	3554	461	220	242	480	387	595	608	485	76
1986	3477	458	212	237	466	377	586	595	470	76
1987	3400	449	207	232	454	368	571	584	458	77
1988	3319	439	202	224	449	356	554	572	445	78
1989	3291	302	217	217	474	313	621	610	441	94
1990	3100	281	203	199	443	288	606	576	410	95
1991	2928	263	192	193	423	280	577	556	356	87
1992	2876	266	185	195	418	275	544	557	357	80
1993	2734	255	171	192	398	259	500	539	342	78
1994	2619	237	167	183	392	250	484	510	321	75
1995	2419	212	155	179	363	242	452	479	264	74
1996	2322	203	145	171	348	233	445	463	240	73
1997	2276	191	139	171	345	219	428	463	246	73
1998	2399	252	140	167	354	224	446	466	275	74
1999	2264	243	131	162	335	224	405	429	266	68
연평균성장률(%)										
1955/57~1961/63	1.27	1.48	1.11	1.49	1.93	0.30	1.71	1.82	0.17	1.30
1961/63~1977/79	0.58	0.94	0.18	0.56	0.90	0.70	0.59	0.50	0.03	1.54
1977/79~1987/89	-3.72	-3.84	-2.65	-4.26	-3.30	-4.63	-3.84	-3.51	-3.90	-1.73
1987/89~1997/99	-3.60	-5.36	-4.13	-2.94	-2.82	-4.30	-3.07	-2.59	-5.21	-1.41
1955/57~1997/99	-1.36	-1.66	-1.41	-1.31	-0.86	-1.85	-1.20	-1.03	-2.16	0.01

<부표 7> 지역별 비료소비량(N+P+K)

(단위:1,000톤)

	전국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955	184	22	9	12	22	24	32	33	26	3
1956	221	26	9	15	27	28	39	41	32	3
1957	219	27	10	15	26	27	38	41	32	3
1958	243	29	11	17	29	30	43	46	34	4
1959	225	28	9	15	28	29	40	40	33	3
1960	262	32	13	18	32	34	46	46	37	4
1961	308	36	15	21	36	41	54	57	43	5
1962	328	39	17	23	39	42	58	60	45	6
1963	347	41	18	24	42	42	63	63	47	7
1964	372	41	20	25	45	44	69	68	53	7
1965	393	42	21	27	47	48	75	63	62	8
1966	423	46	23	28	52	51	83	73	58	8
1967	486	54	29	32	57	57	99	83	65	10
1968	478	55	29	31	58	56	94	81	64	11
1969	535	60	32	35	67	63	105	89	71	12
1970	563	65	33	36	65	66	111	99	77	12
1971	605	66	35	48	72	79	108	108	74	15
1972	648	71	40	40	69	75	131	115	89	17
1973	793	89	49	55	100	103	140	137	100	19
1974	837	99	51	56	102	109	151	139	108	21
1975	886	102	50	62	113	110	158	151	118	23
1976	643	62	33	46	81	92	127	110	76	16
1977	736	83	44	53	93	90	136	124	92	22
1978	866	100	54	60	108	103	149	156	108	28
1979	863	96	58	64	111	100	141	162	101	31
1980	828	89	53	55	102	102	144	147	104	32
1981	832	85	55	57	100	93	150	153	103	35
1982	617	64	44	40	75	75	115	103	74	27
1983	709	76	49	46	93	87	123	114	92	30
1984	762	80	50	49	99	93	138	127	95	31
1985	807	83	53	52	103	97	143	142	97	36
1986	830	87	54	52	108	101	149	140	99	41
1987	839	87	55	52	108	103	149	142	97	44
1988	855	86	59	53	107	104	155	148	95	46
1989	865	86	59	57	113	108	162	135	98	48
1990	998	86	59	57	126	127	207	169	110	57
1991	712	78	57	45	88	81	113	123	83	43
1992	822	79	57	48	101	100	152	138	92	56
1993	835	81	58	49	104	105	153	137	90	57
1994	820	79	56	48	103	102	152	131	90	58
1995	811	75	53	46	101	101	157	130	89	59
1996	787	70	54	43	93	97	160	129	87	55
1997	780	69	54	42	95	95	161	128	87	50
1998	801	85	61	46	100	90	145	132	92	50
1999	781	76	58	44	97	95	156	126	85	44
연평균성장률(%)										
1955/57~1961/63	1.27	1.48	1.11	1.49	1.93	0.30	1.71	1.82	0.17	1.30
1961/63~1977/79	0.58	0.94	0.18	0.56	0.90	0.70	0.59	0.50	0.03	1.54
1977/79~1987/89	-3.72	-3.84	-2.65	-4.26	-3.30	-4.63	-3.84	-3.51	-3.90	-1.73
1987/89~1997/99	-3.60	-5.36	-4.13	-2.94	-2.82	-4.30	-3.07	-2.59	-5.21	-1.41
1955/57~1997/99	-1.36	-1.66	-1.41	-1.31	-0.86	-1.85	-1.20	-1.03	-2.16	0.01

<부표 8> 지역별 농기계보유액(95년 기준가격)

(단위:천만원)

	전국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955	2		0.03		0.07		0.00	1.9	0.01	0.03
1956	4		0.04		0.03		0.12	3.7	0.01	0.04
1957	13		0.04	0.04	0.05	0.04	0.16	12.3	0.01	0.04
1958	15		0.04	0.04	0.05	0.04	0.16	14.2	0.01	0.05
1959	23	3	2	1	2	3	2	9	2	0
1960	23	2	2	1	2	3	2	10	2	0
1961	20	2	1	1	1	2	1	10	2	0
1962	26	3	2	1	1	5	0	11	2	0
1963	94	18	7	5	11	14	9	19	11	1
1964	143	19	12	8	20	20	14	25	24	1
1965	222	30	14	14	34	36	31	33	26	4
1966	297	41	18	24	49	44	33	45	34	8
1967	602	95	31	43	77	80	105	93	62	15
1968	863	117	46	64	117	122	135	129	102	31
1969	1337	202	68	92	183	226	197	186	143	40
1970	1920	232	93	138	275	282	272	310	271	47
1971	2848	429	141	200	368	359	442	487	355	69
1972	3893	548	156	258	541	539	617	597	545	91
1973	5662	831	228	462	770	730	877	899	726	138
1974	8280	1202	313	583	1078	971	1282	1505	1104	244
1975	11432	1711	449	768	1422	1224	1838	2118	1566	336
1976	15835	2315	619	1073	1879	1558	2514	3193	2279	404
1977	19829	3029	803	1373	2334	1934	3040	4008	2822	486
1978	25433	3892	1143	1815	3079	2351	3775	5157	3565	655
1979	33143	5043	1663	2470	3792	2876	4729	7017	4774	779
1980	41249	6726	2177	2686	4640	3394	5494	8997	6063	1072
1981	51614	8542	3048	3316	5531	4350	6271	11040	8187	1328
1982	60461	10259	3175	4044	6860	5200	7762	12765	8774	1623
1983	71585	12056	3933	4818	8298	6207	9376	14490	10531	1877
1984	81549	13728	4408	5410	9670	7321	11132	15941	11934	2006
1985	94455	16256	5270	6387	11208	8918	12994	17660	13507	2256
1986	114031	18976	6256	7553	14329	11217	15968	21516	15985	2231
1987	126036	22358	6761	8407	16124	12538	17174	23266	17063	2345
1988	139903	25992	7390	9129	17966	14165	18534	25075	19168	2486
1989	155162	28799	8110	10068	19929	14599	21353	27677	21957	2671
1990	175888	32441	9282	11200	23108	16523	24503	31079	24824	2929
1991	201818	36440	10675	13490	25419	19062	28635	34712	30349	3037
1992	219043	38201	11479	14743	27886	21863	30362	38094	33148	3268
1993	234978	42684	12641	15383	31069	23559	33561	42147	30414	3522
1994	251190	44208	13039	17070	33525	25269	35346	46183	32654	3896
1995	266331	44792	13453	16871	36704	27221	39408	49476	34270	4137
1996	287406	46902	15326	18204	39675	28632	45173	52160	37009	4324
1997	309760	47768	16611	19895	42080	29817	49304	59452	40237	4595
1998	331246	51442	18242	20474	44118	32139	54350	62727	42874	4880
1999	347211	52764	18972	21796	47612	34454	55235	66212	45103	5062
연평균성장률(%)										
1955/57 ~ 1961/63	40.0		109.5	95.1	110.9	136.6	69.9	14.6	167.8	47.6
1961/63 ~ 1977/79	48.5	47.7	45.3	52.4	50.7	43.8	55.2	45.5	51.2	59.3
1977/79 ~ 1987/89	18.3	20.5	20.0	17.2	19.4	19.2	17.3	16.7	18.0	14.6
1987/89 ~ 1997/99	8.9	7.0	9.2	8.5	9.5	8.8	10.8	9.5	8.2	6.8
1955/57 ~ 1997/99	29.6	27.6	36.7	36.8	38.6	38.2	35.7	24.7	42.8	32.5

<부표 9> 지역별 토지생산성

(단위:천 원/ha)

	전국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955	1955	4078	3717	3285	3156	3866	4177	4458	4202	4962
1956	1956	3651	3389	2647	3068	3662	4090	3781	3862	4031
1957	1957	4101	3775	3336	3336	3890	4426	4549	4041	4875
1958	1958	4342	4220	3179	3615	4225	4698	4626	4279	5240
1959	1959	4374	4352	3308	3751	4422	4643	4554	4462	4838
1960	1960	4302	4432	3335	3921	4514	4601	4422	4041	4678
1961	1961	4811	4633	3577	4203	4691	5119	5133	4763	5667
1962	1962	4576	4583	3955	3749	4053	4803	5050	4260	5510
1963	1963	4891	5062	3817	4265	5114	5386	4653	4852	5408
1964	1964	5455	5175	4006	4701	5441	6239	5893	5254	5930
1965	1965	5231	4082	3306	4328	4900	5706	5426	5343	7406
1966	1966	5632	4728	3441	4783	5462	6545	6182	5719	6933
1967	1967	5199	4886	3886	4859	5517	5488	4516	5479	6646
1968	1968	5319	4787	3780	4850	5843	5779	5025	5225	6720
1969	1969	5855	5462	3752	4693	5563	6458	6268	5841	7680
1970	1970	6256	6091	3837	5185	6244	7153	6682	6099	7484
1971	1971	5978	5779	4159	5229	5375	6328	6617	5922	7637
1972	1972	6054	5425	4176	5026	5573	6497	7068	6085	7490
1973	1973	6273	6216	4781	5709	5917	6119	7101	6367	7082
1974	1974	6614	6677	4779	6139	6427	6519	6880	6754	7796
1975	1975	6845	6734	5155	6211	6482	6681	7532	7009	7569
1976	1976	7586	7451	5426	6685	7470	7611	8636	7315	8766
1977	1977	7777	7960	5888	7308	8269	7212	8107	7775	8417
1978	7921	7807	5561	6289	7737	7255	8293	8443	9940	8878
1979	8503	8483	5904	7715	8668	8174	9616	8747	8645	9415
1980	6372	7146	4572	5471	6666	6047	6901	5848	6559	9273
1981	7566	8043	6114	6463	7478	7156	7616	7751	8290	10003
1982	7924	8929	6556	6854	7883	7603	7969	7712	8109	11802
1983	8751	9742	6663	8088	8625	7867	8477	9205	9229	12824
1984	8789	9847	6963	7699	8773	8018	8862	8994	9114	11937
1985	9146	10180	7708	8216	9037	8233	8794	9570	9309	14168
1986	9455	10948	7807	8251	9496	8755	8792	9983	9536	13150
1987	9183	10665	7530	7777	8824	8379	8606	9776	9110	15218
1988	10187	11284	7577	8305	9915	9451	10287	10710	10806	14301
1989	10324	11858	8092	8066	9926	9157	9771	10771	10628	20843
1990	9907	10734	6800	7670	9681	9075	9981	10596	10890	15414
1991	10091	11183	7225	7793	9927	9155	10158	10350	10980	17208
1992	10735	11881	7469	8416	10231	9578	10745	11144	11521	21209
1993	10507	12126	6841	8708	10611	9692	10671	10178	10905	18681
1994	10886	12302	7505	8878	11028	9675	11056	10969	11681	16851
1995	11897	12694	7988	9620	11196	10308	12135	12805	13619	19167
1996	12667	13321	8748	10653	12368	11295	13170	13300	14209	17713
1997	12972	13610	9093	10787	12819	11246	13063	13941	14425	20029
1998	12392	13501	8981	10268	12499	10864	12581	12622	14065	16835
1999	13351	14175	9723	11943	13482	11970	12642	13937	15483	18711
연평균성장률(%)										
1955/57 ~ 1961/63	3.19	4.63	3.43	4.17	3.28	3.17	2.51	2.30	3.03	4.51
1961/63 ~ 1977/79	3.35	3.37	2.69	3.54	3.67	2.48	3.57	3.74	3.09	4.68
1977/79 ~ 1987/89	2.07	3.38	2.95	1.26	1.51	1.77	0.97	2.27	1.24	6.60
1987/89 ~ 1997/99	2.69	2.02	1.82	3.17	3.07	2.36	2.94	2.62	3.71	0.99
1955/57 ~ 1997/99	2.86	3.23	2.65	2.99	2.96	2.38	2.65	2.92	2.79	4.21

<부표 10> 지역별 노동생산성

(단위:천원/명)

	전국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955	1993	2348	1826	1579	1830	2059	2090	2047	1908	1961
1956	1764	2077	1467	1514	1751	1988	1703	1898	1538	1699
1957	1974	2303	1815	1659	1861	2174	1998	1977	1879	1671
1958	2092	2576	1743	1824	2017	2286	2080	1999	2064	1690
1959	2074	2639	1773	1856	2072	2191	1981	2056	1927	1951
1960	1993	2597	1725	1902	2056	2150	1870	1823	1831	2264
1961	2270	2735	1852	2064	2199	2463	2233	2195	2229	2218
1962	2122	2677	2077	1759	1872	2275	2153	1925	2127	2640
1963	2224	2885	1864	1957	2330	2531	1977	2129	2060	2422
1964	2586	3066	2072	2308	2551	3096	2616	2370	2343	3399
1965	2601	2536	1966	2283	2421	2893	2524	2511	3000	4186
1966	2789	2947	2055	2607	2675	3237	2805	2702	2804	3570
1967	2644	3135	2433	2710	2782	2783	2090	2687	2728	2758
1968	2722	3084	2403	2746	2952	2964	2313	2600	2756	3417
1969	2937	3456	2382	2669	2808	3259	2768	2857	3049	3113
1970	2780	3403	2211	2670	2744	3009	2574	2724	2799	2651
1971	2900	3483	2516	2857	2652	3038	2849	2781	2995	2553
1972	2712	3043	2348	2519	2554	2895	2736	2656	2740	2638
1973	2734	3387	2500	2806	2643	2650	2681	2706	2547	2682
1974	2844	3448	2234	3010	2812	2735	2698	2861	2808	3042
1975	3041	3519	2717	3081	2965	2925	3074	2989	2803	4146
1976	3240	3748	2795	3172	3231	3237	3386	2980	3153	3477
1977	3402	4012	3065	3559	3631	3132	3265	3295	3132	4205
1978	3596	4074	3147	3154	3489	3256	3441	3717	3903	4432
1979	4060	4600	3534	4036	4090	3878	4235	4072	3563	4873
1980	3159	3992	2793	2918	3248	3072	3182	2807	2803	5092
1981	3634	4337	3554	3278	3517	3631	3425	3580	3421	5428
1982	4004	4964	3935	3681	3948	4102	3791	3731	3531	6689
1983	4689	5597	4134	4695	4621	4536	4331	4710	4242	7709
1984	5070	6023	4693	4845	5056	5003	4919	4953	4480	7542
1985	5519	6411	5151	5628	5361	5249	5267	5565	4774	9536
1986	5822	6904	5377	5747	5805	5722	5331	5909	5025	9448
1987	5789	7002	5260	5185	5636	5543	5318	5995	4980	10811
1988	6562	7550	5380	5709	6446	6437	6536	6685	6036	10058
1989	6672	11412	5310	5701	6087	7069	5514	6265	5952	12179
1990	6740	10915	4734	5878	6301	7575	5741	6477	6510	8907
1991	7206	11892	5279	6109	6745	7836	6138	6466	7463	10750
1992	7726	12395	5562	6475	6983	8282	6835	6860	7688	14437
1993	7897	13016	5432	6732	7544	8820	7460	6394	7510	13039
1994	8449	13882	5997	7113	7948	9035	7894	7199	8417	12796
1995	9764	15299	6476	7728	8636	9733	9380	8704	11370	14819
1996	10613	16260	7318	8735	9730	10987	10258	9205	12605	13730
1997	10963	17314	7818	8744	10026	11466	10581	9515	12247	15405
1998	9866	12882	7566	8400	9448	10724	9833	8467	10588	13010
1999	11198	13989	8730	10016	10667	11700	10844	10085	11962	16052
연평균성장률(%)										
1955/57 ~ 1961/63	2.42	3.55	2.12	3.32	2.74	2.63	1.58	0.90	3.16	5.33
1961/63 ~ 1977/79	3.26	2.69	3.30	3.95	3.56	2.18	3.44	3.65	3.19	3.94
1977/79 ~ 1987/89	5.57	7.43	5.05	4.44	4.95	6.38	4.73	5.51	4.82	9.36
1987/89 ~ 1997/99	5.35	5.46	4.22	5.05	5.19	5.93	6.05	4.01	7.45	3.01
1955/57 ~ 1997/99	4.18	4.58	3.76	4.24	4.16	4.12	4.10	3.77	4.57	5.18

<부표 11> 재배면적 당 비료투입량

(단위:kg/ha)

	전국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955	77	74	60	74	78	87	79	76	80	60
1956	90	88	61	87	93	97	94	91	98	64
1957	88	89	63	83	87	91	89	92	97	59
1958	99	96	73	100	99	104	106	101	103	79
1959	92	91	61	86	97	100	97	89	99	51
1960	105	103	87	103	109	115	112	101	110	67
1961	122	116	103	118	119	136	126	124	127	88
1962	127	124	109	125	128	133	130	130	131	101
1963	131	130	123	133	127	135	136	130	135	110
1964	133	122	127	130	129	129	142	132	147	102
1965	131	120	124	121	125	135	145	121	150	112
1966	146	136	135	135	145	151	162	145	149	112
1967	164	160	167	153	155	159	189	163	161	135
1968	162	167	165	150	161	149	178	160	160	150
1969	180	179	189	174	194	170	190	179	171	166
1970	193	193	196	180	190	183	203	201	193	171
1971	216	212	218	251	227	237	201	224	188	219
1972	231	238	248	220	217	226	233	243	225	234
1973	285	293	298	288	304	329	256	293	253	269
1974	294	310	317	286	296	347	276	286	269	286
1975	309	325	306	335	334	350	281	302	287	290
1976	223	193	200	240	233	291	223	223	189	209
1977	272	262	268	296	277	310	260	272	249	282
1978	320	322	354	323	324	349	286	342	286	377
1979	329	323	387	353	345	347	269	368	286	430
1980	335	305	358	317	335	372	295	361	330	463
1981	334	292	378	329	326	336	302	375	318	502
1982	257	226	303	238	255	277	237	273	239	390
1983	294	274	348	274	318	317	250	293	295	438
1984	316	293	358	294	342	345	278	320	301	461
1985	350	311	376	320	368	382	311	374	328	554
1986	363	321	380	319	379	399	338	369	341	621
1987	363	316	372	343	379	415	331	374	327	603
1988	377	321	432	353	381	422	349	392	327	683
1989	390	327	441	383	405	438	369	367	351	722
1990	465	343	464	398	466	524	488	474	412	882
1991	345	328	468	327	330	338	278	364	327	696
1992	413	345	481	355	390	428	384	430	386	918
1993	420	353	505	374	407	444	373	437	384	960
1994	432	358	508	380	407	444	399	438	412	982
1995	430	353	493	368	411	438	397	442	413	962
1996	425	348	506	351	377	425	398	457	426	913
1997	431	347	530	355	390	438	409	456	437	862
1998	438	422	597	385	411	402	360	476	464	844
1999	428	376	561	366	400	430	393	446	430	744
연평균성장률(%)										
1955/57~1961/63	6.90	6.67	10.53	7.43	6.37	6.62	6.96	6.74	6.10	8.52
1961/63~1977/79	5.68	5.76	7.14	6.12	5.97	5.86	4.68	6.04	4.73	8.42
1977/79~1987/89	2.07	0.61	2.12	1.06	2.12	2.39	2.56	1.44	2.04	6.30
1987/89~1997/99	1.39	1.74	3.09	0.25	0.29	-0.02	1.03	1.98	2.84	2.01
1955/57~1997/99	3.95	3.68	5.42	3.66	3.73	3.71	3.61	4.05	3.83	6.37

<부표 12> 토지/노동 비율

(단위:kg/ha)

	전국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955	0.49	0.63	0.56	0.50	0.47	0.49	0.47	0.49	0.38	0.56
1956	0.48	0.61	0.55	0.49	0.48	0.49	0.45	0.49	0.38	0.54
1957	0.48	0.61	0.54	0.50	0.48	0.49	0.44	0.49	0.39	0.53
1958	0.48	0.61	0.55	0.50	0.48	0.49	0.45	0.47	0.39	0.56
1959	0.47	0.61	0.54	0.49	0.47	0.47	0.43	0.46	0.40	0.58
1960	0.46	0.59	0.52	0.49	0.46	0.47	0.42	0.45	0.39	0.58
1961	0.47	0.59	0.52	0.49	0.47	0.48	0.44	0.46	0.39	0.58
1962	0.46	0.58	0.53	0.47	0.46	0.47	0.43	0.45	0.39	0.57
1963	0.45	0.57	0.49	0.46	0.46	0.47	0.42	0.44	0.38	0.56
1964	0.47	0.59	0.52	0.49	0.47	0.50	0.44	0.45	0.40	0.59
1965	0.50	0.62	0.59	0.53	0.49	0.51	0.47	0.47	0.41	0.61
1966	0.50	0.62	0.60	0.55	0.49	0.49	0.45	0.47	0.40	0.62
1967	0.51	0.64	0.63	0.56	0.50	0.51	0.46	0.49	0.41	0.62
1968	0.51	0.64	0.64	0.57	0.51	0.51	0.46	0.50	0.41	0.64
1969	0.50	0.63	0.63	0.57	0.50	0.50	0.44	0.49	0.40	0.60
1970	0.44	0.56	0.58	0.51	0.44	0.42	0.39	0.45	0.37	0.42
1971	0.49	0.60	0.61	0.55	0.49	0.48	0.43	0.47	0.39	0.59
1972	0.45	0.56	0.56	0.50	0.46	0.45	0.39	0.44	0.37	0.54
1973	0.44	0.54	0.52	0.49	0.45	0.43	0.38	0.42	0.36	0.53
1974	0.43	0.52	0.47	0.49	0.44	0.42	0.39	0.42	0.36	0.52
1975	0.44	0.52	0.53	0.50	0.46	0.44	0.41	0.43	0.37	0.53
1976	0.43	0.50	0.52	0.47	0.43	0.43	0.39	0.41	0.36	0.50
1977	0.44	0.50	0.52	0.49	0.44	0.43	0.40	0.42	0.37	0.51
1978	0.45	0.52	0.57	0.50	0.45	0.45	0.41	0.44	0.39	0.50
1979	0.48	0.54	0.60	0.52	0.47	0.47	0.44	0.47	0.41	0.52
1980	0.50	0.56	0.61	0.53	0.49	0.51	0.46	0.48	0.43	0.55
1981	0.48	0.54	0.58	0.51	0.47	0.51	0.45	0.46	0.41	0.54
1982	0.51	0.56	0.60	0.54	0.50	0.54	0.48	0.48	0.44	0.57
1983	0.54	0.57	0.62	0.58	0.54	0.58	0.51	0.51	0.46	0.60
1984	0.58	0.61	0.67	0.63	0.58	0.62	0.56	0.55	0.49	0.63
1985	0.60	0.63	0.67	0.68	0.59	0.64	0.60	0.58	0.51	0.67
1986	0.62	0.63	0.69	0.70	0.61	0.65	0.61	0.59	0.53	0.72
1987	0.63	0.66	0.70	0.67	0.64	0.66	0.62	0.61	0.55	0.71
1988	0.64	0.67	0.71	0.69	0.65	0.68	0.64	0.62	0.56	0.70
1989	0.65	0.96	0.66	0.71	0.61	0.77	0.56	0.58	0.56	0.58
1990	0.68	1.02	0.70	0.77	0.65	0.83	0.58	0.61	0.60	0.58
1991	0.71	1.06	0.73	0.78	0.68	0.86	0.60	0.62	0.68	0.62
1992	0.72	1.04	0.74	0.77	0.68	0.86	0.64	0.62	0.67	0.68
1993	0.75	1.07	0.79	0.77	0.71	0.91	0.70	0.63	0.69	0.70
1994	0.78	1.13	0.80	0.80	0.72	0.93	0.71	0.66	0.72	0.76
1995	0.82	1.21	0.81	0.80	0.77	0.94	0.77	0.68	0.83	0.77
1996	0.84	1.22	0.84	0.82	0.79	0.97	0.78	0.69	0.89	0.78
1997	0.85	1.27	0.86	0.81	0.78	1.02	0.81	0.68	0.85	0.77
1998	0.80	0.95	0.84	0.82	0.76	0.99	0.78	0.67	0.75	0.77
1999	0.84	0.99	0.90	0.84	0.79	0.98	0.86	0.72	0.77	0.86
연평균성장률(%)										
1955/57~1961/63	-0.74	-1.02	-1.28	-0.82	-0.51	-0.52	-0.91	-1.37	0.13	0.81
1961/63~1977/79	-0.10	-0.66	0.60	0.40	-0.11	-0.30	-0.14	-0.10	0.09	-0.71
1977/79~1987/89	3.45	3.85	2.05	3.15	3.40	4.53	3.75	3.18	3.53	2.75
1987/89~1997/99	2.59	3.45	2.33	1.82	2.05	3.50	3.03	1.33	3.61	1.85
1955/57~1997/99	1.28	1.32	1.08	1.21	1.17	1.70	1.41	0.83	1.74	0.93

<부표 13> 1인당 농기계보유액

(단위:천원/인)

	전국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955	0.01		0.00		0.00			0.03	0.00	0.00
1956	0.01		0.00		0.00		0.00	0.05	0.00	0.01
1957	0.03		0.00	0.00	0.00	0.00	0.00	0.17	0.00	0.01
1958	0.03		0.00	0.00	0.00	0.00	0.00	0.19	0.00	0.01
1959	0.05	0.05	0.07	0.02	0.03	0.06	0.03	0.12	0.03	0.03
1960	0.05	0.05	0.06	0.03	0.04	0.05	0.02	0.13	0.03	0.03
1961	0.05	0.05	0.02	0.04	0.02	0.04	0.01	0.13	0.03	0.03
1962	0.06	0.07	0.08	0.03	0.02	0.10	0.01	0.14	0.03	0.02
1963	0.2	0.3	0.2	0.1	0.2	0.3	0.1	0.2	0.2	0.1
1964	0.3	0.4	0.4	0.2	0.3	0.4	0.2	0.3	0.4	0.1
1965	0.5	0.6	0.5	0.4	0.6	0.7	0.4	0.4	0.4	0.5
1966	0.6	0.8	0.7	0.8	0.8	0.9	0.4	0.6	0.5	1.0
1967	1	2	1	1	1	2	1	1	1	2
1968	2	2	2	2	2	2	2	2	2	4
1969	3	4	3	3	3	4	2	2	2	5
1970	4	4	3	4	5	5	3	4	4	5
1971	6	8	5	6	6	7	5	6	5	8
1972	8	10	5	7	9	10	7	7	7	10
1973	11	15	8	13	12	13	9	10	10	15
1974	16	20	9	16	16	16	14	17	15	26
1975	23	29	15	22	22	21	21	24	22	36
1976	30	38	21	29	28	26	27	34	31	40
1977	39	49	27	38	35	33	34	45	40	49
1978	52	66	42	52	48	42	43	61	54	65
1979	72	90	65	75	62	55	58	88	76	80
1980	93	125	88	83	78	69	70	118	101	117
1981	113	154	118	98	90	89	79	140	132	144
1982	140	192	127	127	119	113	103	171	150	184
1983	177	236	164	164	155	144	134	207	191	227
1984	219	287	201	205	195	185	173	247	234	256
1985	266	353	240	264	234	230	219	290	278	298
1986	328	415	295	318	307	298	272	362	340	295
1987	371	498	327	362	355	341	301	398	373	306
1988	422	592	365	407	400	398	334	439	431	319
1989	471	952	373	463	421	466	344	454	498	285
1990	567	1156	457	562	521	573	404	540	606	309
1991	689	1383	557	697	600	682	497	625	852	348
1992	762	1438	620	757	667	794	558	683	929	410
1993	859	1672	740	801	780	909	671	781	890	453
1994	959	1866	781	932	855	1010	730	905	1016	521
1995	1101	2114	870	945	1012	1123	873	1032	1296	563
1996	1238	2314	1055	1064	1140	1228	1016	1127	1542	595
1997	1361	2503	1192	1165	1218	1358	1151	1285	1634	625
1998	1381	2038	1301	1223	1246	1432	1219	1345	1561	664
1999	1534	2172	1447	1346	1420	1541	1364	1544	1696	740
연평균성장률(%)										
1955/57~1961/63	38.0		106.7	91.8	105.9	135.9	66.7	12.4	166.9	45.5
1961/63~1977/79	47.9	46.6	45.4	51.8	49.7	42.9	54.5	44.9	51.4	57.0
1977/79~1987/89	22.8	25.8	23.0	22.3	23.3	24.9	21.9	20.8	22.6	16.6
1987/89~1997/99	13.0	12.6	14.0	11.7	12.7	13.6	14.3	12.5	14.2	8.4
1955/57~1997/99	31.4		38.6	38.6	39.8	40.8	37.4	26.0	46.0	32.5

<부표 14> 전국 농업총생산의 변화

(단위:10억원)

	농업 총생산	경종작물	식량작물			채소류	과실류	특용작물	축산부문
			합계	미곡	기타곡류				
1955	8134	7031	6131	4344	1787	736	142	22	1103
1956	7272	6172	5314	3579	1735	696	141	21	1099
1957	8197	7049	6065	4407	1658	807	155	21	1148
1958	8738	7536	6528	4641	1887	797	183	28	1201
1959	8818	7523	6601	4624	1976	694	200	28	1295
1960	8710	7422	6493	4473	2020	698	201	30	1288
1961	9778	8476	7357	5084	2274	894	186	39	1302
1962	9439	7863	6668	4426	2242	916	232	47	1576
1963	10171	8591	7482	5517	1964	853	213	43	1580
1964	11844	10379	8944	5806	3138	1105	275	56	1465
1965	11802	10304	8699	5140	3559	1160	382	63	1498
1966	12915	11374	9388	5754	3634	1489	413	83	1541
1967	12019	10502	8388	5290	3098	1569	446	99	1517
1968	12333	10683	8242	4691	3551	1849	483	109	1650
1969	13531	11950	9518	6005	3512	1783	517	133	1581
1970	13224	11628	9220	5783	3437	1726	525	156	1596
1971	13577	11898	9080	5869	3211	2121	507	190	1680
1972	13575	11866	9029	5810	3220	2038	613	185	1709
1973	14058	12137	9195	6183	3011	2050	688	204	1922
1974	14804	12661	9514	6526	2988	2199	723	225	2143
1975	15330	13430	10490	6855	3635	2025	677	237	1901
1976	16978	14857	11234	7656	3577	2546	770	308	2121
1977	17352	15215	11344	8817	2527	2636	953	282	2137
1978	17599	15096	11436	8511	2925	2375	986	299	2503
1979	18767	15993	11160	8170	2990	3511	1044	278	2773
1980	13992	11619	7307	5212	2095	3158	1010	143	2373
1981	16556	14144	9717	7433	2284	2978	1245	203	2412
1982	17274	14509	9621	7598	2023	3184	1432	273	2765
1983	18960	15427	10004	7934	2070	3318	1692	412	3534
1984	18917	15265	10369	8342	2027	2951	1501	444	3651
1985	19613	15638	10031	8260	1772	3353	1798	456	3975
1986	20244	16105	9791	8232	1559	3947	1823	543	4139
1987	19684	15470	9595	8065	1530	3403	1918	554	4213
1988	21780	17602	10521	8887	1634	4378	2085	617	4178
1989	21956	17676	10365	8659	1706	4288	2505	518	4280
1990	20893	16442	9564	8230	1333	4394	2026	458	4451
1991	21063	16320	9067	7905	1162	4794	2062	397	4743
1992	22220	17182	9084	7827	1258	5214	2473	412	5038
1993	21590	16236	8136	6973	1163	5578	2246	275	5353
1994	22128	16481	8375	7429	946	5428	2320	358	5647
1995	23618	17530	7986	6893	1093	6376	2768	399	6088
1996	24643	18335	9001	7815	1186	6237	2745	351	6308
1997	24953	18549	9003	8001	1002	6078	3084	383	6403
1998	23669	17395	8431	7483	948	5846	2765	353	6274
1999	25353	18988	8783	7726	1056	6828	3070	306	6366
연평균성장률(%)									
1955/57 ~ 1961/63	3.72	3.52	3.49	3.35	3.80	2.93	6.27	12.29	4.88
1961/63 ~ 1977/79	3.84	3.95	2.89	3.36	1.67	7.54	10.20	12.61	3.23
1977/79 ~ 1987/89	1.67	0.92	-1.07	0.04	-5.35	3.54	8.11	6.99	5.51
1987/89 ~ 1997/99	1.55	0.80	-1.50	-0.98	-4.71	4.51	3.20	-4.72	4.16
1955/57 ~ 1997/99	2.76	2.40	0.97	1.52	-1.29	5.19	7.44	6.86	4.22

<부표 15> 경기도 농업총생산의 변화

(단위:10억원)

	농업 총생산	경종작물	식량작물			채소류	과실류	특용작물	축산부문
			합계	미곡	기타곡류				
1955	1065	944	790	631	159	134	15	5	121
1956	967	851	739	576	163	95	12	5	116
1957	1079	949	794	649	146	131	18	6	130
1958	1218	1076	888	708	181	164	17	6	142
1959	1253	1093	919	729	190	149	18	7	161
1960	1279	1130	957	753	204	147	19	7	150
1961	1341	1187	983	765	218	171	23	10	154
1962	1352	1159	911	690	221	210	27	10	192
1963	1500	1310	1085	865	221	196	21	8	190
1964	1605	1441	1167	890	277	238	24	12	164
1965	1291	1119	845	644	201	214	47	13	172
1966	1513	1348	1014	787	227	258	60	16	166
1967	1565	1402	1044	831	213	277	62	19	163
1968	1527	1321	937	742	195	302	62	19	206
1969	1728	1522	1111	903	208	324	67	20	206
1970	1764	1518	1088	914	174	337	70	23	246
1971	1785	1525	1008	859	149	442	53	22	260
1972	1670	1391	948	804	144	353	68	22	279
1973	1913	1544	1102	958	145	346	73	23	369
1974	2049	1650	1154	987	167	397	71	28	399
1975	2068	1687	1242	1046	196	349	67	29	381
1976	2310	1856	1284	1103	182	452	85	34	454
1977	2460	1952	1360	1237	122	467	93	32	508
1978	2394	1787	1284	1170	114	376	95	31	607
1979	2574	1860	1262	1153	109	476	90	32	714
1980	2147	1515	953	870	83	451	87	24	632
1981	2406	1679	1149	1058	91	414	89	27	728
1982	2654	1806	1215	1130	84	448	112	32	848
1983	2864	1804	1183	1101	82	450	124	47	1060
1984	2881	1793	1232	1158	74	404	113	44	1088
1985	2956	1781	1184	1115	68	409	139	49	1175
1986	3160	1899	1237	1174	63	431	177	54	1261
1987	3141	1813	1207	1147	60	359	183	63	1328
1988	3315	1954	1292	1236	57	406	189	68	1360
1989	3452	2082	1365	1297	68	434	204	79	1370
1990	3063	1684	1096	1053	43	375	159	55	1378
1991	3127	1728	1143	1101	42	384	148	54	1399
1992	3294	1838	1197	1149	47	420	167	55	1455
1993	3322	1821	1152	1102	50	477	149	43	1501
1994	3288	1753	1094	1056	38	451	159	49	1535
1995	3242	1656	990	947	43	454	175	38	1586
1996	3295	1726	1110	1053	57	408	171	36	1569
1997	3305	1761	1095	1036	59	424	206	37	1543
1998	3252	1747	1060	1000	60	438	211	38	1506
1999	3398	1822	1110	1038	72	483	197	33	1575
연평균성장률(%)									
1955/57 ~ 1961/63	5.10	4.90	4.24	3.80	5.91	8.18	7.54	10.20	6.59
1961/63 ~ 1977/79	3.64	2.70	1.70	2.71	-3.97	5.30	8.93	7.89	7.96
1977/79 ~ 1987/89	2.92	0.44	-0.11	0.33	-6.10	-0.94	7.55	8.13	8.30
1987/89 ~ 1997/99	0.05	-0.92	-1.67	-1.78	0.38	1.15	0.64	-6.52	1.31
1955/57 ~ 1997/99	2.81	1.59	0.81	1.21	-2.11	3.19	6.37	4.64	6.22

<부표 16> 강원도 농업총생산의 변화

(단위:10억원)

	농업 총생산	경종작물	식량작물			채소류	과실류	특용작물	축산부문
			합계	미곡	기타곡류				
1955	446	360	302	184	118	55	2	2	85
1956	364	270	219	121	98	48	2	2	93
1957	459	356	288	170	118	63	3	1	103
1958	437	329	268	147	121	56	3	2	108
1959	455	339	294	187	108	40	3	3	115
1960	464	361	313	200	113	43	3	3	103
1961	496	379	322	198	124	51	3	3	117
1962	524	393	319	207	113	67	4	2	131
1963	514	386	323	209	114	58	2	3	128
1964	572	458	366	210	157	84	4	3	114
1965	519	403	321	171	151	71	7	4	116
1966	556	439	316	169	147	110	8	5	117
1967	647	535	398	192	206	124	8	5	112
1968	637	518	381	176	205	122	8	6	120
1969	634	521	407	221	185	100	8	6	113
1970	610	491	380	190	190	93	11	7	119
1971	686	559	405	224	181	132	12	10	127
1972	672	545	389	226	163	131	14	11	126
1973	745	608	459	273	185	123	14	12	138
1974	744	582	416	221	196	138	14	13	162
1975	799	670	516	304	212	127	14	14	128
1976	834	707	510	311	200	159	21	17	126
1977	900	761	552	362	190	168	21	21	139
1978	853	690	517	345	172	141	20	12	163
1979	901	733	485	305	180	216	20	12	168
1980	693	558	321	158	163	209	20	8	135
1981	922	773	527	297	230	214	20	12	149
1982	984	807	515	312	203	259	19	13	177
1983	993	776	503	311	191	228	24	21	217
1984	1028	795	540	338	201	210	24	21	233
1985	1132	880	586	341	245	244	25	26	251
1986	1142	901	556	328	228	290	23	31	242
1987	1087	851	584	374	209	216	19	32	237
1988	1088	862	528	356	172	280	23	31	225
1989	1154	918	645	405	239	221	29	23	236
1990	961	731	486	343	143	205	21	19	230
1991	1010	749	492	353	139	219	19	18	261
1992	1030	771	519	340	179	214	19	20	259
1993	928	674	399	234	165	245	16	14	254
1994	1001	732	467	316	152	228	18	18	269
1995	1002	711	423	267	156	251	19	17	291
1996	1063	765	480	313	167	250	20	15	298
1997	1089	780	483	324	159	256	22	18	310
1998	1061	749	455	308	147	257	20	17	312
1999	1144	828	494	323	172	294	25	14	316
연평균성장률(%)									
1955/57 ~ 1961/63	3.22	2.71	2.98	4.40	0.78	1.08	3.61	9.40	4.92
1961/63 ~ 1977/79	3.48	4.04	3.02	3.17	2.77	7.04	12.86	11.19	1.40
1977/79 ~ 1987/89	2.29	1.88	1.23	1.16	1.36	3.17	1.64	6.94	4.04
1987/89 ~ 1997/99	-0.10	-1.09	-2.02	-1.72	-2.59	1.20	-0.51	-5.54	2.99
1955/57 ~ 1997/99	2.30	2.10	1.37	1.68	0.85	3.85	5.53	5.72	2.90

<부표 17> 충청북도 농업총생산의 변화

(단위:10억원)

	농업 총생산	경종작물	식량작물			채소류	과실류	특용작물	축산부문
			합계	미곡	기타곡류				
1955	450	357	314	200	114	34	7	2	92
1956	445	361	319	197	122	31	8	2	84
1957	485	402	356	242	114	36	8	2	83
1958	526	437	380	252	128	47	8	2	88
1959	546	455	409	267	142	36	7	2	92
1960	573	483	429	280	149	41	9	4	90
1961	619	530	462	292	171	56	7	5	89
1962	566	460	363	226	136	85	9	4	106
1963	646	536	446	295	152	76	9	4	111
1964	746	646	537	329	208	91	11	6	100
1965	716	613	491	290	200	98	16	8	104
1966	832	725	564	330	234	128	23	11	107
1967	861	761	542	313	229	177	26	16	101
1968	868	763	489	282	207	227	30	16	105
1969	840	740	518	309	209	180	26	15	101
1970	873	768	529	324	206	193	27	19	105
1971	925	818	555	368	186	217	26	20	107
1972	883	775	495	330	165	216	44	19	108
1973	1009	889	571	398	173	250	49	19	120
1974	1080	946	606	440	167	257	65	18	134
1975	1096	979	670	503	167	221	69	19	117
1976	1180	1055	675	500	175	278	80	22	125
1977	1286	1151	734	598	136	298	100	19	134
1978	1102	943	594	467	127	204	121	24	159
1979	1331	1171	628	512	116	395	125	23	160
1980	941	816	364	275	89	337	103	11	125
1981	1110	994	550	457	94	310	118	16	116
1982	1173	1040	589	496	92	294	132	25	134
1983	1379	1200	609	526	83	419	126	45	180
1984	1281	1083	623	533	90	277	123	60	198
1985	1363	1140	622	544	77	333	121	64	224
1986	1364	1147	602	527	75	330	128	86	217
1987	1203	999	613	535	78	203	98	85	204
1988	1280	1084	625	544	81	252	120	86	196
1989	1239	1037	602	522	80	235	123	77	202
1990	1171	954	547	479	68	231	112	64	217
1991	1177	943	521	465	56	262	110	49	234
1992	1261	1012	520	459	60	302	135	55	249
1993	1292	1010	474	415	59	358	141	38	282
1994	1303	1000	468	423	44	330	162	40	303
1995	1380	1037	444	396	49	336	211	46	343
1996	1495	1124	495	441	54	368	223	39	370
1997	1494	1107	504	451	53	341	218	44	387
1998	1406	1019	482	427	55	288	204	45	387
1999	1622	1236	520	459	61	399	282	35	385
연평균성장률(%)									
1955/57 ~ 1961/63	4.84	5.30	4.27	4.07	4.63	13.45	0.87	16.33	2.73
1961/63 ~ 1977/79	4.53	4.87	2.73	4.23	-1.19	9.30	17.93	10.60	2.50
1977/79 ~ 1987/89	0.01	-0.45	-0.61	0.15	-4.49	-2.58	-0.16	14.05	2.87
1987/89 ~ 1997/99	1.96	0.75	-1.98	-1.78	-3.44	4.06	7.51	-6.65	6.77
1955/57 ~ 1997/99	2.87	2.65	1.01	1.77	-1.72	5.67	8.43	7.78	3.62

<부표 18> 충청남도 농업총생산의 변화

(단위:10억원)

	농업 총생산	경종작물	식량작물			채소류	과실류	특용작물	축산부문
			합계	미곡	기타곡류				
1955	910	792	674	498	177	94	19	4	118
1956	866	766	670	488	182	73	19	4	100
1957	924	816	716	550	165	76	21	4	108
1958	1004	892	788	599	189	79	19	5	112
1959	1063	941	838	630	207	79	19	6	122
1960	1097	974	859	651	207	94	16	5	123
1961	1146	1022	901	669	232	99	15	7	124
1962	1063	895	760	558	202	109	20	6	168
1963	1352	1188	1032	788	244	124	23	9	164
1964	1505	1355	1172	835	337	143	31	9	150
1965	1407	1256	1069	744	325	131	48	9	151
1966	1588	1437	1184	789	395	189	52	12	151
1967	1612	1457	1169	807	361	218	57	12	155
1968	1720	1558	1254	902	352	225	67	12	161
1969	1642	1483	1201	877	325	204	67	11	158
1970	1657	1482	1193	898	295	192	81	16	175
1971	1577	1401	1073	819	253	255	56	17	176
1972	1618	1440	1095	841	254	260	66	19	178
1973	1726	1520	1154	891	263	270	75	20	207
1974	1876	1633	1232	960	272	295	86	21	243
1975	1892	1683	1317	997	320	266	74	26	209
1976	2181	1942	1454	1138	316	361	94	32	239
1977	2414	2176	1618	1393	225	402	127	29	238
1978	2252	1977	1410	1207	203	422	110	36	275
1979	2516	2199	1466	1238	229	584	115	35	316
1980	1924	1656	1022	873	149	502	109	23	268
1981	2154	1892	1290	1126	164	447	126	29	261
1982	2274	1960	1338	1206	132	464	128	32	314
1983	2477	2043	1384	1255	129	459	150	50	434
1984	2505	2059	1449	1334	115	419	142	49	447
1985	2572	2091	1420	1324	96	444	171	55	482
1986	2707	2176	1403	1325	78	527	179	68	530
1987	2561	2017	1305	1230	75	433	203	77	543
1988	2892	2340	1507	1426	81	546	207	81	552
1989	2884	2291	1453	1365	88	550	211	77	593
1990	2794	2158	1364	1301	63	546	179	69	635
1991	2852	2156	1335	1283	52	574	185	62	696
1992	2921	2172	1310	1264	46	599	199	64	749
1993	3004	2174	1246	1202	44	677	202	49	830
1994	3118	2237	1251	1202	49	709	226	52	880
1995	3133	2184	1121	1076	45	767	239	57	948
1996	3386	2404	1389	1342	47	743	225	46	982
1997	3463	2500	1455	1410	45	744	253	48	963
1998	3345	2384	1358	1317	42	743	236	46	961
1999	3578	2636	1442	1395	47	886	263	45	941
연평균성장률(%)									
1955/57~1961/63	4.72	4.57	4.57	4.63	4.41	5.24	-0.65	12.36	5.78
1961/63~1977/79	4.48	4.58	3.25	4.11	-0.21	9.47	11.95	9.88	3.80
1977/79~1987/89	1.50	0.46	-0.52	0.47	-9.42	0.83	5.86	8.93	7.38
1987/89~1997/99	2.22	1.24	-0.02	0.25	-5.82	4.49	1.94	-5.06	5.43
1955/57~1997/99	3.26	2.78	1.74	2.38	-3.19	5.57	6.21	6.24	5.31

<부표 19> 전라북도 농업총생산의 변화

(단위:10억원)

	농업 총생산	경종작물	식량작물			채소류	과실류	특용작물	축산부문
			합계	미곡	기타곡류				
1955	988	871	798	612	186	58	14	2	117
1956	981	872	736	528	207	121	14	2	109
1957	1062	956	797	615	182	143	14	2	106
1958	1128	1021	876	656	221	127	14	4	107
1959	1111	1003	887	674	213	103	11	2	109
1960	1100	986	892	667	225	82	10	2	114
1961	1234	1114	976	715	261	118	18	2	119
1962	1113	973	852	588	264	106	12	3	140
1963	1262	1127	1015	779	236	96	12	3	135
1964	1538	1415	1270	857	413	118	24	3	123
1965	1440	1321	1164	718	446	135	18	4	119
1966	1655	1536	1326	823	502	183	21	5	119
1967	1408	1289	1109	731	377	149	24	8	119
1968	1490	1355	1158	668	490	166	24	8	135
1969	1662	1537	1339	859	480	162	27	10	125
1970	1591	1469	1299	779	519	139	26	6	121
1971	1588	1463	1246	809	437	183	21	13	125
1972	1616	1494	1276	832	444	181	27	11	122
1973	1526	1389	1168	785	383	185	26	11	136
1974	1624	1464	1231	921	310	188	31	15	160
1975	1672	1535	1329	935	394	169	22	15	137
1976	1916	1760	1500	1100	400	214	27	18	156
1977	1811	1662	1396	1173	223	206	42	18	149
1978	1823	1656	1390	1117	274	201	44	21	167
1979	2046	1842	1512	1229	283	268	39	23	204
1980	1511	1350	1069	891	178	227	42	12	161
1981	1783	1641	1343	1154	189	244	38	17	142
1982	1889	1732	1361	1195	165	304	44	24	157
1983	1950	1734	1361	1190	172	282	53	37	216
1984	1983	1751	1402	1255	146	263	49	37	232
1985	2031	1780	1387	1281	106	279	65	50	251
1986	2157	1879	1396	1316	80	356	66	61	278
1987	2037	1754	1333	1256	77	303	54	64	283
1988	2291	2013	1492	1403	89	391	60	71	278
1989	2213	1933	1472	1364	109	341	65	54	280
1990	2184	1859	1402	1318	84	363	50	44	325
1991	2191	1829	1358	1281	77	379	50	43	362
1992	2280	1875	1370	1285	85	412	49	44	406
1993	2285	1841	1315	1231	85	445	46	35	444
1994	2262	1785	1279	1206	73	414	48	44	477
1995	2360	1850	1222	1126	96	511	70	47	510
1996	2563	2035	1323	1200	123	582	90	40	527
1997	2517	1935	1293	1212	81	501	100	41	581
1998	2407	1836	1241	1157	84	453	98	44	570
1999	2616	2011	1308	1199	108	561	100	42	605
연평균성장률(%)									
1955/57~1961/63	2.95	2.95	3.37	2.90	4.75	-0.08	0.31	8.17	2.90
1961/63~1977/79	2.87	3.00	2.62	3.33	0.15	4.76	7.09	13.15	1.74
1977/79~1987/89	1.42	1.00	-0.003	1.35	-9.91	4.37	3.70	11.61	4.93
1987/89~1997/99	1.43	0.14	-1.11	-1.19	-0.03	3.89	5.26	-3.88	7.65
1955/57~1997/99	2.19	1.83	1.20	1.70	-1.76	3.76	4.86	7.79	4.05

<부표 20> 전라남도 농업총생산의 변화

(단위:10억원)

	농업 총생산	경종작물	식량작물			채소류	과실류	특용작물	축산부문
			합계	미곡	기타곡류				
1955	1462	1296	1137	805	332	139	17	3	166
1956	1196	1016	892	581	311	104	18	3	180
1957	1442	1258	1136	834	302	104	17	2	184
1958	1496	1299	1166	809	357	113	17	3	197
1959	1481	1266	1159	792	366	88	16	3	215
1960	1442	1225	1110	758	352	96	16	3	217
1961	1691	1490	1306	880	426	162	19	4	201
1962	1700	1444	1322	843	479	100	17	6	257
1963	1589	1334	1244	918	326	70	16	4	256
1964	2112	1870	1690	1046	643	148	28	5	242
1965	2048	1793	1588	887	701	169	30	7	255
1966	2354	2086	1836	1036	800	208	32	10	268
1967	1728	1473	1268	689	579	168	26	11	255
1968	1926	1651	1397	561	837	205	34	15	275
1969	2391	2134	1887	1056	832	199	26	22	257
1970	2276	2041	1802	935	867	175	34	31	236
1971	2461	2208	1931	1057	873	213	28	37	253
1972	2542	2290	2017	1049	968	217	25	30	252
1973	2561	2291	1994	1089	905	226	32	39	270
1974	2485	2174	1846	1012	834	248	36	44	312
1975	2725	2449	2157	1127	1030	216	33	44	276
1976	3118	2800	2410	1368	1043	276	41	73	319
1977	2927	2648	2257	1557	700	299	38	53	279
1978	2992	2676	2254	1375	878	328	28	67	316
1979	3464	3118	2530	1566	964	481	33	75	345
1980	2480	2186	1670	1012	658	464	30	22	293
1981	2730	2462	1992	1239	753	399	39	32	267
1982	2849	2553	2003	1344	658	440	58	53	296
1983	3023	2661	2059	1373	685	459	71	72	363
1984	3158	2791	2176	1465	711	455	87	73	367
1985	3132	2730	2014	1474	539	539	108	69	401
1986	3125	2727	1866	1389	477	675	120	67	398
1987	3039	2656	1788	1307	481	688	124	57	383
1988	3622	3255	2152	1597	555	862	155	86	367
1989	3425	3046	1937	1414	523	879	161	69	379
1990	3480	3073	1918	1473	445	962	133	60	407
1991	3525	3074	1764	1375	390	1114	141	54	451
1992	3718	3220	1750	1352	398	1241	168	61	498
1993	3730	3154	1634	1258	376	1341	135	43	576
1994	3823	3177	1653	1367	286	1301	167	56	646
1995	4235	3486	1671	1334	337	1573	166	76	749
1996	4560	3739	1947	1575	372	1529	189	74	821
1997	4534	3713	1956	1660	296	1447	223	88	820
1998	4385	3573	1833	1546	287	1431	229	80	813
1999	4390	3599	1805	1509	296	1528	210	56	791
연평균성장률(%)									
1955/57 ~ 1961/63	3.30	3.02	3.42	2.93	4.51	-0.68	-0.42	9.72	5.09
1961/63 ~ 1977/79	4.04	4.36	3.81	3.39	4.64	7.82	4.19	18.45	1.75
1977/79 ~ 1987/89	0.73	0.59	-1.79	-0.41	-4.77	8.17	16.16	0.78	1.85
1987/89 ~ 1997/99	2.81	1.97	-0.49	0.89	-5.57	6.14	4.16	0.56	7.93
1955/57 ~ 1997/99	2.84	2.69	1.37	1.81	-0.17	6.25	6.23	8.43	3.69

<부표 21> 경상북도 농업총생산의 변화

(단위:10억원)

	농업 총생산	경종작물	식량작물			채소류	과실류	특용작물	축산부문
			합계	미곡	기타곡류				
1955	1433	1229	1081	742	339	96	49	2	204
1956	1315	1100	938	616	323	109	50	3	215
1957	1386	1166	971	671	299	133	60	3	220
1958	1474	1250	1057	734	323	103	86	3	224
1959	1532	1291	1085	715	370	88	114	4	241
1960	1389	1143	938	574	364	89	113	3	246
1961	1635	1394	1201	789	412	106	82	4	241
1962	1504	1224	982	628	354	114	123	5	280
1963	1718	1435	1188	867	321	130	112	5	283
1964	1921	1653	1356	884	472	161	130	7	268
1965	2026	1755	1393	867	526	174	180	8	271
1966	2210	1925	1505	959	546	229	180	11	284
1967	2133	1841	1407	925	482	226	194	14	292
1968	2040	1743	1204	726	478	323	200	16	297
1969	2277	1982	1502	987	515	243	219	19	294
1970	2256	1966	1466	974	492	262	216	23	290
1971	2285	1975	1375	908	468	330	244	25	310
1972	2330	2012	1367	919	448	338	278	29	318
1973	2439	2108	1434	1032	402	333	312	28	331
1974	2583	2224	1531	1081	450	346	318	30	359
1975	2675	2355	1735	1198	538	323	266	31	320
1976	2765	2426	1684	1161	523	398	306	38	339
1977	2922	2585	1766	1405	361	416	361	41	337
1978	3144	2748	1997	1586	411	336	370	45	396
1979	3230	2810	1717	1309	408	647	407	39	419
1980	2143	1770	825	554	271	540	387	17	374
1981	2827	2460	1412	1167	245	520	502	27	366
1982	2791	2381	1293	1065	228	536	511	40	410
1983	3301	2771	1479	1232	246	606	610	76	530
1984	3200	2668	1512	1278	234	535	532	89	532
1985	3386	2803	1470	1257	213	659	579	96	584
1986	3513	2914	1417	1251	166	785	596	115	599
1987	3504	2893	1442	1276	166	676	639	135	611
1988	3822	3219	1459	1286	173	936	695	130	603
1989	3820	3205	1493	1306	187	906	714	92	615
1990	3728	3089	1416	1261	155	895	684	93	639
1991	3592	2896	1248	1132	116	938	634	76	696
1992	3824	3081	1220	1105	115	1029	766	67	742
1993	3448	2683	907	802	105	1012	729	35	765
1994	3673	2864	1085	1020	65	953	759	67	809
1995	4171	3284	1029	936	93	1186	990	79	887
1996	4259	3329	1111	1018	92	1175	980	64	930
1997	4404	3446	1148	1057	90	1166	1058	74	958
1998	3948	3048	1016	933	83	1061	920	50	900
1999	4326	3399	1106	1014	92	1243	993	57	927
연평균성장률(%)									
1955/57~1961/63	2.73	2.50	2.01	1.99	2.06	0.60	12.32	9.39	3.95
1961/63~1977/79	4.14	4.46	3.09	4.03	0.52	9.03	8.32	14.60	2.27
1977/79~1987/89	1.83	1.36	-2.19	-1.05	-7.77	6.05	6.05	11.09	4.73
1987/89~1997/99	1.30	0.60	-2.91	-2.50	-6.59	3.26	3.79	-6.60	4.29
1955/57~1997/99	2.70	2.51	0.21	0.94	-3.01	5.70	7.24	7.63	3.57

<부표 22> 경상남도 농업총생산의 변화

(단위:10억원)

	농업 총생산	경종작물	식량작물			채소류	과실류	특용작물	축산부문
			합계	미곡	기타곡류				
1955	1247	1082	944	667	277	118	18	2	165
1956	1017	848	720	469	251	108	18	2	169
1957	1236	1056	930	673	257	110	15	2	180
1958	1331	1145	1028	732	296	97	18	2	186
1959	1236	1035	920	626	293	103	11	2	201
1960	1199	995	888	586	302	90	15	2	203
1961	1451	1243	1097	769	327	122	20	4	208
1962	1413	1167	1025	680	345	115	20	7	245
1963	1395	1148	1031	787	244	93	17	6	247
1964	1582	1349	1206	749	458	113	21	8	233
1965	2026	1787	1591	809	782	153	35	8	239
1966	1926	1672	1462	855	607	166	35	8	254
1967	1845	1590	1321	797	524	213	48	9	254
1968	1856	1555	1235	629	606	256	54	9	301
1969	2102	1822	1372	787	585	354	74	22	280
1970	1972	1712	1314	766	548	321	56	21	259
1971	2055	1777	1359	820	540	329	61	27	278
1972	2005	1726	1303	802	501	318	80	25	279
1973	1893	1594	1189	750	440	295	82	28	299
1974	2077	1755	1345	897	448	308	76	26	323
1975	2013	1729	1308	737	571	333	62	26	284
1976	2326	2014	1523	969	554	385	71	35	312
1977	2217	1916	1471	1084	387	351	65	30	301
1978	2595	2231	1768	1238	529	345	86	33	364
1979	2235	1848	1355	854	501	410	64	19	387
1980	1689	1351	910	572	338	367	65	9	338
1981	2125	1781	1296	929	367	369	95	20	345
1982	2070	1684	1171	841	330	351	137	24	387
1983	2337	1854	1294	938	356	333	187	40	483
1984	2287	1788	1308	974	334	285	158	38	499
1985	2317	1779	1226	918	308	321	202	30	538
1986	2361	1815	1208	919	289	387	178	42	546
1987	2281	1726	1211	935	276	352	137	26	555
1988	2686	2157	1328	1034	294	585	203	40	530
1989	2627	2089	1252	982	270	595	215	27	538
1990	2668	2108	1205	999	206	696	172	34	561
1991	2652	2082	1098	912	185	764	191	30	570
1992	2744	2151	1061	870	191	839	219	31	593
1993	2566	1950	888	727	161	868	180	15	615
1994	2704	2070	956	837	119	880	208	26	634
1995	3007	2341	950	809	141	1108	254	30	665
1996	3024	2329	1009	872	137	985	308	27	695
1997	3015	2308	971	849	122	986	325	26	707
1998	2909	2218	901	794	106	989	307	20	691
1999	3182	2491	911	789	122	1217	343	19	691
연평균성장률(%)									
1955/57~1961/63	3.33	2.97	3.31	3.60	2.62	-0.27	2.31	20.17	5.33
1961/63~1977/79	3.20	3.31	2.38	2.22	2.76	7.84	8.61	10.14	2.58
1977/79~1987/89	0.75	-0.04	-1.90	-0.73	-5.11	3.32	9.93	1.45	4.43
1987/89~1997/99	1.83	1.63	-3.05	-1.92	-8.37	7.62	5.80	-3.48	2.56
1955/57~1997/99	2.30	2.05	0.17	0.71	-1.90	5.51	7.32	5.97	3.40

<부표 23> 제주도 농업총생산의 변화

(단위:10억원)

	농업 총생산	경종작물	식량작물			채소류	과실류	특용작물	축산부문
			합계	미곡	기타곡류				
1955	134	98	91	5	86	8	0	0	36
1956	121	88	81	3	78	7	0	0	34
1957	124	90	77	3	74	12	0	0	34
1958	123	87	77	5	72	10	0	0	36
1959	140	100	90	4	86	10	0	0	40
1960	167	125	109	5	104	16	0	0	43
1961	166	117	108	6	102	9	0	0	49
1962	203	147	134	7	127	10	1	2	56
1963	193	127	116	9	108	9	1	1	65
1964	263	193	178	7	171	10	1	3	71
1965	328	257	237	10	227	16	1	4	71
1966	281	208	182	6	176	19	2	5	73
1967	221	154	130	5	125	17	1	6	66
1968	270	220	187	6	181	22	3	7	51
1969	257	209	180	7	173	19	2	8	48
1970	227	181	150	4	146	16	4	11	46
1971	215	171	127	5	123	19	5	19	44
1972	238	193	139	7	133	24	10	19	45
1973	246	194	124	7	116	22	23	24	52
1974	285	233	153	7	145	22	27	31	53
1975	390	342	216	8	208	21	70	34	48
1976	348	296	193	7	186	21	44	38	52
1977	415	365	190	8	182	29	106	39	51
1978	444	388	222	5	217	23	112	30	56
1979	472	412	205	6	199	35	152	20	60
1980	465	418	172	6	166	61	169	16	47
1981	501	462	158	6	152	62	218	23	39
1982	589	547	137	7	130	88	291	30	42
1983	637	585	132	7	126	83	346	24	52
1984	592	536	128	6	122	102	274	33	55
1985	723	654	124	5	119	125	388	18	69
1986	715	647	106	3	103	165	355	20	68
1987	830	762	112	5	108	173	462	15	68
1988	783	717	138	5	133	120	434	25	66
1989	1142	1075	146	5	141	127	782	20	67
1990	844	787	131	4	127	121	515	19	58
1991	937	862	108	3	105	160	582	12	75
1992	1149	1063	138	2	136	158	752	15	86
1993	1014	929	120	1	119	157	648	4	84
1994	957	864	122	1	121	160	574	8	93
1995	1089	980	135	1	134	191	644	10	109
1996	998	882	137	1	136	197	538	10	115
1997	1132	998	98	1	97	214	679	8	134
1998	956	822	85	1	84	186	539	12	134
1999	1098	965	87	1	86	216	657	6	133
연평균성장률(%)									
1955/57 ~ 1961/63	6.76	6.02	6.26	11.65	5.97	1.30	19.59	46.97	8.59
1961/63 ~ 1977/79	5.54	7.05	3.46	-0.79	3.66	7.40	40.31	22.26	-0.14
1977/79 ~ 1987/89	7.55	8.17	-4.34	-2.72	-4.39	16.99	16.31	-3.85	1.87
1987/89 ~ 1997/99	1.47	0.87	-3.78	-15.80	-3.52	3.87	1.12	-8.14	7.18
1955/57 ~ 1997/99	5.20	5.66	0.19	-3.42	0.27	7.84	21.31	10.74	3.27

감사의 글

거의 1년동안 이 논문을 끝마치기 위해 내 나이 또래의 사람들이 쉽게 누릴 수 있는 생활을 포기하고 살았던 한해였습니다. 그 포기된 삶보다는 이 논문이 더욱 값진 것이기를 바라지만, 준비되지 않은 부족한 상태에서 보낸 석사과정이라 능력의 한계를 절실히 느끼고 '제 책임입니다'라고 이쯤찍혀 나온다는 게 되려 철회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내가 살아 나가는데 있어서 1년이라는 짧은 시간이지만 그 시간을 각인시켜두고 간다는 것에 위안을 삼습니다.

처음 석사과정에 들어올 때부터 내가 나를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신경을 써주시고 끊임없는 격려와 가르침으로 우울한 석사과정을 무사히 뚫고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신 지도교수 유영봉교수님께 깊은 감사의 마음만큼이나 많이 죄송합니다.

그리고, 6개월 이상 통계자료를 빌려다 놓고 갖다 드리지 못했는데 얼굴 한번 찡그리지 않고 오�히려 논문이 언제 나오냐면서 많은 걱정과 함께 세심한 관심을 보여주셨던 현공남교수님, 강동일 교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일요일에도 학교에 나오셔서 연구에 열심이셨던 강경선교수님, 김경택 교수님, 학장겸임하시느라 바쁘셨을텐데도 걱정해주시고 열심히 하라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던 강지용교수님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센터평가 관계로 아주 바쁜 한해를 보내면서도 논문에 충실하라며 많은 배려를 아끼지 않으셨던 류기중교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센터일을 도맡아서 하느라 힘든 한해를 보냈을텐데도 불평 한마디없이, 논문 다 끝냈다고 했을 때 너무나 기뻐해서 나를 어리둥절하게 했던 미숙언니 정말정말 고맙고, 바쁘고 힘들때 옆에서 힘이 되어 주지 못해서 정말로 미안해요. 일본에 유학간다고 했을 때 한국자료가 필요하면 다 챙겨서 보내준다고 약속했는데, 어찌다가 같은 기간에 석사과정을 밟게 되어 외국에서 고생이 많았을텐데도 힘내라며 격려해준 자경이에게 고맙고, 많은 도움도 되지 못하고 자료도 잘 챙겨주지 못해서 미안해. 일본에서 박사과정 잘 받고, 그 때 만약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두팔 걷어부치고 도와줄게.

가끔 얼굴을 내밀어서는 논문쓰느라 끙끙대던 내 속을 다 뒤집어 놓게 했던 종진이오빠, 장난이었지만 속으로는 많이 걱정해 준 걸 알고 민생고 해결에 많은 도움을 주셔서 고마워요. 그리고, 항상 '바쁘다'를 연발하면서 아주 꼼꼼히 논문을 읽어주시고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코멘트를 해 주셨던 고상환선배님께도 감사드리며, 한해동안 논문쓰느라 고생한 팽철이오빠, 마야, 같은 연구실에서 논문쓰는데 방해되지 않도록 마음줄였을 지영이, 혜영이도 고마워. 그리고, 학교에서 생활하는 동안 많이 괴롭혔던 은미언니, 진심은 그게 아니었던 걸 말하고 싶고 결혼하는 거 진심으로 축하하고 행복하게 살길 빌게요. 그리고, 매주 만날 때마다 걱정을 해주신 조교모임 선생님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자주 연락을 하지 못해서 미안한 현희와 현정이안테도 고맙다는 말을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달에 한번도 얼굴을 비치지 않아 걱정이 많으셨을 어머니와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있을 수 있도록 많은 도움과 관심을 아끼지 않으셨던 가족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커다란 즐거움 없이 일상적으로 반복적인 생활을 했던 1년동안 그래도 버틸 수 있도록 예쁜 카드메일을 보내며 날 웃게 해줬던 조카 희진이랑, 자기한테도 메일 보내달라며 다양한 내용을 포함한 카드를 보내줬던 희빈이, 같이 자취하면서 많이 챙겨주지 못했는데도 스스로 잘 알아서 지냈던 형신이에게 미안하고 또 고맙다는 말을 전합니다.

2001년 12월